



[종합] 세계 사장들의 신년사 05·06·08·09·10·11·12



Economy

↑ 코스피 2479.65 (+12.16)	↑ 코스닥 812.45 (+14.03)
↓ 금리(미국 3년) 2.12 (-0.02)	↓ 환율(원·달러) 1061.20 (-9.30) (2일)

두 자릿수 청년실업률, '학력과잉'이 빛은 비극

기업&일자리가 희망이다

② 청년이 희망이다

大·中企 일자리미스매치 등 구직난은 복합적 사회문제

부처 합동 일자리대책회의 본격적 취업 초강수 통할까

'두 자릿수에 육박하는 청년실업률을 줄여라.'

대한민국이 미래를 짊어질 청년들의 일자리를 '무술년(戊戌年)' 새해에 얼마나 만들어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해 11월 기준 15~29세 청년실업률은 9.2%로 1년 전인 2016년 11월 당시의 8.2%보다 1% 포인트(p)나 증가했다. 특히 고교 졸업, 대학 졸업 후 한창 일할 때인 20~29세 청년실업률은 9.4%까지 상승했다. <관련기사 3면>

반면 50~59세 장년실업률은 1.6%에 그쳤다. 한정된 일자리를 놓고 자식 세대와 부모 세대간 갈등도 전개되는 양상이다.

2일 청와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가칭) '청년일자리 대책회의'를 별도로 만들어 본격적으로 청년 취업 대책 마련에 나선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출범 이후 청년 구직수당 신설,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 확대, 공무원 등 공공부문 대규모 확충 등의 정책을 통해 청년 취업을 위한 '마중물' 붓기에 집중했다. 지난해 대책은 올해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돼 본격 실행 단계에 접어든다.

올해부터 부처 합동으로 청년 일자리 대책회의를 따로 만들기로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대책회의는 비상설로 열되, 기존에 나왔던 대책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꾸러질 것"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고민도 적지 않다. 그동안 정권을 넘나들며 수많은 청년 고용 대책이 쏟아졌지만 청년 실업률은 전체 평균 실업률(3% 수준대)을 훌쩍 웃돌며 좀처럼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나 관련 정책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해보면 이유는 상당



"필승!" 무술년 첫해 해군·해경 입영식

2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 해군 교육사령부 연병장에서 열린 무술년 첫 '해군병 646기 및 해경 386기 입영식'에서 입영장병들이 거수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히 복잡적이다. '학력 과잉'이 대표적이다. 고졸자의 상당수가 대학을 가는 현실에서 취업 눈높이는 자연스럽게 높아질 수밖에 없다. 전체 일자리 가운데 대기업이 약 12%, 중소기업은 88% 가량을 차지하고 현실에서 일자리가 많은 중소기업보다 대부분이 대기업 취업에 '몰인'하고 있는 모습이 다. <2면에 계속>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애플, 차기 아이폰X용 두뇌 양산

국내 검사장비 부품업체서 AP점검용 소켓 대량 주문

최근 '배터리 게이트'로 곤욕을 당하고 있는 애플이 차기 아이폰 X에 사용할 두뇌 양산에 들어갔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애플은 최근 국내 반도체 검사장비 부품업체에 스마트폰의 두뇌격인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AP) 점검용 소켓을 대량 주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9월께 출시 예정인 아이폰 Xs와 아이폰X 플러스에 사용할 'A12' 프로세서 개발을 마치고 양산 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풀이된다.

애플이 국내 업체에 주문한 AP 검사장비는 약 3만대로 추산된다. 이 검사장비는 생산한 AP가 정상 작동하는지 전기 신호를 확인하는데 사용된다. 실리콘 러버(Rubber) 재질이어서 반도체에 손상을 입히지 않지만, 하나의 제



품을 6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는 소모품이다.

주문 시기를 감안할 때 애플의 이번 주문은 차기 아이폰X(텐)에 사용된 A12 프로세서를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애플은 올 9월 아이폰X과 동일한 노치 디스플레이가 적용된 후속모델을 선보일 예정이다. 5.8인치 아이폰Xs와 6.4인치 아이폰X 플러스 모델이 그것.

A12 프로세서는 대만의 반도체 위탁 생산 업체(파운드리) TSMC에서 생산한다.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인 TSMC는 애플에 AP를 공급하기 위해 250억 달러(약 28조원)를 투자했다. 덕분에 아이폰 7부터 아이폰용 AP를 전량 공급하고 있다. TSMC는 아이폰Xs와 아이폰X 플러스에 들어가는 A12 프로세서에 7나노 공정을 적용할 전망이다.

애플이 차기 아이폰X 시리즈 생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흥행 여부는 미지수다. 최근 불거진 배터리 게이트 때문이다. 애플은 리튬이온 배터리 성능 저하를 이유로 구형 아이폰 성능을 제한하는 iOS 업데이트를 사용자 동의 없이 단행한 것이 적발돼 세계 각지에서 소송을 당하는 상황이다. 애플은 이러한 사실을 공식 인정, 사과했지만 미국, 이스라엘, 한국, 일본, 호주 등의 국가에서 150건 이상의 소송이 접수 또는 준비 중이다.

아이폰 사용자들에게 신형 아이폰 구매를 유도하기 위해 꼼수를 쓴 것 아니냐는 소비자들의 반발에 애플은 배터리 교체 비용을 기존 79달러에서 29달러로 할인 해주겠다는 보상안도 공개했다. 그러나 세계 스마트폰 시장 영업 이익의 60%를 차지하는 회사가 보상안으로 배터리 판매를 내세웠다는 점에서 소비자 반발은 더욱 거세졌다. /오세성 기자 sesung@

원·달러 환율 1061.2원, 3년2개월 만에 최저

올해 외환시장 첫 개장일인 2일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이 3년 2개월 만에 최저치(원화값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원화 강세 현상이 이어졌다. <관련기사 4면>

지난해 말부터 시작된 원화 강세 흐름 속 국내 경기 회복세와 글로벌 달러 약세 현상이 더해진 영향으로 분석된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

러 환율은 전 거래일 대비 9.3원 급락한 1061.2원에 거래를 마쳤다. 지난 2014년 10월 30일 1055.5원 이후 3년 2개월여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시장에선 이날 외국인의 국내 증시 매수가 원화 강세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해석했다. 외국인은 이날 코스피시장에서 1326억 원, 코스닥 878억원을 각각 순매

수했다.

한편 이날 코스피는 12.16포인트(0.49%) 오른 2479.65에 거래를 마쳤다. 코스닥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14.03포인트(1.76%) 오른 812.45에 거래를 마쳤다.

종가가 800선을 넘는 것은 2007년 11월 6일 이후 10여 년 만이다. /이봉준 기자 bj35sea@

2018년 새해 '행복' 많이 만드세요

행복은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갈 때 더욱 커지는 것이기에
올해도 SK는
우리의 행복을 더 크게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1면 '두 자릿수 청년실업률...'서 계속

정부재정→민간투자→고용 연결돼야

이 때문에 임금이나 복지 등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중소기업은 사람이 없어 쓰지 못하는 '미스매치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통계상으로도 청년실업률은 낮아지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고용통계에 따르면 만 15세 이상은 경제활동인구와 비경제활동인구로 나뉜다. 비경제활동인구란 취업도 실업도 아닌 상태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그런데 비경제활동인구(비경제활동인구)에 포함된 사람이 경기가 좋아지면서 구직활동을 시작하면 경제활동인구(경제활동인구)로 편입된다. 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을 했다면 취업자로, 일자리를 얻지 못했다면 실업자로 분류된다.

비경제활동인구에서 경제활동인구로 들어온 사람이 늘어나는 만큼 일자리도 증가해 취업을 해야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면 실업자로 분류돼 결과적으로 실업률만 높아지는 셈이다.

최근 경기가 살아난다고 하지만 그만큼 일자리가 늘어나지 못한 것이 실업률 상승에 한몫 하고 있는 것이다.

연세대 경제학부 성태운 교수는 "청년 실업이 늘어나는 것은 경기 침체 장기화로 기업들이 구직을 꺼리고, 일자리 양극화가 심해져서 등 노동시장의 구조가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라며 "고용은 온전히 기업의 몫이다. 청년들이 원하는 것도 기업이 창출하는 양질의 일자리다. 핵심은 투자가 고용창출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정부 재정이 민간 투자로 연결되고 민간 투자는 고용으로 연결돼야 한다. 정책의 불확실성도 기업의 의사 결정에 어려움을 주는 요인이다. 정권이 바뀌어도 장기적 안목에서 정책을 만들어야 하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조언했다. /김승호 기자 bada@

“9일 판문점서 고위급회담 열자”

조명균 통일부 장관, 北에 제의



지난 1일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신년사를 통해 평창올림픽 대표단 참가를 위한 남북대화 용의가 있다고 밝힌 가운데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2일 “정부는 9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고위급 남북당국 회담을 제의한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회견을 열고 “북측 참가 등과 관련한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동계올림픽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점을 감안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남북이 마주앉아 평창올림픽에 북측의 참가문제 협의와 함께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상호 관심사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최신용 기자 grandtrust@

한줄 News

정치·사회

▲ 여야가 새해에도 여전히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특히 올해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여야는 정국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서로를 향한 공세의 수위를 높이는 모습이다.

▲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본격적인 통합 절차에 들어가는 모습이 관측되고 있다.

산업

▲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창립 50주년을 한 해 앞두고 현장 중심 경영에 대해 다시 한번 강조했다.

▲ 올해 창립 50주년을 맞은 포스코가 4년여의 구조조정을 성공적으로 완료하고 새로운 도약에 박차를 가한다.

금융·마켓·부동산

▲ 올해는 KB금융이라는 지주사가 설립된 지 만 10년이 되는 해다.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은 2018년을 아시아 리딩뱅크로 나아갈 새로운 10년의 출발점으로 삼을 계획이다.

▲ 국내 자본시장을 이끌고 있는 금융투자업계 기관장과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들은 무술년 새해 키워드로 '도전과 혁신'을 꼽았다.

라이프

▲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북한이 2018 평창동계올림픽 및 동계패럴림픽 참가 의지를 표명한 것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KTB투자증권 경영권 분쟁 마무리

M&A귀재 권성문, 이병철에 백기 든다

(KTB투자증권 회장)

(KTB투자증권 부회장)



이병철 KTB투자증권 부회장



권성문 KTB투자증권 회장

권성문 회장 지분 18% 매각
이병철, 우선매수청구권 행사
의결권 지분 32.76% 확보로
KTB투자증권 최대주주 올라서

권성문 KTB투자증권 회장이 경영 일선에서 물러날 예정이다. 이병철 KTB투자증권 부회장은 권 회장이 매각한 지분에 대해 우선매수청구권을 행사했다. 이에 따라 두 사람 간 경영권 분쟁이 종착지에 도달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2일 이 부회장은 우선매수청구권 행사를 통해 권 회장이 보유한 주식 1324만4956주를 매수하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다.

1주당 매수 가격은 5000원으로 총 매매대금은 662억2478만원에 달한다. 매매계약이 종결되면 이 부회장은 총 2075만7226주(38.32%)를 확보하게 된다.

이에 따라 의결권 있는 주식을 기준으로 권 회장의 지분율은 24.28%에서 5.52%로 감소하고, 이 부회장의 지분은 14.00%에서 32.76%로 늘어나 최대주주로 올라선다.

업계에서는 두 사람이 그간 치열하게 벌여온 경영권 분쟁에서 이 부회장이 승기를 잡은 것으로 보고 있다.

◆권성문이 만든 KTB

권 회장은 인수합병(M&A)의 귀재로 불린다.

지난 1991년 한국M&A를 창업한 후 수십 건의 M&A를 성사시키며 이름을 알렸다. 특히 인터넷 경매 업체 '옥션'과 취업포털 '잡코리아'를 매각해 1000억원대의 차익을 거둔 것은 유명한 일화다. 또 1996년에는 섬유회사인 영우통상 주식을 인수해 전자상거래 전문 업체로 사업구조를 바꾼 뒤 한솔그룹에 매각해 6개월 만에 9억원의 시세차익을 올리면서 사업가로서 능력도 증명했다.

현재의 KTB는 1999년 1월, 공기업이었던 한국종합기술금융(현 KTB투자증권)을 인수하면서 시작됐다. 권 회장은 이후 이를 벤처캐피털 업체 KTB네트워크(현 KTB투자증권)로 키워내며 지금의 KTB금융그룹을 완성했다. 현재 그는 KTB자산운용, KTB PE, KTB신용정보 등 계열사 지분을 100% 보유한 KTB투자증권 지분 26.72% 소유한 최대 주주다.

권)로 키워내며 지금의 KTB금융그룹을 완성했다. 현재 그는 KTB자산운용, KTB PE, KTB신용정보 등 계열사 지분을 100% 보유한 KTB투자증권 지분 26.72% 소유한 최대 주주다.

◆흔들린 리더십

하지만 견고하게 쌓아올린 리더십은 권 회장의 잇단 논란에 흔들리기 시작했다. 지난해 8월 권 회장이 개인회사 직원을 폭행하고 돈으로 사건을 무마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난 데 이어 횡령 배임 혐의와 관련해 검찰수사를 받게 된 것.

업계에서는 회장실과 자택의 압수수색까지 진행된 상황을 고려할 때 검찰이 '혐의'에 대한 '확신'이 있을 것으로 추측한다. 권 회장의 특가법상 횡령·배임 및 자본시장법상 부

정거래 혐의관련 검찰 수사는 현재도 '진행 중'이다.

권 회장이 혼란을 겪을 동안 2대 주주인 이 부회장은 지분을 늘려왔다. 이 부회장은 지난해 3월 KTB투자증권 지분 5.8%를 확보해 주주명단에 처음 이름을 올린 후 꾸준히 자사주를 매입했다. 올해 9월 기준으로 이 부회장은 KTB투자증권 지분을 16.39% 보유한 2대주주가 됐다. 권 회장과 지분(당시 21.96%) 격차를 불과 5.57%포인트(p)로 좁힌 것.

이에 권 회장과 이 부회장의 경영권 분쟁이 수면위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지난해 12월에는 권 회장 측이 긴급 이사회를 소집하며 경영권에 대한 의지를 보이기도 했다. 권 회장은 12월 한 달 동안에만 10차례에 걸쳐 자사주 매입(287만주)으로 지분율을 26.72%까지 끌어올렸다.

◆경영권 분쟁 종지부

하지만 권 회장은 주주 간 계약에 따라 지난해 12월 19일 이 부회장에 게 자신이 보유한 주식의 제3자 매각 의사와 이에 대한 우선매수청구권 등의 행사 여부에 대한 청약 통지를 했고, 이 부회장이 우선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면서 두 사람의 경영권 분쟁은 종지부를 찍게됐다.

/손은지 기자 sonumji301@metroseoul.co.kr

롯데지주, 6개 비상장 계열사 투자부문 흡수 합병



롯데지주(주)

순환출자 완전해소, 투명성 제고

롯데지주가 6개 비상장 계열사를 흡수 합병해 순환출자를 완전 해소한다.

롯데지주, 롯데지알에스, 한국후지필름, 롯데로지스틱스, 롯데상사, 대흥기획 및 롯데아이티테크는 2일 각각 이사회를 열고 롯데상사 등 6개 비상장사 투자사업부문을 롯데지주에 통합하기로 하는 합병 및 분할합병을 결의했다.

이번 롯데지주의 6개 비상장사 분할합병이 완료되면 지난해 10월 지주회사 출범 과정에서 발생한 신규 순환출자 및 상호출자를 모두 해소하게 된다.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전환 과정에서 발생한 상호출자와 순환출자는 등기일(2017년 10월 12일)로부터 6개월 내에 모두 해소해야 한다.

◆신동빈 회장 2년만에 약속 실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2015년 8월 순환출자 해소를 처음 공표한 이

후 지속적으로 "순환출자를 완전 해소하고, 복잡한 구조를 정리해 투명한 기업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롯데는 기존 순환출자리를 대폭 줄여 지배구조를 단순화함으로써 경영투명성을 제고하고, 사업과 투자부문간의 리스크를 분리시켜 경영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롯데지주를 출범했다.

이번 추가 분할합병을 통해 롯데지주는 지주회사 체제의 안정화, 자회사에 대한 지배력 확대와 함께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 아울러 투자기능을 롯데지주로 통합함으로써 투자역량 강화 및 관리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게 됐으며, 비상장 6개사의 경우 투자기능

과 사업기능 분리를 통해 경영효율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롯데지주 6개 비상장사 투자부문 흡수합병

롯데아이티테크를 제외한 5개 비상장사는 인적분할 방식으로 투자회사와 사업회사를 분할한 후 투자회사를 롯데지주와 합병한다. 롯데아이티테크의 경우 작년 11월 1일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해 롯데정보통신을 설립했기 때문에 투자부문만 따로 구성되어 있어 별도의 분할 없이 롯데지주에 흡수합병된다.

합병비용 산정은 관련법상 정해진 방법에 따라 평가가 이뤄졌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투자사업부문의 합병가액은 본질가치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본질가치는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하도록 돼있다. 따라서 상장회사인 롯데지주는 기준주가를 기준으로, 롯데아이티테크 및 비상장

5개사 투자부문은 본질가치로 산정하였으며 이러한 전 과정은 외부평가기관이 주관했다.

◆경영투명성 제고...주주중심 경영 문화 강화

롯데는 2014년 6월까지 75만개에 달하던 순환출자로 인해 복잡하고 불투명한 지배구조를 지속적으로 지적 받아왔다. 이후 수 차례에 걸친 노력과 지주회사 출범, 이번 추가 흡수합병을 통해 롯데그룹의 순환출자고리는 완전히 해소된다.

순환출자 완전 해소를 지배구조가 단순화됨으로써 경영투명성과 경영효율성이 제고됨은 물론, 복잡한 순환출자로 인한 디스카운트가 완전히 해소되어 기업가치 및 주주 가치에도 시장의 긍정적인 재평가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롯데는 앞으로도 지주회사의 기업가치를 높이기 위한 추가적인 구조개편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박인용 기자 parkiu7854@

CJ CGV, 中진출 11년 만에 100호점 돌파

상하이 베이와이탄 개관
4DX 등 8개관 1330석 보유

CJ CGV가 중국 100호점 시대를 열었다.

CJ CGV는 지난해 12월 30일 중국 상하이 바이와이탄 광장에 중국 100호점 'CGV상하이 베이와이탄'을 개관했다고 2일 밝혔다. 상하이는 CJ CGV가 2006년 글로벌 1호점 CGV상하이 파닝을 연 곳이다. 중국 진출 11년만에 드디어 100개의

극장을 보유하며 또 한번 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다.

CGV상하이 베이와이탄은 CGV가 상하이에 여섯 번째로 오픈한 극장으로 4DX, IMAX, 골드클래스 포함 8개관 1330석을 보유하고 있다. 그동안 꾸준히 선보여왔던 '컬처플러스'를 콘셉트로 다양한 특별관과 고품격 서비스를 통해 프리미엄 극장 브랜드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상관적 우위를 확보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CGV상하이 베이

와이탄이 위치한 바이와이탄 광장은 상하이시 정부가 계획한 핵심상권 중 하나이며 향후 상하이의 랜드마크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크다. 국제 여객부두, 12호선 지하철역과 연결돼 접근성도 뛰어나다. 인근에는 5성급 W호텔이 있으며 고급 주택과 오피스 빌딩 등이 지속 개발될 예정이다. CGV가 지난 프리미엄 브랜드 이미지와 시너지를 낼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이다.

이번 극장 오픈으로 CJ CGV는 상하이, 베이징, 광저우, 선전 등 48



CJ CGV 중국법인장 장경순 상무가 중국 100호점 CGV상하이 베이와이탄 오픈식에서 축하 인사말을 하고 있다. /CJ CGV

개 도시에 총 100개 극장, 793개 스크린을 갖추게 됐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청춘이니까 아픈 취준생들에 듣는다

“눈 낮춰 중소기업 가라고?... 처우부터 대기업 맞춰라”

취준생들의 이모저모

연구원 월급 70만원으로 생활 대학2년중퇴 '학력차별 벽' 느껴

취업준비생들의 전쟁은 해가 바뀌어도 현재진행형이다.

아니 오히려 더욱 치열해지지만 한다. 친구들이 하나 둘씩 바늘구멍을 뚫고 취업에 성공할 때마다 마음은 더욱 조급해진다. 순간 벌리게 되는 부모님께도 죄송할 따름이다.

그렇다고 포기할 수 없다. 지금까지 해 온 것이 아까워서라도 분명 '성공'해야 한다. 성공은 곧 '취업'이다. 아프니까 청춘이라고 했다. 청춘이니까 아프다고 했다. 그래도 청춘이라 희망이 있다.

메트로신문 인턴기자들이 무술년 새해인 2일 '취업 성공'의 단꿈을 꾸고 있는 우리 주변의 청춘들을 만났다.

◆하루 하루가 취업 전쟁터, '청춘이니까 아프다'

서울 소재 4년제 대학에서 컴퓨터공학을 전공한 취준생 A씨(28). 2년간 대기업 문을 두드리던 A씨는 방향을 돌려 공무원 시험 준비를 했다. 또 다시 시간이 1년 반 가량 지났다. 지난해엔 공무원 시험에서 고배를 마셨다. 3년 반 동안 A씨는 부모님으로부터 매달 50만원의 용돈을 받았다. 공무원 준비를 하고선 200만원짜리 코스 강의도 들었다. 6개월부터는 아르바이트도 시작했다.

"2년간 대기업만 60여 곳에 원서를 냈다. SSAT(삼성직무적성검사)도 붙였지만 면접을 넘지 못했다. 부모님께 죄송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월 30만~40만원 가량을 벌여 쓰고 있다." A씨의 말이다.

소위 'SKY' 대학 이공계를 졸업한 B씨(27)는 1년 4개월째 취준생 신분이다. 이름만 대면 알만한 국책연구소 등을 두루 지원했지만 때로는 서류에서, 때로는 최종면접에서 미끄러졌다.



지난달 20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2017 공공기관채용박람회'가 취업준비생으로 붐비고 있다.

/연합뉴스

B씨는 "석사 후 연구를 하고 있어 매달 70여 만원 받는 돈으로 교재 구입, 교통비, 밥값 등을 충당하고 있다. 오전엔 연구소 업무와 채용정보 탐색, 오후엔 지원서 작성이나 친구들을 만나 정보를 들으며 일과를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C씨(여·26)는 인턴이 취업에 도움이 될까 싶어 시작했지만 적지 않게 후회를 하고 있다.

"신입 같지 않은 신입을 원하는 회사가 많은 것 같아 경력을 한 줄 넣기 위해 인턴을 시작했다. 그런데 9시에 출근해 6시에 퇴근하다보니 인턴을 하면서 취업준비를 하는 것이 쉽지 않다. 체력적으로 힘들다."

같은 회사에 다니는 정직원들은 평일에 일하고 주말에 쉬지만, C는 평일에 일하고 주말엔 취업준비를 해야 하는 케이스다.

C씨의 꿈은 소박(?)하다. 어떤 직장을 원하느냐는 질문에 C씨는 "딱 정시에 퇴근 가능하고, 업무시간 외에 스트레스 없고 월급이 넉넉한 그런 직업을 갖고 싶다(웃음)"고 말했다.

대학교 2학년을 다니다 중퇴한 D씨(29)는 취업 현장에서 학력의 벽을 심각하게 체감하고 있다. 대학 공부가 자신의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 확신에

저임금 등 열악한 환경에 중소기업 취직 의지 꺾여

'생활고' 허덕이는 취준생들 정부가 비용문제 해결해야

서 중퇴했지만 오관이였다.

D씨는 "고졸 학력으로 한국사회에서 지내는 것은 버겁다"는 말로 무게감을 대신 전했다. 그러면서 "한 제조업 공장에서 2년 정도 일하고 나니 사장이 일방적으로 해고 통보를 하더라. 그 때 짚린 사람은 고졸들 뿐이었다. (고졸이란)차별은 눈에 잘 보이지 않았지만 보이지 않는 벽이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

◆눈 낮춰 중소기업에 가라고?

그렇다고 대기업에서 눈을 돌려 중소기업에 취업하기엔 마음이 썩 내키질 않는다.

A씨는 "중소기업은 가고 싶지 않다"며 잘라 말했다. 그는 "중소기업에 다니는 친구를 보니 법정 근로시간도 제대로 지키지 않고, 그렇다고 추가 수당을 받는 것도 아니었다"며 "중소기업은 연봉도 낮고 복지도 좋지 않고, 처우도 열악해 가고 싶지 않다. 나는 제대로 된 대우를 받고 싶다"고 덧붙였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2015년 기준으로 근로자 월평균 임금은 대기업이 485만원인 반면, 중소기업은 이보다 39.4%나 낮은 월 294만원에 그쳤다. 대·중소기업 간 임금격차가 큰 상황에서 A씨와 같은 생각을 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B씨도 "어른들은 눈을 낮추라고 하지만 아무데서나 시작하고 싶지 않은 게 우리 심정이다. 일단 회사에 들어간 후 이직 하라고도 말하지만 실제로 들어가면 적응하느라 정신없어 이직이 쉽지 않다고 들었다"고 토로했다.

은행권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E씨(25)는 "우리는 초등학교부터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경쟁하며 살아왔다. 무조건 남들보다 더 높이 가려고만 한다. 그런데 좋은 일자리 얻기는 '바늘구멍'이다. 중소기업이 많지만 (취준생들이) 눈을 낮추긴 어려운 현실이다. 중소기업에 들어가게 장려하지 않은 환경을 만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취준생들의 가장 큰 걱정은 '돈'이다. 취업 기간이 길어질 수록 부모님에게 기대는 일도 더 많아지기 때문이다.

영업직에서 일하고 싶다는 F씨는 "부모님께 경제적으로 부담드리는 게 가장 죄송하다. 4학년 2학기부터는 취업 준비 때문에 '알바'도 그만둔 상태여서 빨리

취업해서 부담을 덜어드리고 싶다"며 죄송한 마음을 전했다.

◆정부가 내놓는 수많은 대책은 '글썸'

청년 취업을 돕기 위해 쏟아내놓고 있는 정부 정책도 취준생들은 그리 달갑지 않다.

취재 중 만난 한 취준생은 "정부가 기업에 일자리를 늘리라고 강요하기보단 법적으로 40시간 이상 일을 못하게 하고 이를 철저히 단속하면 기업은 일손이 부족해 자연스럽게 사람을 뽑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 봤다"고 말했다.

스펙을 쌓기 위해 취준생 대부분이 치르는 토익이나 토익스피킹 시험 등의 비싼 응시료도 가격이나 '생활고'에 허덕이는 취준생들에게는 큰 부담이다. 정부가 차라리 이런 비용이라도 줄여주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것이다.

E씨는 "토익의 경우 900점은 넘었으니 됐다"고 생각했는데 요즘엔 또 950점이 기본이 된 것 같다. 3월에 토익점수가 만료되는데 벌써부터 걱정"이라며 "지난달에만 토익시험을 2번이나 봤다. 응시료가 또 오를까 겁난다"고 토로했다.

청년일자리노동조합인 청년유니온의 김영민 정책팀장은 "정부의 청년 취업 대책엔 당사자인 '청년'이 빠져있다"면서 "취업성공패키지와 내일채움공제가 대표적인 것인데, 취업성공패키지는 상담 서비스의 질이 떨어진다. 또 직업 훈련 후 막상 취업하면 저임금 직장인 경우도 많다. 내일채움공제는 기업 중심적이다. 목돈을 모은다는 이유로 연봉이 삭감되기도 하며 2년이 '기본'이라 이직을 막는 제도로도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팀장은 또 "정부 정책이 청년을 위한 것이라면 청년 개개인에 맞게 바뀌어야 한다"면서 "정책 목표는 수치가 아니라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다. 수치만 보면 정책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승호 기자 구서윤·김현정·나유라·임한재·정연우 인턴기자 bada@metroseoul.co.kr

인터뷰 '취업 전문가' 나영규 한국외대 진로센터 과장

“4차 혁명에 일자리 사라질 위기... 학생들이 중소기업에 관심 갖도록 유도해야”



▲현장에서 본 청년 취업의 가장 큰 문제점은.

-우선 일자리가 부족하다. 질 좋은 일자리도 많지 않다. 4차 산업혁명의 바람이 불면서 기존 일자리도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계약직 비율이 높은 것도 문제다. 정규직과 계약직간 전환방식도 모호하고 정책 일관성 역시 부족하다.

▲대·중소기업간 일자리 mismatch가 심각하다. 학생들의 눈높이가 너무 높은 것인가.

-눈이 높은 것도 사실이다. 실제로 중소·중견기업 관련 취업박람회를 열면 학생들의 관심이 매우 낮은게 현실이다. 대학평가에서 대기업 취업률을 많이 반영하기 때문에 학교 운영진이나 교수들도 대기업 취업에 더욱 신경을 쓰고 있다. 이런 분위기가 결국 일자리 mismatch를 만든다.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을 유도해야 할 필요가 있다. 대·중소기업간 임금격차나 복지격차를 줄여야 하지만 쉽진 않아 보인다. 그래도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의 장점도 분명히 있다. 연봉이 아니라 취준생들이 중소·중견기업을 선택할 수 있는 분명한 포인트를 제시해주고, 새로운 시각을 갖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블라인드 채용이 대세가 되고 있다. 현장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블라인드 채용을 많이 한다고 하지만 취업하고자 하는 업종이 원하는 스펙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일례로, 해외무역파트를 지원하면서 무역에

“ 블라인드 채용-정량 평가에 융통성 발휘를 취업성공패키지 등 정책, 일관성 가져야 일자리 차선택인 '공무원 증원'에는 동의 ”

대한 인턴경력, 자격증, 외국어 구사력, 무역법에 대한 상식을 갖고 있는 게 중요하다.

기업들이 블라인드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 여학생적, 학점, 자격증, 대학은 지원자의 히스토리다. 극심한 블라인드 채용은 오히려 그동안 열심히 노력한 취업준비생들을 존중하지 않는 부정적 측면도 있다. 잠깐 빛을 발하는 사람과 꾸준히 노력해 온 사람을 블라인드 방식으로 판단하기엔 한계가 있다. 일부 공기업처럼 채용비리 등을 막기위해선 블라인드 채용도 필요하겠지만 이와 함께 정량 평가 등을 융통성있게 조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취업성공패키지, 내일배움채움공제, 청년취업아카데미 등의 정책은 도움이 되나.

-일정부분 도움이 된다. 그러나 유용한 프로그램도 있지만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일관성 없는 취업 지원정책이 시행돼 현장에서 혼란스러운 경우도 많다. 정책의 일관성이 중요한데 이런 점이 다소 아쉽다. 내일배움채움공제는 대기업 취업에 쏠린

학생들의 시선을 분산시킬 수 있고, 청년취업아카데미는 진로를 정하지 않은 학생들에게 기회비용을 줄여주는 좋은 정책이다. 그러나 이런 정책들도 '정책의 수'를 늘리기보단 기존 정책내에서 실효성이 높고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고민해야 한다.

▲올해부터 공무원 채용을 늘리기로 했다. 청년취업난 해결에 도움이 될까.

-안정적 일자리가 많지 않아 차선택으로 공무원을 늘리는 것에는 동의한다. 특히 소방공무원, 경찰공무원, 사회복지공무원은 국민 실생활과 직결되는 만큼 늘려야 한다. 다만 공무원 숫자 증원으로 취준생들의 꿈이 획일화되고, 사회의 다양한 직종을 형성하기 위해 이를 개발하려는 정책적 노력이 줄어들까봐 걱정도 된다.

그렇더라도 지금 시점에선 성장만큼 분배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 공무원 증원 기회를 많은 구직자들이 활용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란다.

▲주전공 외에 부전공 심화나 이중전공 이수 등이 취업에 도움이 되나.

-기업들은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다양한 역량을 가진 지원자를 선호한다. 주전공 하나만 취업하기 쉽지 않다. 기업은 '저투자·고효율'을 경영의 제1원칙으로 한다. 그래서 이중전공, 복수전공 등이 중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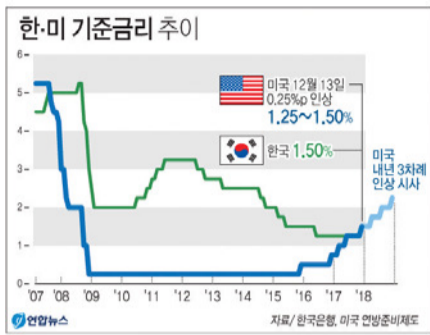
/김승호 기자·유재희 인턴기자

환율·금리·법인세 리스크 첩첩산중... 주름 늘어나는 기업들

1원 움직일 때마다 수익원 넘나들어 금리 1%p만 올라도 기업부담 두배 법인세율 오르면 연 GDP 29조 감소

서울 구로 디지털단지엔 있는 정보기술(IT) 부품업체 A사는 최근 3개월 사이에 2018년 경영에 반영할 환율 전망치를 두번이나 바꿨다. 지난해 9월까지만 해도 달러당 1120원대로 잡았다가 미국의 추가 금리 인상 우려와 북핵 리스크로 환율이 다시 하락 기조(원화까지 상승)로 돌아서면서 재차 수정작업에 들어간 것이다. 이 업체의 재무담당자 김모 이사는 "1원 움직일 때마다 손익이 적게는 수 억원에서 많게는 두 자릿수까지 왔다 갔다 한다. 기껏 번 돈을 앉아서 까먹고 있어 큰일이다"며 걱정했다.

철강 제조업체인 B사. 이 기업에 걱정거리가 하나 더 늘었다. 지난해 11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1.50%로 0.25%포인트 올리면서 저금리 시대가 사실상 막을 내렸기 때문이다. 운영자금으로 빌린 이자 부담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 지 고민이다.



인상되면 투자는 연평균 4.9%씩 줄고 일자리는 연간 10만5000개씩 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원화 가치가 오르면서 환율 민감업종을 중심으로 기업들의 한숨이 커지고 있다.

◆금리인상, 실적·투자 발목
치솟는 금리는 기업을 '재무리스크'의 트랩(함정)에 빠뜨린다.

전문가들은 '금융권 상황 압박과 신용등급 하락→자금 조달 위축→투자 축소→실적 악화'라는 악순환 고리가 경제성장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고 지적한다.

그동안 시장에서는 기업들의 레버리지(차입투자)를 경계하는 목소리가 적잖았다.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이 직면한 도전-일본의 경험으로부터 교훈'이라는 조사보고서에서 한국과 일본은 모두 기업부채 문제에 직면해 있지만 양국이 직면한 문제의 양상은 상당히 다르다고

지적했다. 실제 금리가 1%포인트만 올라도 기업 부담(조달 프리미엄)은 두배가 된다는 분석이 있다.

금융연구원은 '통화정책의 신용분배 효과와 우리나라 기업의 부채구조' 보고서에서 한은이 기준금리를 100bp(1bp=0.01%포인트) 인상하면 우리나라 기업의 외부자금조달 프리미엄은 전 분기보다 2배 정도 증가한다고 분석했다. 기준금리가 올라 외부자금조달 프리미엄이 증가하면 기업이 회사채 발행이나 은행 차입 등의 방식으로 외부자금을 조달할 때 지불하는 비용이 예전보다 늘어난다는 의미다. 이렇게 되면 기업의 자금수요 자체가 위축되면서 부채규모가 감소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그만큼 투자도 줄일 수 있다는 해석도 있다.

중소기업에는 더 큰 부담이다. 기준금리 인상 시 중소기업의 외부자금조달 프리미엄이 대기업보다 더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중소기업의 자금조달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의미다. 연구원은 또 자금조달 시 은행의 준도가 높은 중소기업이 은행 예대율 규제 때문에 차입금 감축 타격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원은 기준금리 인상이 부실기업 퇴출이라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만 금

전적 금리 인상은 정상적인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을 어렵게 해 금융안정을 오히려 훼손하는 결과를 불러올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법인세 인상면 상장사 이익 2.3% 감소
법인세 인상의 충격도 걱정이다.

한국의 법인세율이 미국보다 높아지면 연평균 29조4000억 원의 국내총생산(GDP)이 감소할 것이라는 분석이 있다. 일자리도 매년 10만5000명씩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 고용시장에 환파가 몰아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는 가계소득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 현 정부의 '소득주도 경제성장' 정책이 타격이 예상된다.

미국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35%에서 21%로 낮추고 한국은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올릴 계획이다.

법인세가 오르면 유가증권 상장기업의 이익이 2.3% 감소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KB증권에 따르면 한국기업의 2018년도 이익전망은 코스피와 코스닥 통틀어 영업이익 238조원, 세전이익 242조원, 순이익 183조원(지배주주기준 173조원)이다.

KB증권이 법인세법 개정의 영향을 추정하기 위해 2017년 1분기~3분기 누적 법인세비용을 바탕으로 과세표준을 역산한 결과, 코스피 이익은 2.3% 줄었다. 업

종별로는 운송, 반도체, 은행, 상사·자본재 등에 미치는 영향이 컸다.

◆3% 성장에 빨간불 켜지나
원화값도 걱정이다. 세자릿수(900원대) 환율을 걱정해야 할 처지다

기업 입장에서 환율이 내려가면 수출 물품의 가격 경쟁력이 하락하고 원화 채산성(수익률)도 떨어진다. 게다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수출이 경기를 이끄는 상황에서 환율 하락은 국가 경제에도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A사 관계자는 "결제 통화를 다변화하는 노력을 하고 있지만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같은 수출 품목은 원화 강세가 부담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에 따르면 원·달러 환율이 10% 하락하면 운송장비업의 영업이익률은 4%포인트, 전기전자산업은 3%포인트, 기계장비는 2.8%포인트 감소한다. 주력 수출품인 반도체, 자동차, 선박, 디스플레이, 스마트폰 등이 대부분 타격을 입는다는 의미다.

수출기업의 가장 큰 걱정도 환율이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이 연간 수출실적 50만달러 이상 기업 514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내년 수출기업의 경영환경에 가장 큰 영향을 줄 이슈로 '환율 변동 심화(48.4%)'를 꼽았다.

/김문호 기자 kmh@metroseoul.co.kr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중앙당 시무식에서 건배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당-바른정당, 통합 속도 박차

내달 통합 완료 목표로 협의체 출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본격적인 통합 절차에 들어가는 모습이 관측되고 있다. 2월 중 통합 완료로 목표로 하고 있는 두 정당은 통합추진협의체 출범 등 통합을 위한 세부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양당은 비공식 대화채널인 '2+2 교섭창구'를 통합추진협의체로 공식 전환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며, 국민의당은 이 안을 3일 예정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통합추진협의체가 출범하게 될 경우 대략적인 로드맵도 제시될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양당의 통합에 속도가 붙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당 내 통합 반대파들은 전당대회를 대비한 세 걸침에 나서는 모습을 보이는 등 여전히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통합 반대파 모임인 '국민의당 지키기 운동본부'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운영위원회회의를 열고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 특히 반대파인 박지원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모든 대북 정책에서 대화와 타협이 아닌 강경 반대만 하는 보수 세력과 우리당의 정체성은 이렇게 다르다"며 "(보수통합을) 그렇게 하고 싶다면 (당을) 나가서 하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정체성과 가치관이 다른 정당과의 통합은 경우가 다르다"면서 "국민

의당을 지키면서 남북관계를 개선, 북핵을 폐기하고 20대 국회 개원, 추경안 통과, 예산안 통과, 작년말 임시국회에서 보여준 것처럼 선도정당의 길을 가면 성공하고 보수대야합의 길은 실패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반대파의 움직임에 안철수 대표는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을 보였다.

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직자 시무식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번 전(全)당원투표 참여율이 24%라고 낮다며 사실상 반대가 더 많았다고 주장하는데, 논리적으로 옳지 않은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반대파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바른정당과의 통합 후 자유한국당과의 연대 가능성에 대해서도 그는 "적폐연대, 2단계 통합과 관련해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분명히 얘기했다"고 일축하면서, "국민의당이 바른정당보다 4배가 큰 당이다. 우리가 중심을 잡고 가면 되는데 뭐가 두렵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합리적인 개혁세력의 힘을 모아 지방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바른정당과의) 통합절차가 순조롭게 마무리돼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한편, 바른정당 11명 소속 의원·전국원의원위원장 등은 내부 결속과 단합 의지를 다지는 분위기이며, 별도의 투표도 진행하지 않고 국민의당 전당대회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창원 기자

여야, 정초에도 변함없는 '대립각'

지방선거 앞두고 공세 수위 높아져
여당, 개혁 과제 이행 중요성 강조
야당, 개헌 시점 반발 등 강공 펼쳐

여야가 새해에도 여전히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특히 올해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여야는 정국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서로를 향한 공세의 수위를 높이는 모습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개헌안 마련과 함께 집권 2년차에 들어선 문재인 정부의 개혁 과제 이행을 위한 법률적 뒷받침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야당을 압박하고 있는 반면, 야당은 개헌 시점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동시에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의 UAE(아랍에미리트) 방문 논란에 대해 강공을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은 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주도적인 국정운영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우선적으로 2월 중 개헌안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뜻을 밝혔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2018년도는 무엇보다도 '개헌의 시간'이라며 "지난 연말 합의한 대로 1월 중 서둘러 개헌 관련 합의 과제들에 대한 협상을 시작해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는 최선을 다해 개헌안을 만들고, 지방선거 동시 개헌이라는 국민과의 약속도 지켜야 할 것"이라고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가 2일 국회에서 열린 새해 첫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덧붙였다.

또한 그는 "지난해는 국민의 뜻을 받들어 정권교체를 이루고, 문재인 정부가 '사람중심' 국정철학을 바탕으로 국정운영의 기틀을 세운 첫 해"라고 평가하면서 "정부여당은 지난 해 미진했던 민생개혁과제들을 차근차근 잘 이행해서 우리 사회 곳곳의 불공정과 불평등을 바로잡고, 부정부패와 부조리, 갑질 등을 뿌리 뽑는 한 해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지방선거와 관련해서도 우 원내대표는 "집권 2년차를 맞은 문재인 정부가 단단한 국정동력을 갖고 흔들림 없이 달려 나가고, 본격적인 지방분권 시대를 열어 나가기 위해서 모두 한 마음으로 똘똘 뭉쳐 반드시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끌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임 실장의 UAE 방문 논란에 대해 재차 의혹을 제기하

며 공세를 이어갔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가의 신용과 이미지를 버리는 '망나니 같은 외교' 끝에 전 세계를 상대로 열심히 뛰고 있는 한국의 비즈니스가 큰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순조롭게 진행되던 원전 사업이 문재인 정부 들어 갑자기 문제가 생긴 이유가 뭘지 생각해 봐야 한다"며 "정치보복에만 혈안이 된 아파추어 정권이 국가의 연속성을 부정하고, UAE가 한국 정부와 맺은 국방·IT·의료·문화·환경 분야의 협력, 특히 군사협력 양해각서조차 적폐로 간주하고 불법성을 운운하다 돌이킬 수 없는 사안까지 초래한 것이 UAE 원전계약의 진실"이라고 말했다.

/이창원 기자 mediaeco@

전남지역 오리농가, 심상치 않은 AI 확산세

새해 벽두부터 전남지역 오리농가를 중심으로 고병원성 인플루엔자(AI) 확산세가 심상찮은 조짐을 보이고 있다.

2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6일부터 전남지역에서만 1주일 새 AI가 5건 발생하면서 살처분된 오리가 60만 마리를 넘어섰다.

지난해 12월 10일 영암군 신북면 종오리 농장을 시작으로 같은 달 19일엔 영암군 시흥면 육용오리 농장에서 AI가 발생했다.

이어 같은 달 26일에는 영암군 덕진면 종오리 농장과 고흥군 동강면 육용오리 농장에서, 이를 뒤에는 나주시 공산면 종오리

농장과 영암군 육용오리 농장에서 AI가 발생하면서 방역당국을 긴장시키고 있다.

종오리와 육용오리 농장에서 3건씩, 다솔(2건)·성실(1건) 등 계열 농장과 개인 농장에서 3건씩 발생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새해 첫날에도 전남 고흥에 있는 8300마리 규모의 육용 오리 농장에서 나주 사조화인코리아 도축장으로 출하된 오리에 대한 검사 결과, H5형 AI 항원이 검출됐다. /세종=최신용 기자 grandtrust@

유통·식품 CEO

“글로벌 사업 가속화 브랜드·콘텐츠 강화”

유통업계가 2018년 무술년(戊戌年) 경영 키워드로 글로벌 사업 가속화 및 브랜드·콘텐츠 강화를 제시했다. 이는 중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과 경기침체로 등으로 어려움을 겪은 업계가 확실한 경영환경을 개선을 위한 움직임으로 보인다.

I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I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사진)은 2일 신년사를 통해 “고객의 삶에 가치를 더하고 함께 성장하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자”고 말했다. 그는 “사회 트렌드와 가치 변화에 관심을 기울여 고객이 원하는 가치를 창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워라밸(work-life balance)’, ‘올로(YOLO)’ 등을 언급하며 “변화의 흐름을 빠르게 읽어내고 예상을 뛰어넘는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기업만이 시장을 선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신 회장은 “디지털 전환을 통해 환경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하며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 나가자”며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가상현실 등 첨단 ICT 기술을 모든 사업 프로세스에 적용해 혁신을 이뤄야 한다”고 전했다.

I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 I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사진)은 임직원들에게 스토리가 있는 콘텐츠 개발을 당부했다. 정 부회장은 “기존과 같은 성장 방식은 앞으로 통하지 않는다”며 “세상에 없는 일류기업이 되어야 하고, ‘스토리가 있는 콘텐츠’로 그것이 가능하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스토리가 있는 콘텐츠야말로 경쟁사와 근본적으로 차별화하고 고객들과의 공감대를 통해 고객이 우리를 찾을 수 있게 만드는 강력한 무기”라며 “상품, 점포, 브랜드 등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콘텐츠를 다양한 스토리로 연결해 고객의 니즈에 맞춰 재편집해 낼 수 있는 역량을 새로운 핵심 경쟁력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I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 I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사진)은 “지속 성장을 위해서는 각자의 위치에서 변화를 실천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변화와 혁신을 실행하는 것은 사람이고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조직문화”라며 ‘사람과 조직문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정 회장은 ▲사업구조 개혁을 통한 경쟁력 강화 ▲책임경영체계 구축 ▲조직문화 개선 등의 3대 경영 방침도 제시했다. 정 회장은 “기존의 불필요한 룰(rule)과 관행을 없애고 의지만 앞세우는 형식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사업구조를 개혁해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며 “이를 위해 제품과 서비스, 마케팅 등에서 차별적 가치를 창출하는데 역량과 자원이 집중될 수 있도록 기존 사업 프로세스를 혁신하고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I 손경식 CJ그룹 회장 I

손경식 CJ그룹 회장(사진)은 국내 사업에서의 압도적인 역량을 바탕으로 해외에서 공격적인 사업 확장을 통해 성장을 가속화하겠다고 밝혔다. 손 회장은 임직원들을 격려하고, 어려운 사업환경 속에서도 2020년 매출 100조원을 실현하는 ‘그레이트 CJ’ 완성의 기반이 되는 한 해가 되도록 노력해달라고 전했다.



손 회장은 “‘그레이트 CJ’는 ‘월드베스트 CJ’를 달성하기 위한 과정”이라며 최종 목표를 향해 함께 전진하자고 말했다. ‘월드베스트 CJ’는 2030년까지 세 개 이상의 사업에서 세계 1등이 되고, 모든 사업에서 세계 최고가 되겠다는 CJ그룹의 비전이다. 이를 위해 CJ그룹은 올해 ▲그룹 사업 전반의 획기적 성장 지속 ▲사업부문별 독보적 1등 지위 확보 ▲‘온리원(OnlyOne)’, ‘일류인재·일류문화’, ‘공유가치창출(CSV)’로 대표되는 ‘CJ경영철학’을 심화해나갈 예정이다.

I 서경배 아모레퍼시픽그룹 회장 I

서경배 아모레퍼시픽그룹 회장(사진)은 새해 경영방침을 ‘즉시 결행’으로 정했다. 서 회장은 “세계를 놀라게 할 혁신적인 상품을 개발하고 고객을 기쁘게 하는 고객경험을 선사하며 확고한 디지털 인프라와 역량으로 디지털 시대를 선도해 나가야 한다”며 “이를 위해 각자가 할 수 있는 일 중 작은 것이라도 하나씩 구체적으로 즉시 결행하자”고 강조했다.



올해 아모레퍼시픽그룹은 ▲혁신상품 개발 ▲고객경험 강화 ▲디지털 혁신 ▲글로벌 확산 ▲미래경영 준비, ▲지속가능경영 및 인재육성 등 6개 중점 추진 전략을 중심으로 경영 목표와 비전 달성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I 차석용 LG생활건강 부회장 I

차석용 LG생활건강 부회장(사진)은 “2018년은 중국경제 성장 둔화, 국내경기 불확실성, 보호무역주의 등 산재한 변수들로 힘든 한 해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아시아 대표기업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지금까지 이룬 것에 자만하지 않는 반구십리(半九十里)의 자세로 힘찬 여정을 함께 시작하자”고 말했다. LG생활건강은 올해 ▲국내를 뛰어넘는 아시아 대표기업으로 발돋움 ▲사업리스크 선제적 대응 ▲제조 및 R&D 역량 혁신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인용 기자 parki7854@

재계 무술년 화두 ‘혁신과 혁파’

2018년 무술년(戊戌年)을 맞아 주요 재계 총수들과 최고경영자(CEO)들이 내세운 올해 경영 키워드는 단연 ‘혁신과 혁파’다.

글로벌 무역환경은 보호무역주의의 확산으로 악화되고 있고, 미래 먹거리는 4차 산업혁명으로 기술 융복합이 빠르게 진행되며 불확실성이 매우 커진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기업이 생존하기 위해선 ‘변화해야 한다’는 위기감이 투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2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 SK, LG, 한화 등 주요 기업들은 이날 시무식을 갖고, 임직원들에게 대내외적인 위기요인들을 환기하고, 위기 속 도약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다.



◆ 초심으로 돌아가 새롭게 도전

총수 부재 상태로 새해를 맞이한 삼성전자는 이날 CEO 중 가장 연장자인 김기남 DS(디바이스솔루션) 부문장 사장(사진)이 신년사를 통해 “초심으로 돌아가 새롭게 변화하고 도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사장은 “올해 세계 경제는 자국 우선주의, 보호무역주의 확산, 지정학적 리스크 등 불확실성 커지는 상황”이라며 ▲미래를 창조하는 초일류 기술 회사 ▲지속 성장 가능한 조직문화 창출 ▲고객과 사회로부터 사랑받는 회사 등 3가지 목표를 제시했다.

올해 목표를 이뤄내기 위해 김 사장은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기술 개발 문화의 정착과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할 기술력 확보, 유연하고 벽이 없는 조직문화

구축, 출신수범과 배려로 초일류회사에 맞는 매너 함양, 국내외 산업 생태계와 상생을 통한 공동체 기여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안주하지 말고 新비즈니스모델을

최태원 SK 회장(사진)은 지난 20년간 그룹 이익이 200배 성장하는 성과를 올렸지만 ‘올드비즈니스’를 운영하거나 개선하는 수준에 안주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SK는 미래 생존을 위해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경제적·사회적 가치가 함께 창출되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최 회장은 이를 위한 실천 방안으로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함께 추구하는 ‘더블 바텀 라인(Double Bottom Line)’, 자산을 공유하거나 변화를 주는 ‘공유인프라’, 해외라는 기존과 다른 시장을 공략하는 ‘글로벌 경영’ 등 구체적인 방법론을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고정관념 버리고 과감한 혁신

구본준 LG 부회장(사진)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변화를 기회를 만들기 위한 과감한 혁신을 주문했다. 구 부회장은 “기회를 우리 것으로 만들려면 변화의 흐름을 통찰하고 주도면밀하게 준비해야 한다”며 “익숙했던 기존 고정 관념을 과감히 버려 사업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철저하게 우리의 사업 구조를 고도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일류한화 위한 체질개선 나서야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은(사진) “전사적인 혁신으로 ‘일류한화의 미래경쟁력을 극대화하는 체질개선’에 나서야 한다”며 “단순히 비용을 절감하고 투자를 축소하는 소극적인 내실화가 아니라 사업구조 선진화부터 제품과 기술개발, 일하는 방식에 이르기까지 구체적 변화와 성과를 도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신성장동력 사업 시장 선점해야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사진)은 “일하는 방식에서부터 새로운 사업기회를 찾는 일까지 디지털 전환을 통한 혁신적 시도가 있어야 한다”면서 “기존 사업에서는 경쟁사에 앞서 새로운 시장과 고객을 개척하고, 신성장동력 사업들은 사업화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고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정은미 기자 21cindiun@metroseoul.co.kr

이통사, 5G 상용화·조직문화 혁신 강조

“5G(5세대 이동통신)를 선점하라.”

이동통신사 최고경영자(CEO)들이 5G 상용화를 앞두고 올해 조직문화 혁신 등의 변화를 키워드로 제시했다.

지난해 2월 미디어, 스마트에너지, 금융거래, 기업·공공가치 향상, 재난·안전·보안 5대 플랫폼을 육성하겠다고 나선 황창규 KT 회장은 2일 신년사를 통해 5G 상용화를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이동통신 사업을 기반으로 5G, 사물인터넷(IoT) 등을 고도화해 ‘글로벌 플랫폼 선두기업’으로 탈바꿈해 제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겠다는 선언이다.

황창규 회장은 2018년 신년사를 통해 임직원들에게 올해 2월 평창에서 세계 최초 5G 시범서비스 성공을 발판으로 5G 상용화를 본격 추진해줄 것을 요청했다. 황 회장은 “그룹사마다 본격적인 성장이 예상되는 2018년은 ‘결정적 순간’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평창동계올림픽에서 세계 최초 5G 시범서비스 성공을 발판으로 5G 상용화를 본격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는 “2018년 평창 5G 성공을 바탕으로 5G 상용화의 주도권을 확실히 하고 4차 산업혁명의 기반 기술인 AI, 블록체인 등에서 구체적인 성과를 만드는 해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2018년 KT그룹이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하는 시각도 있지만 수많은 한계를 돌파한 6만여



황창규 KT 회장 권영수 LG유플러스 부회장

구성원들과 더불어 성공하고 성장하는 한 해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황 회장은 1964년 도쿄올림픽에서 세계 최초 컬러TV 위성중계 후 일본이 전자산업 강국으로 자리매김했던 것을 예로 들며 “KT가 평창에서 ICT 역량과 5G 리더십을 보여준다면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글로벌 플랫폼 선두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경쟁사의 도전이 거센 미디어 플랫폼에서는 확실한 혁신이 필요하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금융거래 플랫폼에서는 차별화된 성과를 만들어야 한다”고도 주문했다.

이와 함께 ‘국민기업’ KT의 역할도 강조했다. 황창규 회장은 “국민이 편안한 삶을 누리도록 환경, 안전, 건강 등에서 당면과제 해결에 앞장서겠다”며 “우수한 중소기업을 발굴해 함께 해외시장에 진출하는 한편 협력기업의 성장에 더욱 관



심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권영수 LG유플러스 부회장은 이날 조직문화 혁신을 통해 일등 기업문화를 구축하겠다고 역설했다.

권 부회장은 시무식에서 “LG유플러스 조직문화 혁신의 지향점은 핵심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효율적 근무환경 마련과 일·가정의 양립 그리고 회사 안팎으로 긍정·감동이 넘치는 분위기 조성에 있다”며 “조직문화 5대 과제를 적극 실천해 일등 기업문화를 구축하고 이를 토대로 비전을 반드시 달성하자”고 조직문화 혁신 5개안을 제시했다. 수평적인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보고서 양식 등을 최소화한다. 회식자리도 없앤다.

권 부회장이 제시한 혁신문화 5개안은 ▲수평적 호칭체계로 상호소통 증진 ▲형식보다 핵심에 집중하는 보고문화 ▲매일 감사가 넘치는 긍정문화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는 나눔문화 ▲일과 가정의 균형 발전을 적극 지원하기 위한 회식문화 개선 활동 등이다. /김나연 기자 silkni@

금리인상·대출규제 ‘허들’, 디지털·글로벌로 뛰어넘는다

금융 예측 2018 ① 시중은행

신한·우리·KB국민·KEB하나 등 경영전략 ‘디지털·글로벌’ 꼽아 빅데이터 마케팅·슈퍼앱 등 활용

무술년(戊戌年)에도 금융환경의 격변이 예상된다. 시중은행은 금리 인상과 가계부채 대책 등으로 ‘실적 잔치’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은 최고금리 인하, 총량 규제 등에 따라 시장 재편이 예상된다. 업력이 얼마 되지 않은 P2P(개인 간) 금융과 가상화폐거래소 등은 각종 규제에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이에 금융사들은 각각 수익 방어를 위한 활로를 찾아 나섰다. 메트로신문이 업권별 2018년 이슈를 예측해 본다. (편집자주)

올해 시중은행의 영업 환경이 밝지만은 않다. 대출을 규제하는 가계부채 대책이 수익성장의 ‘허들’로 작용할 전망이다. 일회성 요인도 사라져 지난해 만큼 실적을 올리기 힘든 상황이기에 때문이다. 시중은행 수장들은 각종 허들을 넘기 위한 2018년 경영 전략으로 ‘디지털·글로벌’을 꼽았다. 이미 영업의 방침이 비대면으로 이동한 만큼 디지털금융을 강화해 시장의 선두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새로



한영주 KEB하나은행장

위성호 신한은행장

손태승 우리은행장

허인 KB국민은행장 /기사

운 수익원 확보를 위해 글로벌 네트워크도 확장할 계획이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시중은행 CEO(최고경영자)들은 신년사를 통해 올해 경영 전략으로 ‘디지털·글로벌금융 강화’를 강조했다.

위성호 신한은행장은 2018년을 ‘디지털 영업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이를 위해 빅데이터 기반 마케팅과 슈퍼앱을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위 행장은 지난 3월 취임 직후 디지털 전략본부를 신설해 모바일 플랫폼 개편 작업에 나섰다. 오는 2월 중 통합 모바일 앱 ‘슈퍼앱(가칭)’을 출시할 예정이다.

슈퍼앱은 ‘신한S뱅크’, ‘씨니뱅크’ 등 기능별로 흩어져 있던 앱 6개를 하나로 통합한 것으로, 앱 하나로 부동산, 쇼핑, 교통, 간편결제 등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슈퍼앱에는 증강현실(AR)을 통한 금융상품 소개 등의 다양한 기능이 포함될 예정이다.

손태승 우리은행장은 올해 5대 경영 전략 중 하나로 ‘차별화된 금융플랫폼 구축’을 통한 디지털 시대 선도’를 제시했다.

우리은행은 지난해 ‘위비뱅크’, ‘위비톡’ 등 ‘위비플랫폼’을 완성한 데 이어 오는 2월 유니스 서버 기반 플랫폼으로 구축한 차세대 전산 시스템 ‘위니(WINI)’를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위니는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을 구현할 것으로 알려졌다.

허인 KB국민은행장은 신년사를 통해 “디지털 신기술을 내재화하고 우수인력을 확보해 비대면 경쟁력 확보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민은행은 개인과 기업 고객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금융 플랫폼 생태계의 강자로 자리매김하고, 스마트

고객본부가 비대면 마케팅과 고객관리의 전진기지로 탈바꿈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은 ‘사람 중심의 디지털 비즈니스’를 통해 4차 산업 혁명을 이끌어가겠다는 계획이다. 앞서 하나금융지주는 디지털 사업 강화를 위해 ‘DT랩’을 신설하고 삼성전자 출신의 소프트웨어 전문가를 고위직으로 영입했다.

새로운 수익원 확보를 위한 글로벌 네트워크 확장 등 ‘글로벌 금융’도 강조했다. 신한은행은 현지화 영업을 확산해 ‘진정한 글로벌뱅크’로 도약하기 위해 핵심시장에선 압도적 시장 지위를 확보하고 유망시장엔 과감히 투자하겠다는 계획이다.

우리은행은 현지 기반 맞춤형 영업으로 글로벌 비즈니스 역량을 강화, 글로벌 네트워크를 2017년 말 301개에서 올해 말

500개 이상으로 늘릴 계획이다.

KB금융은 아시아시장을 중심 축으로 글로벌 진출 기반을 다져 동남아시아 현지에 특화된 금융모델을 통해 시장지위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하나금융도 지난해 11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글로벌 통합 디지털 자산 플랫폼인 GNL 컨소시엄을 이용해 20개국 이상의 글로벌 시장에서 가치를 발휘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처럼 금융사들이 디지털·글로벌 금융 강화에 발 벗고 나선 이유는 새로운 수익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대신증권 최정욱 연구원은 2016~2017년과 달리 2018년엔 은행 성장률과 NIM(순이자마진) 개선 폭이 크지 않고 이익 모델도 둔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최 연구원은 ‘[2018 산업 전망] 은행/신용카드-Underperform 종목들에 초과상승 기회 있다’ 보고서를 통해 “시중은행들은 2017년에 일회성 수익 요인들이 상당했던 만큼 2018년엔 전년 대비 수익이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그는 “가계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규제와 더불어 그동안 은행들의 대출성장 동력으로 작용했던 소호(SOHO) 중 부동산산업대업종에 대한 여신 규제도 강화될 것으로 보여 대출 성장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대신증권은 KB·신한·우리·하나금융지주의 2017년 연간 실적은 10조1490억원으로 전망한 반면, 2018년 연간실적은 9464억원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재신화 기자 csh9101@metroseoul.co.kr



코스닥지수가 새해 첫 개장일인 2일 14.03포인트 오르며 812.45로 장을 마감했다. 10년 만에 최고치다.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을지로 KEB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에 한창이다. /연합뉴스

새해 첫 날 코스닥 800 돌파... 10년 만에 최고치

코스닥이 새해 첫날 증가 기준 800을 넘어서면서 순조로운 출발을 알렸다. 코스닥 시장이 1월 효과와 더불어 정부의 코스닥 활성화 정책에 힘입어 당분간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새해 첫 거래일인 2일 코스닥은 장중 한때 813.4까지 넘어서며 강세장을 연출했다. 이날 장은 전 거래일 대비 14.03포인트(1.76%) 오른 812.45에 마감했다. 증가 기준으로 코스닥이 800을 넘어서는 것은 지난 2007년 10월 이후 10년 3개월여 만에 처음이다.

이날 외국인 매수 상위 10개 종목 중 8개 종목이 신라전, 셀트리온헬스케어, 셀트리온 등 바이오 업종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코스닥이 당분간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한다. 1월효과와 더불어 정부 정책 이슈도 증시에 긍정적이어서다.

1월 효과는 증시 전문가들이 긍정적인 전망을 쏟아내면서 주가가 상승하는 효과다. 또 중소형주가 강세를 보이는 시기를 뜻하기도 한다. 실제 2013년 이후 지난해를 제외하곤 1월 코스닥 상승률이 코스피를 웃돌았다는 분석도 나온다.

/손영지 기자 sonumji301@

정부가 코스닥시장 활성화 의지를 재차 피력하면서 투자심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정지원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증권 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서 올해 최대 과제로 코스닥시장 활성화를 꼽았다. 이날 참석한 최중구 금융위원장 역시 “코스닥시장에 참여하는 기업과 투자자에 대한 세제 및 금융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며 “이달 중 코스닥시장 활성화를 골자로 한 자본시장 혁신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재만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일반적으로) 상반기 중에는 코스닥시장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기록해왔다”면서 “정부의 코스닥 시장 활성화 정책까지 이어질 경우 긍정적인 효과가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실적 개선 모델도 또한 긍정적이다. 금융정보업체 와이즈에프엔에 따르면 올해 코스닥 영업이익은 10조7000억원으로 전망한다. 전년 대비 42.5% 증가세다. 순이익은 8조2000억원으로 전년 비 36.3%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확박해진 살림살이... 3040, ‘보험’부터 깬다

30·40대 빈곤율 최근 동반 상승
지난해 생명보험 해지 660만 건

전 연령대에서 경제활동이 가장 활발해 ‘한국경제의 기둥’으로 꼽히는 30대와 40대의 빈곤율이 최근 들어 동반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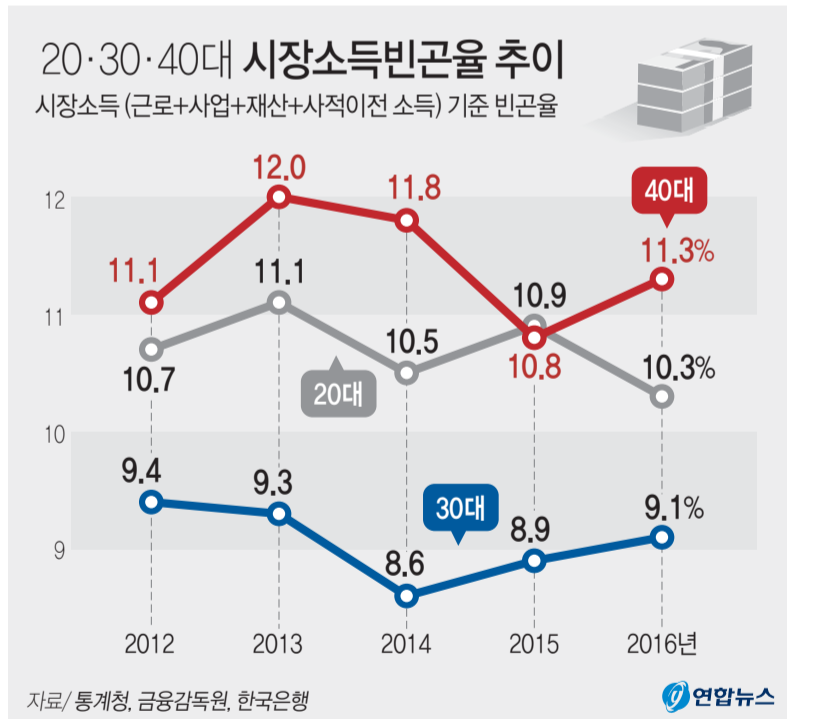
매달 들어가는 생활비와 자녀 사교육비에 더해 근래 대출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 부담으로 살림살이가 팍팍해진 탓으로 분석된다.

문제는 이 같이 어려운 살림살이를 견디지 못한 30·40대가 가계경제의 ‘최후의 보루’로 불리는 보험을 해지하는 등 불가피한 선택을 이어간다는 점이다. 특히 올해 한국은행이 한 차례 이상 금리 인상을 시사하고 있어 앞으로 이 같은 보험해지 추세는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2일 통계청·금융감독원·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 30대의 시장소득 기준 빈곤율은 지난 2015년 8.9%에서 2016년 9.1%로 상승했다. 40대 역시 같은 기간 빈곤율이 10.8%에서 11.3%로 올랐다. 특히 40대의 경우 전체 연령대에서 60세 이상(1.1%포인트)에 이어 빈곤율 증가 폭이 0.5%포인트로 가장 컸다.

빈곤율은 중위소득 50% 이하에 속한 인구를 전체 인구 수로 나눈 비율을 일컫는다. 빈곤율이 높을수록 중위소득의 절반도 안 되는 수입에 의존해 살아가는 이들이 많다는 의미다.

실제 지난해 1분기 말 기준 가구당 평균 부채는 7022만원으로 1년 전보다 4.5% 늘었다. 연령별로 살펴볼 때 40대의 평균 부채는 8533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30대는 50대(8524만원)에 이어 6872만원을 기록했다. 다만 지난해 대비 평균 부채



증가율은 30대가 16.1%로 전 연령대에서 가장 높았다.

급증한 가계부채에 원리금 부담이 상당한 상황에서 최근 대출금리가 오름세를 보이자 서민들은 ‘최후의 보루’인 보험마저 해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생명보험 계약해지 건수는 660만 건에 육박하는 등 최근 5년간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경기 침체 속 소득이 제자리걸음을 하면서 결국 보험에까지 손을 대 생활비를 마련하는 것으로 보인다.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생명보험 계약 해지 건수는 모두 659만3148건으로 지난 2011년(427만7775건) 대비 무려 54.1%나 증가했다. 이 중 자발적 해지는 438만9812건으로 보험료 미납 등으로 인한 효력 상실(220만3336건) 대비 배가량 컸다.

생보협회 관계자는 “최근 경기침체와 가계경제 악화 등의 이유로 생명보험 계약을 해지하는 건수가 지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최근 금리 상승 국면에 접어들어 따라 보험 해지 건수는 앞으로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보험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시중금리가 상승하면 생명보험 계약 해지 건수는 함께 증가한다. 금리 상승이 가계의 대출이자 부담을 늘려 결국 보험계약 해지로 이어진다는 설명이다.

협회 관계자는 “생명보험은 중도에 해지하면 환급금이 없거나 그동안 냈던 보험료보다 적을 수 있다”며 “보험 가입을 신중하게 결정하되 한 번 가입한 보험은 끝까지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봉준 기자 bj35sea@

2018 한양 CYBER 미래경영 아카데미 1기 모집

미래경영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중소기업 CEO 교육

교육기간

2018. 3. 14 ~ 2018. 6. 27
(매주 수 2강좌, 18:00~21:30)

교육장소

전반기 : 리베라 호텔
후반기 : 한양대학교 HIT

접수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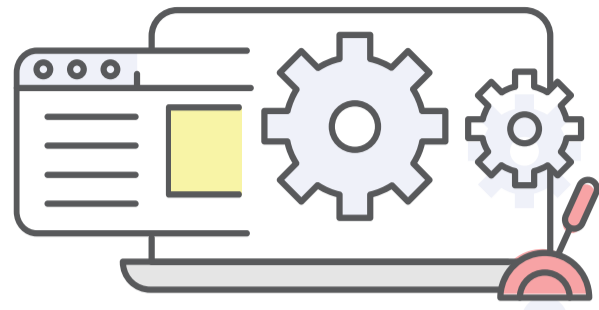
2017. 12. 13 ~ 마감 전까지

접수문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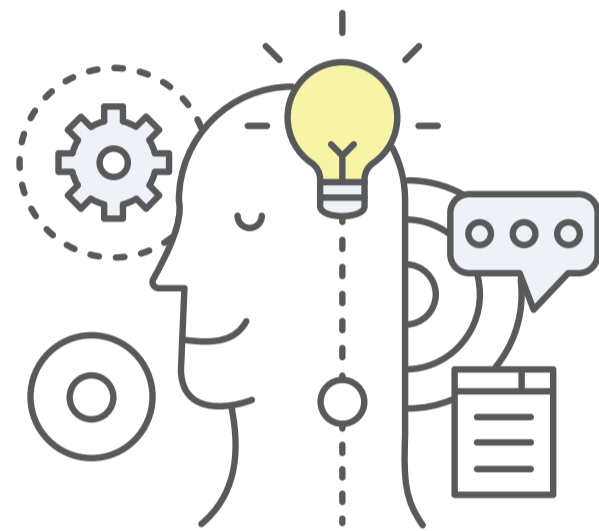
중소기업미래경영원 사무처
Tel: 02-6204-7600
E-mail: fmis@fmis.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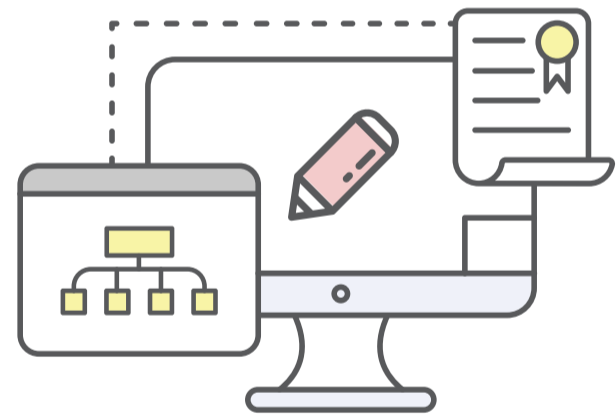
CURRICULUM



- 미래경영**
- 경영환경 변화 속의 적합한 기업경영
 - 미래를 바라보는 안목 함양
 - 미래과학기술의 발달에 맞춘 경영전략 수립



- 창조융합 혁신경영**
- 창조적 경영전략을 통한 경영혁신
 - 창의적 가치와 융합 기술을 바탕으로 성장하는 리더십 육성



- 감성문예 경영**
- 기업경영에 감성문예를 접목하여 기업의 경쟁력 제고
 - 문화예술적 인식과 시각을 통한 전문 경영인의 감성 리더십 강화



- 장수기업 경영**
- 기업경영전략에 대한 통찰력 함양 및 조직문화 설계
 - 장수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전략과 사례 습득

정몽구 “新도약 원년... ‘책임경영’으로 미래 선도를”

〈현대차그룹 회장〉



급변하는 자동차산업 혁신 주도해야
현대·기아차, 올해 목표 755만대 SUV 라인업 강화 글로벌 경쟁력↑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이 올해를 새로운 도약의 원년으로 삼고 ‘책임경영’에 대한 경영방침을 제시했다.

정몽구 회장은 2일 신년 메시지를 통해 2018년도엔 현대차그룹이 새로운 도약의 원년이 될 수 있도록 자부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급변하는 자동차산업의 혁신을 주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책임경영’ 방침에 따라 그동안 그룹 차원에서 제시하던 완성차 판매목표도 각 계열사별로 달성 가능한 수준으로 내놓았다. 현대·기아차의 올해 판매 목표는

755만대다. 이는 지난해 목표치 대비 8.5% 감소한 규모다.

우선 정 회장은 세부 경영과제로 ▲권역별 책임경영 체제 확립 ▲주력 시장 경쟁력 확보 및 신규 시장 개척 ▲신차 출시 확대 ▲미래 핵심기술 투자 강화 ▲유기적 협업 체계 고도화 등을 제시했다.

정 회장은 “지난해 중국시장에서 판매 부진 등으로 어려움이 있었지만, 현대차 그룹은 세계 시장에서 친환경차 판매 2위를 달성하고, 최고 수준의 품질경쟁력을 인정받았다”며 격려의 말을 전했다.

이어 “미래기술 혁신이 가속화되고, 경쟁심화가 이어지며 자동차산업이 급변하고 있다”며 “책임경영을 통해 외부 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 미래 자동차산업을 선도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를 위해 정 회장은 “권역별 책임경영 체제의 확립을 통해 판매 생산 손익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고객의 요구에 민첩하게 대응해 나가자”고 주문했다.

현대차그룹은 올해 현대차 신타페 및 대형 SUV 출시 등 글로벌 각 지역에서 SUV 라인업을 강화한다. 지역 특화된 전략 신차도 대거 선보여 판매 경쟁력을 끌어올린다. 중국 시장에서는 준중형 스포티 세단, 준중형 SUV, 엔트리 SUV를 통해

판매를 견인하고, 기아차 ‘씨드’를 통해 유럽시장, 현대차 ‘이온 후속 모델’로 인도를 비롯 신형시장을 적극 공략한다.

정 회장은 특히 “자율주행을 비롯해 미래 핵심기술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자동차산업의 혁신을 주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대차그룹은 미래 자동차 핵심 기술 내재화는 물론, 글로벌 ICT 기업들과의 전략적 협업을 통해 자율주행 및 커넥티드카 상용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오는 평창 동계올림픽을 통해 커넥티드 및 차세대 수소연료전지 기술이 적용된 미래형 자율주행차를 시연할 계획이다.

또 실리콘밸리, 이스라엘 텔아비브에 이어 글로벌 주요 혁신 거점에 오픈 이노베이션 센터를 설립하고, 스타트업 투자 및 개방형 협업을 강화해 미래 신사업 발굴을 본격화한다.

정 회장은 “금년 상반기 출시될 수소전기 전용차를 기점으로 시장 선도적인 친환경차를 적극적으로 개발해 향후 2025년 38개 차종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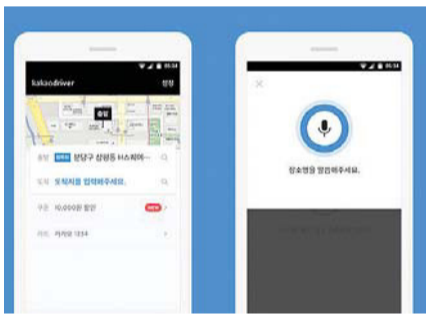
이는 올해 차세대 수소전기차를 비롯해 주행거리를 대폭 늘린 코나 전기차, 니로 전기차 등 친환경 모델을 통해 환경차 대중화 기반을 확고히 할 방침이다. 향후엔 매년 전기차를 1차종 이상 출시하는 등 현재 2차종인 전기차를 2025년 14차종으로 확대해,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서 3위, 전체 친환경차 시장에서 2위를 공히 한다는 계획이다.

정 회장은 “그룹의 내실을 강화해 나가기 위해 수익성 기반의 의사결정 시스템을 강화하고 리스크 대응 체계를 고도화해야 한다”며 “그룹 전체가 열린 마음과 능동적인 자세로 유기적 협업 체계를 더욱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대리기사-소비자분쟁 급증 카카오드라이버 ‘모르쇠’ 일관

지난해 12월 말, 서울시 송파구에 사는 A씨는 카카오드라이버를 이용해 자택에 귀가하다 운전기사 부주의로 차량 접촉사고가 났다. A씨는 당시 카카오드라이버가 든 보험으로 차량파손에 대한 보험(대물) 처리를 신청했다. 그러나 보험금이 초과되는 금액에 대해 운전기사에게도 일부 부담금이 발생했다. 기사가 추가 부담금 납부를 거부하자 카카오드라이버 측은 “손 쓸 방법이 없다”며 모르쇠로 일관했다. A씨는 카카오드라이버의 운전기사와 법적 분쟁을 겪게 됐다.



카카오 드라이버 화면. /홈페이지 갈무리

비스를 제공한 대리운전기사에게 받도록 한 것으로 나타났다.

송희경 의원은 통신판매중개사업자에 소비자 분쟁의 처리에 일정 역할을 하도록 의무화하는 현행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한다.

카카오 드라이버 약관의 제20조 책임제한 조항을 확인해보면, “회사는 카카오 드라이버 관련 가입된 보험약관에 명시된 보험한도 내에서 보험약관에 따라 책임을 부담하며 보험한도를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운송제공자가 회원 또는 제3자에 대한 책임을 직접 부담한다”고 적시돼 있다. 또 회원의 카카오드라이버 이용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분쟁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나타났다. 보험금 추가 부담 등에 대해 카카오 측의 책임 중계 의무가 없는 셈이다.

이에 대해 카카오 측은 “사고의 경우 하나하나 규약을 가지기 보다는 보험에 따라 규약돼 있다”라며 “보험 상품 자체 유지 보수 등은 보험사와 협의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또 “24시간 고객센터가 있고 법적적인 책임이 없어도 불만이 있다면 중간에서 양쪽 얘기를 듣고 협의하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카카오 드라이버 대리운전 기사는 진입장벽이 낮다. 운전면허증만 소지하면 간단한 면접을 통해 선발돼 선발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분쟁 발생 시 대리기사가 일방적으로 휴대전화화 차단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피해는 온전히 소비자 몫이다. 다른 보험사 기록이나 관공서 기록을 볼 수 없어 대리운전 기사의 사고 기록을 모두 확인할 수 없다.

카카오 측은 이에 대해 “카카오드라이버의 경우 대리기사 평점이나 고객센터로 고객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어 오히려 타 대리운전 업체에 비해 관리가 더 꾸준한 편”이라고 말했다.

/김나인 기자 skkni@

“응변창신의 각오로 1등 DNA 갖추자”

〈應變創新〉

구자열 LS그룹 회장 신년사

해외사업 역량강화·신사업 추진 등 ‘글로벌 넘버 원’ 거듭날 시기 강조

구자열 LS그룹 회장이 2일 신년사를 통해 “2018년을 ‘글로벌 넘버 원’이 되기 위한 DNA를 갖추는 해로 만들자”고 말했다.

구 회장은 LS그룹 임직원들에게 “북한 핵 이슈와 미·중 갈등, 미국 보호무역주의로 인한 관세 강화, 자국업체 우대 등 수출 제약 요인 증가와 법인세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국내 산업 정책 변화가 예상된다”면서도 “우리에게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잠재력과 저력이 있다. 시야를 세계로 돌려 진정한 글로벌 플레이어로 거듭날 시기”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몇 년간 세계 경기 불황의 긴 터널 속에서도 우리는 위기 극복의 저력을 증명해왔다”며 “우리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잠재된 역량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글로벌 넘버 원이 될 수 있는 체질을 갖추자”고 밝혔다. 이어 “올해의 경영 방침을 ‘글로벌 넘버 원이 되기 위한 DNA를 갖추는 해’로 정했다”고 선언했다.



구자열 LS그룹 회장이 신년사를 하고 있다.

/LS그룹

이를 위해 LS그룹은 해외 사업 역량 강화와 핵심 사업성과 실현, 신사업 발굴 등을 추진한다. 구 회장은 “변화에 한발 앞서 대응하고 미래를 주도적으로 개척한다”는 ‘응변창신(應變創新)’의 마음가짐으로 올해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추진한다”며 “기술, 영업, 생산, 마케팅 등 해외사업 수준을 지금보다 한층 업그레이드시켜 세계 1등과 경쟁하고 글로벌 기업으로 나아가는 초석을 다지자”고 주문했다.

또한 구 회장은 “지난 몇 년간 초고

압·해저케이블, 전력기기와 시스템, 트랙터와 전자부품 등의 주력사업 분야 기술·제품 경쟁력을 강화하고 시너지 창출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며 “올해도 성과 조기 창출을 위해 전 그룹 차원의 R&D 스피드업과 사업과 포트폴리오 고도화 등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계열사별로 4차 산업혁명 흐름에 대비해 그룹의 미래 먹거리가 될 신기술, 신사업 발굴 노력에도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오세성 기자 sesung@

도요타코리아 신임 사장에 다케무라 노부유키

마케팅 전략가로 정평... 성장세 전망

도요타코리아는 다케무라 노부유키 신임 대표이사 사장(사진)이 부임했다고 2일 밝혔다.

전임인 요시다 아키히사 전 대표이사 사장은 4년간의 한국 근무를 마치고 일본 본사로 귀임했다.

도요타코리아에 따르면 다케무라 신임 사장은 지난 1990년 도요타 자동차에 입사해 해외시장을 위한 제품 기획 및 세일즈 마케팅 업무를 담당했다. 2015년부터 최근까지는 중동·북아프리카부에서 마케팅과 렉서스 기획 분야를 맡았다.

다케무라 신임 사장이 마케팅 전략가로 정평이 난 인물인 만큼 올해도 지난해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도요타코리아는 도요타 1만1700여대,



렉서스 1만2500여대를 합쳐 총 2만4000여대 가량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12월 판매 실적은 집계되지 않았지만 지난해 1월부터 11월 까지 도요타는 1만660대 판매되며 전년 동기 대비 29%, 렉서스는 1만 1294대를 판매 23%의 성장세를 기록했다.

다케무라 사장은 “그동안 글로벌 시장에서 쌓은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도요타와 렉서스가 한국 고객들로부터 더욱 사랑받는 브랜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도요타 코리아 관계자는 “올해는 도요타, 렉서스 각각 전년 대비 10% 증가한 2만7000여대를 판매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아시아나항공-크로아티아항공 9개 노선 공동운항 시작

아시아나항공은 크로아티아항공과 공동운항(코드쉐어)을 시작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달 27일부터 시작된 이번 공동운항으로 아시아나항공 승객들은 런던, 파리, 프랑크푸르트를 경유한 후 크로아티아항공이 운항하는 9개 노선을 통해 자그레브, 두브로브니크, 스플리트 등 크로아티아 내 인기 관광도시로 이동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아시아나항공은 인천발 런던 및 프랑크푸르트 노선을 각각 매일 1회, 파리 노선을 주 5회 운항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이번 제휴를 계기로 크로아티아 및 인근 동유럽 지역에서 여객편 네트워크 및 영업력을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제휴에 따라 아시아나항공의 공동운항 네트워크는 30개 항공사 24개국 312개 노선으로 확대됐다”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TV는 ‘크기 전쟁중’... 초대형시장 압도적 1위

전 세계 초대형프리미엄 급성장세
삼성 작년 3분기에만 15만대 판매
2위 소니와는 두배 수준으로 격차



삼성전자가 75인치 이상 초대형·초고화질 프리미엄 TV 시장에서 점유율을 넓혀가고 있다. 사진은 삼성전자가 내놓은 초대형 88인치 QLED TV. /삼성전자

삼성전자가 75인치 이상 초대형·초고화질 프리미엄 TV 시장에서 점유율을 넓혀가고 있다.

전 세계 TV 시장은 전반적으로 정체 국면에 접어들었으나 70인치 이상 초대형·초고화질 프리미엄 제품 시장은 가파른 성장세를 기록하며 TV 시장을 이끌고 있는 상황이다.

2일 글로벌 시장조사업체인 IHS마킷에 따르면 전 세계 75인치 이상 초대형 TV 시장의 판매 대수는 지난해 115만1000대에서 올해 169만6000대, 내년 227만4000대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2020

년에는 338만8000대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1분기의 경우 판매대수가 17만2400대에 그쳤으나 3분기에는 29만8000

로 급증했다.

지난해 3분기 75인치 이상 TV 판매실적을 업체별로 살펴보면 삼성전자가 15만1800대를 기록하면서 소니(7만9700대)와 LG전자(3만4900대), 하이센스(7100대) 등을 제치고 압도적 1위를 차지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1분기에는 판매 대수가 5만7600대에 그치면서 소니(6만1400대)보다 뒤처지는 모습이었다. 그러나 2분기에 8만5200대를 팔아 소니(5만2300대)를 제치더니 3분기에는 격차를 두배 수준으로 벌렸다.

삼성전자는 전체 TV 매출에서 75인치 이상 초대형 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1분기 3.2%에서 2분기 4.3%에 이어 3분기에는 무려 8.1%로 확대됐다.

이와 함께 1500달러 이상 프리미엄 TV 시장에서도 삼성전자는 지난해 3분기에

53.9%의 점유율을 차지하면서 소니(25.5%)와 LG전자(16.5%)를 멀찍이 밀어내고 1위에 올랐다. 또 2500달러 이상의 초프리미엄 시장점유율도 35.7%로, 소니(29.2%)와 LG전자(28.2%) 등을 제쳤다.

디스플레이 패널별로는 3분기 LCD(액정표시장치) TV가 전세계에서 28만9300대 팔렸으나 올레드(OLED·유기발광다이오드) TV 판매 대수는 1500대에 그쳤다.

업계 관계자는 “전 세계 TV시장은 사실상 정체 상태에 빠진 상태이나 초대형 제품 판매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며 “특히 올해 LCD 업계가 본격 가동하는 10.5세대 생산 라인은 75인치 등 대형 패널에 최적화돼 있어 TV 대형화 추세를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정은미 기자 21cindiun@metroseoul.co.kr

“현장중심 경영으로 새롭게 도약하자”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신년사

인천공항 제2터미널·조인트벤처
내년 창립 50주년 준비 등 주문



이 제기되는 것”이라며 “마치 자신에게 소중한 것을 대하는 것과 같이 고객의 여행을 소중히 대한다면 안전과 서비스는 자연스럽게 따라올 것”이라고 역설했다.

조 회장은 변화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동안 관례처럼 해왔던 관행, 단일한 사고방식과 적당주의 등 조직의 성장을 저해하는 모든 부정적인 것들로부터 “떠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소비자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넘쳐나는 정보와 각종 기술

속에서 현명하게 핵심 정보를 취사선택해 적시적소에 제공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조 회장은 변화하는 세상에 적응할 수 있도록 우리를 둘러싼 울타리를 걷어내고 세상을 직접 만나야 한다고 제안했다.

뿐만 아니라 1년 후면 반백 년의 대한항공을 만나게 되는데 그 만남을 의미 있게 하려면 대한항공만의 프리미엄 서비스 경쟁력이 업그레이드될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개장, 소비자 편의성 증대는 물론 대한민국 항공산업의 새로운 도약이 될 델타항공과의 태평양노선 조인트벤처 등을 밀거름으로 전 임직원이 일치 단결해 올 한 해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조 회장은 새로운 관점과 발상의 전환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안전과 서비스를 비롯한 핵심가치를 근간으로 시장에 따라 유연히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가치를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는 기존 것들을 새로운 시각으로 보는 한편 보유 자원의 활용도를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성운 기자 ysw@

삼성전자 C랩, CES서 혁신아이디어 선보

‘S레이’ 등 우수 과제 소개

세계 최대 전자전시회 ‘CES 2018’에 삼성전자 사내벤처 C랩과 C랩을 통해 창업한 스타트업 기업들이 대거 참가한다.

삼성전자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 위치한 샌즈 엑스포 1층 G홀 유레카 파크에 C랩 전시관을 마련하고, 9~12일(현지시간) CES 2018 전시 기간 동안 이들 과제를 관람객들에게 소개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이번 CES에서 첫 선을 보이는 C랩 우수 과제는 ▲휴대용 지향성 스피커 ‘S레이(S-RAY)’ ▲폐 합병증을 예방하는 호흡재활 솔루션 ‘Go브레쓰(GoBreath)’ ▲저시력 장애인 위한 시각보조솔루션 ‘릴루미노(Relumino) 글래스’ 등이다.

S레이는 주변에는 소리가 들리지 않고 스피커 앞의 사용자만 들을 수 있게 해주는 휴대용 지향성 스피커다. 이어폰을 장시간 사용해야 해서 귀에 피로감을 느끼거나 야외에서 스피커를 사용하고 싶지만 주변에 소음 피해를 줄까 우려했던 사람들이 위한 제품이다. 목에 착용 가능한 넥밴드 타입, 원하는 장소에 쉽게 탈착할 수 있는 초소형 핸디타입, 스마트폰에 장착 가능한 커버타입 등을 선보인다.

Go브레쓰는 전신 마취 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폐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 만든 호흡 재활솔루션이다. Go브레쓰는 전용 기기와 앱을 통해 환자가 호흡운동을 할 수 있게 하며, 호흡 운동 상태와 회복 정도도 확인할 수 있다. 의사가 환자의 운동



세계 최대 전자전시회인 CES 2018에 선보일 삼성전자 C랩의 우수과제 휴대용 지향성 스피커 ‘S레이’. /삼성전자

상태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서비스도 제공한다.

릴루미노는 저시력 장애인이 사물을 더 또렷하게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각 보조 솔루션이다. 이번 CES에서는 기존 기어VR용 시각보조 앱 외에 선글라스 형태의 ‘릴루미노 글래스’의 시제품을 처음 공개한다. 릴루미노 글래스는 스마트폰과 연결해서 사용하는 방식으로, 안경에 장착된 카메라로 보이는 영상을 스마트폰으로 전송하고, 스마트폰에서 릴루미노만의 이미지 처리 알고리즘을 거쳐 다시 글래스 내부의 디스플레이에 보여준다.

이와 함께 C랩에서 스핀오프한 7개 스타트업 기업도 함께 참가해 세계 시장 진출 기회를 적극 타진할 예정이다.

C랩은 삼성전자가 창의적 조직문화를 확산하고 임직원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2012년 12월부터 도입한 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으로, 현재까지 200여개의 아이디어를 발굴해 육성하고 있다.

/정은미 기자 21cindiun@

베트남이 4만원대... LCC업계 ‘파격 할인’

제주항공 연중 2회 특가행사 ‘짹’
이스타항공 日·동남아·中 등 할인
진에어 이달 말 반값찬스 ‘진마켓’



국내 저비용항공사(LCC)들이 새해 벽두부터 잇달아 할인 이벤트를 진행하며 여행객들의 부담을 줄이기에 나선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제주항공은 이날부터 항공권 할인 행사인 ‘짹’ 예매를 시작한다. 제주항공의 ‘짹’은 연중 2회 실시하는 특가 행사로, 국내선은 4일 오후 5시부터, 국제선은 5일 오후 5시부터 예매가 가능하다. 탑승일을 기준으로 오는 3월25일부터 10월27일까지 이용할 수 있다. 노선별 ‘짹 항공권’ 최저운임은 유류할증료와 공항이용료 등을 모두 포함한 편도 총액 운임을 기준으로 국내선은 김포~제주, 청주~제주, 부산~제주, 대구~제주, 광주~제주, 김포~부산 등 6개 노선이 각 1만100원이다.

국제선은 일본 노선의 경우 인천발 도쿄(나리타), 오사카, 나고야, 후쿠오카, 오키나와, 삿포로, 김포발 오사카, 부산

발 오사카, 후쿠오카 등이 3만3300~4만4400원이다.

베트남 노선은 인천발 하노이, 다낭이 4만7700~5만7700원이며, 말레이시아 노선은 인천발 코타키나발루 5만8800원, 태국 노선 인천발 방콕, 부산발 방콕이 5만600~6만600원 등이다.

이스타항공도 오는 7일까지 일주일간 얼리버드 특가 항공권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스타항공은 매월초 4개월 후의 항공권을 미리 저렴하게 예매할 수 있는 얼리버드 이벤트 진행하고 있다. 이번 얼리버드 이벤트는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탑승할 수 있는 16개 국제선 항공권을 대상으로 하며 1월1일 오후 2시부터 이스타항공 홈페이지와 모바일 웹, 앱을 통해 확인

및 예약이 가능하다.

이벤트 노선은 일본 6개, 동남아 9개, 중국 1개 등 모두 16개다. 일본 노선은 편도총액운임 기준 ▲인천-도쿄(나리타) 6만7900원 ▲인천-오사카(간사이) 6만7900원 ▲인천-후쿠오카 6만2900원 ▲부산-오사카(간사이) 5만7900원 ▲인천-오키나와 7만7900원 ▲인천-삿포로 6만7900원부터 이용할 수 있다.

동남아 노선은 최저 ▲김포-타이베이(송산) 9만4900원 ▲인천-타이베이(타오위안) 9만4900원 ▲인천-홍콩 9만9900원 ▲인천-방콕 11만9900원 ▲부산-방콕 11만9900원 ▲인천-코타키나발루 10만9900원 ▲부산-코타키나발루 10만9900원 ▲인천-하노이 10만900원 ▲인천-다낭 9만4900원부터 제공된다.

진에어는 이달 말 할인 이벤트 ‘진마켓’을 진행할 예정이다. 진마켓은 진에어가 지난 2012년부터 매년 상·하반기를 나눠 두차례 진행하는 최대 규모의 프로모션 이벤트다. 기존 가격보다 반값 이상 할인된 가격에 항공권을 마련할 수 있어 인기가 높다.

/양성운 기자

청호나이스 나사 우주비행사 공기청정기 모델로

청호나이스가 전 나사(NASA) 우주비행사 테리 버츠를 광고모델로 발탁했다.

2일 청호나이스에 따르면 이번 광고는 ‘세계 최고의 기술만을 접해 온 우주비행사가 만난 최고의 공기청정기’란 콘셉트로 ‘울파(ULPA) 필터 공기청정기’의 우수성을 어필한다.

테리 버츠는 2000년부터 나사 우주비행사로 활동했다. 2015년에는 국제우주정거장을 지휘하는 등 총 213일 동안 우주에 체류한 기록을 갖고 있다.

이석호 청호나이스 대표는 “당사의 앞선 기술력을 소비자들에게 정확히 알리는 방법으로 우주비행사를 모델로 발탁하게 됐다”고 말했다. 테리 버츠를 모델로 한



이런 광고는 1월부터 전파를 탄다. 한편 제작된 12월에 출시된 울파 필터 공기청정기는 청호나이스의 대표 공기청정기로 평가받는다. 작년 한 해 동안 렌탈·판매된 10여 개 공기청정기 중 40%의 비중을 차지한다. 기존 헤파(HEPA) 필터가 걸러내지 못한 0.1μm(마이크로미터) 초미세먼지까지 걸러내는 특성이 있다.

/임현제 기자 ih@

‘구조조정 완료’ 선언한 권오준, 미래 먹거리 확보 나선다

〈포스코 회장〉

재무구조 혁신·대대적 구조조정
창립 50주년 신사업 강화 팔견어
철강 등 기존사업 스마트한 변신
에너지·소재 분야 허브로 육성

올해 창립 50주년을 맞은 포스코가 4년 여의 구조조정을 성공적으로 완료하고 새로운 도약에 박차를 가한다.

2일 포스코에 따르면 권오준 회장이 취임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혹독한 구조조정 결과 회사 체질이 개선되고, 체력이 강화됐다. 이에 따라 창립 50주년인 올해부터는 기존 사업의 스마트한 변신과 함께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한 신성장 사업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포스코는 창사 이래 여러 가지 외부 변수 속에서도 안정적인 성장을 지속해 왔으나 2000년대 후반부터 확대해 온 신규 성장 투자사업들이 조기에 성과를 내지 못하면서 창사이래 최악의 경영위기를 겪어야만 했다.

한 때 7조원을 상회하던 연결 영업이익이 최근에는 2조원대 중반까지 하락하기도 했다. 현금시재도 최고 8조원을 상회하던 것이 5조원 대까지 줄었고 대외신용



권오준 포스코 회장이 2일 사무실에서 창립 50주년 공식 엠블럼을 선포하고 엠블럼 깃발을 흔들고 있다. /포스코

도도 하락이 이어졌다.

이에 따라 권 회장은 재무구조 혁신을 위한 IP(Innovation POSCO) 1.0과 IP 2.0프로젝트를 잇달아 추진하면서 대대적인 구조조정 작업에 들어갔다. 비핵심 철강사업은 매각했으며 유사한 사업부문은 합병시켜 효율성을 높였다. 저수익, 부실사업은 과감히 정리해 부실확대를 근본적으로 차단했다.

그 결과 한 때 71개까지 늘어났던 포스코 국내 계열사는 38개로, 해외계열사는 181개에서 124개로 줄었다. 4년간 7조원 규모의 누적 재무개선 효과를 거뒀으며, 매년 4000억원 정도의 발생 가능한 손실을 원천적으로 차단했다.

포스코의 연결 자금시재는 지난 3분기 말까지 8조5500억원수준으로 회복했고, 차입금은 5조원 이상 상환해 연결부채비

율은 2010년 이래 최저 수준인 67.6%로 한층 더 가벼워졌다. 국제 신용평가기관 무디스는 최근 포스코의 장기 기업신용 등급 'Baa2'에 대한 전망을 '부정적(Negative)'에서 '안정적(Stable)'으로, 다시 '긍정적(Positive)'으로 상향 조정하고 향후 1~2년 간 지속적으로 포스코의 재무건전성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포스코는 새로운 도약을 위한 성장전략으로 철강 등의 기존 사업을 스마트하게 변신시키는 것과 함께 포스코 고유의 신성장 동력을 육성하는 등 투트랙으로 추진한다.

포스코는 철강산업은 물론 에너지, 건설, 화공 분야에 이르기까지 그룹 본연의 사업에 ICT를 융합하는 스마트아이제이션(스마트화)을 추진해 자체 경쟁력을 높임과 동시에, 이를 통해 차별화된 융복합 사업을 새로 개발해 4차 산업 혁명을 선도해 나간다는 복안이다.

철강 생산현장에는 현재 추진중인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스마트팩토리 전환을 이어간다. 핵심공정의 효율성을 더욱 높여, 친환경 고효율의 미래형 제철소를 구현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고부가가치 제품인 월드프리미엄(WP)제품을 60%까지 끌어올릴

예정이다.

포스코가 올해부터 본격 추진하게 될 신성장 사업은 에너지 및 소재 분야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그동안 추진해온 발전 사업의 내실을 다지면서 LNG 터미널 시설을 활용하는 LNG 미드스트림 사업을 적극 확대한다. 장기적으로 광양LNG 터미널을 동북아시아 에너지 허브로 육성할 방침이다.

신재생 발전 분야에도 투자를 확대해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정부 정책에 부응한 사업기회도 적극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또 그동안 차세대 신성장 동력으로 추진해 오던 리튬사업은 남미, 호주 등에서 리튬 함유 염수 및 광석 확보를 위한 사업 개발에 참여해 안정적인 원료기반을 확보하고, 양산 체제를 구축해 주력사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한편 2일 포항 본사 대회의장에서 열린 2018년 사무식에서 권오준 회장은 "새로운 50년을 맞이해 임직원 모두 자부심과 사명감으로 포스코 그룹이 가야 할 길을 깊이 명심하고, 멀리 보고 밝게 생각하는 시원명명(視遠惟明)의 자세로 올 한 해 더욱 분발해 달라"고 주문하면서 포스코 창립 50주년 공식 엠블럼을 공개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쌍용차 렉스턴 스포츠.

쌍용차, '렉스턴 스포츠' 사전계약 시작

쌍용자동차는 픽업트럭인 '렉스턴 스포츠'(프로젝트명 Q200)의 외관 디자인을 공개하고 사전계약을 시작한다고 2일 밝혔다.

렉스턴 스포츠는 대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인 G4 렉스턴과 플랫폼(차량의 기본 틀)을 공유한다. 차동기어장금장치(LD) 등을 갖춰 안정적인 오프로드(비포장도로) 주행 성능을 발휘하며

오픈형 데크가 제공하는 우수한 공간활용성은 렉스턴 스포츠만의 특징점으로 비교할 수 없는 감성적 만족감을 안겨 줄 것이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또한 뛰어난 멀티미디어 성능과 모바일 연결성을 제공한다.

렉스턴 스포츠의 판매 가격은 트림 별로 2350만~3090만원대로 책정됐다. 공식 출시일은 오는 9일이다. /양성운 기자

“절차탁마의 자세로 차별화된 경쟁력 확보”

허창수 GS회장 신년사

기존사업 강화·미래동력 발굴 제시

허창수 GS 회장(사진)이 “절차탁마(切磋琢磨)의 자세로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하자”고 강조했다.

허 회장은 2일 서울 강남구 논현로 GS타워에서 열린 GS신년모임에서 “자신만의 차별화된 역량을 확보한 기업만이 생존을 넘어 시장을 선도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허 회장은 “인공지능과 자율주행, 핀테크 같은 ‘게임 체인저’의 등장으로 시장의 패러다임과 룰이 빠르게 바뀌고 있다”며 “부족한 부분은 배워서 한 걸음 더 나아가고, 같은 실수는 줄이는 절차탁마의 자세로 역량을 쌓아야 진정한 ‘Value No.1 GS’로 거듭날 수 있다”고 GS 그룹 경영진에게 당부했다.

세부적으로는 기존 사업 경쟁력 강화와 포트폴리오 확충을 통한 미래 성장동력 발굴을 제시했다.



허 회장은 “기존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새로운 사업 포트폴리오를 확충해 사업구조를 더욱 고도화 시켜야 한다”며 “변화의 흐름을 잘 읽어내 신사업을 발굴하고 해외시장 개척에 매진하자”고 말했다. 이어 “다양한 시도를 통해 새로운 시장과 고객에 접근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행착오는 자산으로 삼아 더 나은 사업기회를 개발하는 밑거름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 회장은 경영환경 변화에 발맞춰 조

전문화도 유연하게 바꾸자고 요구했다.

그는 “4차 산업혁명 등 과거와 확연히 다른 경영환경에서는 끊임없이 학습하는 개인과 조직만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며 “다양한 현장에서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고, 서로 소통·공유해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하자”고 말했다.

또한 “외부 관점을 개방적으로 수용해 우리의 역량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변화를 이해하고 끊임없이 학습·진화하는 조직을 만들어야 변화를 새로운 도약의 계기로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사회적 기업으로서의 역할에도 소홀하지 말 것을 지시했다. 허 회장은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기업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기대가 날로 높아지고 있다”면서 “새로운 먹거리 발굴 등을 통해 GS의 지속성장 기반을 마련함과 동시에, 상생 경영으로 건전한 경제 생태계를 조성하는데 일조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오세성 기자 sesung@

KT, ‘갤럭시A8’ KT샵서 예약판매 시작

KT는 2일부터 4일까지 삼성전자의 ‘갤럭시A8’ 예약판매를 온라인 공식 채널인 KT샵을 통해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갤럭시A8의 정식 출시일은 5일이고,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예약판매 없이 출시한다.

갤럭시A8(2018)은 갤럭시 모델 최초로 전면듀얼카메라를 적용했다. 또 인피니티 디스플레이가 적용됐으며 빅스비 비전·홈·리마인더, IP68등급의 방수방진, 삼성페이를 탑재했다.

출고가는 59만9500원이며 색상은 블랙, 블루, 골드 3종으로 출시된다.

오는 31일까지 KT매장에서 갤럭시A8을 개통하는 고객에게는 ‘몰스킨 노트’를 2만개 한정 무료 제공한다.

다양한 추가할인도 있다. KT 고객이 31일까지 ‘프리미엄 슈퍼할부 현대카드’로 갤럭시A8을 할부 구매하면 이용 실적에 따라 2년간 최대 48만원의 통신비 할인에 4만원 캐시백을 더해 총 52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수험생 연령대인 1998~2000년생이라면 ‘Y수능 데이터 무제한 페스티벌’을 통해 더 낮은 월정액으로 데이터 무제한을 이용할 수 있다.

가입 시 6개월 간 매월 최대 1만4390원의 추가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선택약정 할인과 프리미엄 가족결합 할인을 함께 적용 받는 고객은 최저 1만8500원에 데이터 무제한을 사용할 수 있다.

/김나인 기자

B쇼핑, ‘SK 스토아’로 채널 명 변경… 무술년 맞이 새출발

T커머스 업체인 SK스토아는 2018년 무술년 황금 개띠의 해를 맞아 채널 명을 기존 B쇼핑에서 ‘SK stoa(스토아)’로 변경하고, 대규모 고객 프로모션을 연다고 2일 밝혔다.

회사 측은 SK 스토아로 채널명을 변경한 것은 ‘쇼핑에서 멈추지 않고 더 많은 가치를 제공한다’는 의미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SK 스토아는 브랜드 론칭을 기념해 이달 말 달간 새 출발 그랜드 오픈 기념 프로모션을 연다.

우선 100개의 TV 특가 상품을 편성하고, 매주 토요일 해당기간 구매 고객은 기존 20% 적립금 혜택 이벤트에 10%를 더해 총 30%의 적립금을 지급한다.

매주 일요일에는 SK 렌터카, SK텔레



모델이 새해 맞이 고객 프로모션을 알리고 있다.

/SK 스토아

콤 휴대폰, SK 매직 정수기 등 SK 관계자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추가 특별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윤석암 SK스토아 대표는 “2018년에는 브랜드 인지도 구축을 위한 다양한 프로

모션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정보전달과 구매경험을 제공할 수는 커머스 플랫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나인 기자 silkni@

“2018년은 ‘아시아 리딩뱅크’ 만드는 10년의 출발점”

2018 따뜻한 금융 행복한 한국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

고객이 인정때 ‘진정한 리딩뱅크’ 자강불식으로 끊임없이 노력해야

올해는 KB금융이라는 지주사가 설립된 지 만 10년이 되는 해다.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은 2018년을 아시아 리딩뱅크로 나아가갈 새로운 10년의 출발점으로 삼을 계획이다.

윤 회장은 2일 신년사를 통해 “2018년을 시작으로 1등 금융그룹의 자리를 굳건히 하고, 나아가 아시아 시장에서 이름값을 하는 글로벌 금융그룹으로 우뚝 서는 ‘새로운 10년’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스스로 굳세게 다지며, 목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

표를 향해 끊임없이 노력한다’는 ‘자강불식(自強不息)’의 자세를 강조했다.

◆모든 서비스·프로세스는 고객 중심으로 KB금융은 지난해 리딩뱅크의 자리를 되찾았다.

그러나 윤 회장이 생각하는 리딩 금융

그룹의 자격은 당기 순이익도, 자산 규모도 아니다. 고객으로부터 ‘최고의 회사’로 인정받을 때 주어지는 것이 진정한 리딩뱅크의 자리라는 것.

윤 회장은 “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끊임 없는(seamless) 서비스와 디지털화(Digitalization), 애자일(Agile) 조직 등 모든 것들은 고객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며 “늘 말하는 하나의 KB(One Firm, One KB) 핵심도 결국은 고객 중심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모든 서비스와 프로세스는 고객 중심으로 과감하게 바뀌어나갈 방침이다. 지난해 말에는 데이터 분석 조직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조직을 개편했다. 고객의 니즈를 더 정확하고 적기에 파악하기 위해서다.

최근 몇 년새 금융업은 업종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유통이나 정보통신기술(ICT) 등 글로벌 비(非)금융회사들의 파괴적 공세가 이어지고 있다.

그는 “디지털 금융 분야는 신기술을 끝

없이 내재화하고 다양한 핀테크 스타트업 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KB 중심의 금융 생태계를 구축할 것”이라며 “디지털 경쟁력을 확보해 빠른 추격자(Fast follower)가 아닌 시장 선도자(First Mover)로 도약해야 한다”고 말했다.

◆글로벌 진출은 과감하게

그간 글로벌 사업을 차근차근 준비해 왔다면 올해는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할 시점이다.

윤 회장은 “아시아 시장을 중심 축으로 글로벌진출 기반을 다지며, 동남아 시장 현지에 특화된 금융모델을 통해 시장 지위를 확대할 것”이라며 “기회가 된다면 선진국 시장을 향한 과감한 전략(Bold Move)도 시도하겠다”고 밝혔다.

조직문화나 인재양성도 글로벌 수준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윤 회장은 스피드경영으로 성공한 글로벌 기업 아마존을 예로 들며 “속도가 생존의 조건이 되고 있다”며 “지금 시도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애자일 조직들은

신속한 의사결정과 실행 중심의 KB로 변화해가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스라엘의 ‘후츠파(Chutzpah)’ 정신도 인용했다.

그는 “형식을 탈피하고 당돌한 질문을 장려하는 후츠파 정신처럼 KB의 미래에 대한 솔직하고 치열한 ‘물적구 토론’이 가능할 때 KB만의 조화롭고 역동적인 문화가 조성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인재 미래상은 ‘통섭(統攝)형 인재’다. 이번에 신설한 그룹인재개발센터를 중심으로 그룹 차원의 인력 양성, 연수, 교육 프로그램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윤 회장은 “고객으로부터 인정받는 진정한 1등 금융그룹이 되기 위해서는 핵심 비즈니스 분야의 우수인재를 얼마나 확보하느냐가 중요하다”며 “금융업 전반을 아우르는 통섭형 인재의 육성을 위해서 그룹 내 계열사 간 인력교류도 더욱 확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상미 기자 smahn1@metroseoul.co.kr

“임직원들 뭉쳐 ‘극세척도’ 지혜 발휘를”

(克世拓道)

정원재 우리카드 사장 취임사

고객기반 확대 등 7개 키워드 제시

우리카드 정원재 신임 사장은 2일 “우리카드 창립 이후 5년간 임직원의 헌신적인 노력에 힘입어 많은 성과를 낼 수 있었다”며 “이는 노사가 하나돼 상위권 카드사 도약의 발판을 마련한 결과이기에 더욱 값지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 본사에서 진행된 정 사장 취임식에는 300여 명의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내부 행사로 치러졌다.

정 신임 사장은 수석부회장급인 우리은행 영업지원본부장 출신으로 통상 부회장 출신이 우리카드 사장으로 내정돼 온 이전과 다른 인사로 주목받은 바 있다. 업계에선 정 사장이 우리금융그룹 내 우리카드의 위상과 역할을 높이는 역할을 맡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원재 우리카드 신임 사장.

정 사장은 취임사에서 올해 카드업계의 어려운 영업환경을 전망하며 “가맹점수수료 추가인하 가능성,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조달비용 증가, 중위권 카드사의 치열한 경쟁, 그리고 비금융 ICT 기업의 지불결제시장 진출 등 대내외 환경에 대해 긴

장의 끈을 놓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또 수익구조 다변화, 고객기반 확대, 시장지배력 강화, 리스크관리 및 법과 원칙 준수, 디지털 프로세싱 혁신, 기업의 사회적 책임 완수, 소통 및 변通的 조직문화 등 일곱 가지 경영 키워드를 제시했다.

정 사장은 취임사 말미 “전 임직원이 뭉쳐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 길을 개척하는 ‘극세척도(克世拓道)’의 지혜를 발휘해 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 사장은 지난 1977년 우리은행에 입행하여 서천안지점장, 삼성도지점장, 충청영업본부장 등 30여 년간 영업의 최전선을 뚫 ‘영업통’으로 불린다. 또 마케팅지원단장, 기업고객본부장, 영업지원 및 인사 총괄 부본부장을 거치며 마케팅과 전략, 인사(HR)까지 두루 경험하는 등 정통 금융맨으로서 높이 평가된다.

/이봉준 기자 b35sea@

“한계 뛰어넘어 도약하는 해 만들자”

김도진 IBK기업은행장

김도진(사진) IBK기업은행장은 2일 “올해 중소기업 대출과 디지털 금융 시장에서 일대 격전이 예상된다”며 “중기 금융시장에서 압도적인 차별로 선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IBK기업은행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을지로 본점에서 임직원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 시무식을 열었다.

김 행장은 신년사를 통해 중기 금융과 함께 디지털 혁신인재 1만명 육성, ‘동반자 금융’을 통한 역동적인 창업시장 조성 등을 강조했다. 또 그는 “낙관론자는 어려움 속에서도 기회를 찾아낸다”며 “열정적으로 도전하고, 한계를 뛰어넘어 도약하는 한 해를 만들어 보자”고 말했다.

김 행장은 올해도 변함없이 고객과 현장을 가장 중요한 경영의 축으로 삼을 것



한편, 이날 시무식에서 기업은행 노사는 공동선언을 통해 “앞으로도 준정규직의 처우개선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안상미 기자

우리은행 ‘운수대통 정기 예·적금’ 출시

우리은행은 2018년 새해 첫 재테크 상품으로 우대조건 없이 금리를 제공하는 ‘운수대통 정기예금’과 ‘운수대통 정기적금’을 출시했다고 2일 밝혔다.

‘운수대통 정기예금·정기적금’은 복잡한 우대조건이 없다는 게 특징이다. 인터넷뱅킹과 스마트뱅킹을 통해 가입하면 정기예금은 연 2.0%, 정기적금은 연 2.

3%의 금리를 적용한다.

영업점에서 가입할 경우 금리는 각각 연 1.8%, 연 2.2%이다. 정기예금은 가입금액의 제한이 없고 정기적금은 월 50만 원 이내로 가입할 수 있다. 정기예금과 정기적금 모두 가입 기간은 1년이며, 2월 14일까지 가입 가능하다.

이와 함께 우리은행은 가입 고객을 대

상으로 ‘술술 풀러라 운수대통’ 이벤트를 진행한다. 1월 말까지 가입고객 중 선착순 5만 명에게 G마켓 5000원 할인쿠폰이 지급되고, 이 기간 G마켓 신규가입 고객에게는 최대 1만원까지 할인되는 50% 할인쿠폰이 제공된다.

또 우리은행 페이스북에 1월 14일까지 새해덕담 댓글을 등록한 고객 100명을 추첨해 3만원 상당의 평창 송어축제 초대권 2매를 제공한다.

/채신화 기자 csh9101@

“녹록치 않은 환경, 장애물 아닌 디딤돌”

임영진 신한카드 사장

임영진(사진) 신한카드 사장은 2일 “기회는 항상 위기와 함께 온다”는 워런 버핏의 말처럼 우리 앞에 놓인 녹록치 않은 경영 환경을 단순히 우리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아니라 한계를 뛰어 넘는 새로운 도약의 ‘디딤돌’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 사장은 이날 신년사를 통해 먼저 실적 성장 중심의 사업 포트폴리오 운영 계획을 밝혔다. 단기적으로 전자 자원을 고수익 자산 중심으로 우선 집중하고 성장 잠재력이 높은 상품에 투자해 상품 포트폴리오를 최적화한다는 설명이다.

또한 디지털 퍼스트 혁신 가속화를 통해 업무 프로세스를 간소화하고 비용을 효율화하는 한편 근거리 무선통신(NFC) 결제 인프라를 카드사 공동으로 구축하는 동시에 주요 간편결제사와 전략적 제휴를 강화하는 등 지불결제 시장변화에 전방위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복합 금융 회사 전환 기반을 구축하여 비정형 데이터와 그룹 데이터,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신용평가체계를 고도화하고 중금리 시장 공략을 강화할 것을 강조했다.

임 사장은 “고객 관점에서 기존 금



융상품을 업그레이드하는 노력을 지속해서 추진해야 할 것”이라며 “성장하고 있는 할부금융과 리스 사업은 전용 플랫폼 구축을 통해 다이렉트 마케팅 역량을 강화하고 자동차 전후방 사업자와 연계한 토탈 금융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 밖에 글로벌 사업의 성과 창출 가시화를 통해 그룹사 공조 아래 아시아 시장을 중심으로 인수·합병(M&A) 등의 성장을 지속 모색하고 그룹사 동반 진출국에서는 디지털 기반 글로벌 사업모델의 성공사례를 창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임 사장은 신년사 말미 “1등 DNA’ 기반의 강한 조직문화를 구축해야 한다”며 “새로운 방식으로 틀을 깨는 ‘창의’, 자기 주도적으로 성과를 창출하는 ‘몰입’, 구체적이고 계획적인 ‘강한 실행’의 1등 DNA를 확고하게 정착시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기본으로 돌아가 업무의 작은 부분까지 돌아보고 전방위적이고 근본적인 변화를 이루어낸다면 어떠한 난관도 돌파 가능하다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이봉준 기자

“디지털 DNA로 일류기업 도약해야”

원기찬 삼성카드 사장

원기찬(사진) 삼성카드 사장은 2일 신년사를 통해 “창립 30주년을 맞은 올해 ‘디지털 DNA’를 바탕으로 경쟁사와 격차를 확대해 미래를 선도하는 일류기업으로 도약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원 사장은 이날 임직원들에 보낸 신년 메시지에서 “지속 성장을 위해 과감히 탈바꿈을 시도해야 한다”며 회원 기반 강화와 차별화된 개인화 마케팅, 온·오프라인 채널의 유기적 연계,



생각의 틀을 깨고 도전하는 조직문화 구축, 사회적 가치 창출 등을 올해 추진해야 할 주요 사업 방향으로 제시했다.

원 사장은 “디지털 1등을 넘어서는 진정한 일류회사로 발전시켜 미래를 선도하는 디지털 삼성카드를 자리매김하자”고 강조했다.

/이봉준 기자

무술년 키워드 ‘도전·혁신’... “넓은 관행 벗어던져야”

자본시장 CEO 신년사

국내 자본시장을 이끌고 있는 금융투자업계 기관장과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들은 무술년 새해 키워드로 ‘도전과 혁신’을 꼽았다. 예측이 쉽지 않은 업계 안팎의 환경 변화에 대처하려면 넓은 관행을 던져버리고, 새로운 도전 과제 발굴과 적극적인 투자에 나서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나온 공통된 주문이다.

정지원 한국거래소(KRX) 이사장은 2일 서울 여의도 사옥에서 열린 ‘2018년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서 “우선 코스닥 시장의 지배구조를 개편해 시장관리와 조직·예산 운영의 독립성을 높이고 유가증권시장과의 경쟁을 유도할 것”이라며 “과거 실적보다 성장잠재력 중심으로 코스닥 진입요건을 정비해 혁신기업 상장도 촉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기관투자자의 (코스닥)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코스피·코스닥 통합지수 등 새로운 벤치마크 지수를 개발하고 코스닥 기반 금융상품도 확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유가증권시장은 글로벌 시장에 부합하는 상장제도를 마련하고 상장지수펀드(ETF)와 상장지수증권(ETN)의 기초자산을 다변화하며 파생상품 시장은 KTOP30 선물, 금리 및 외환 파생상품 등을 확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이사장은 “현행 자본시장의 주문 주도형 거래구조도 시장조성자제도 등 딜러 시장의 장점을 결합해 유동성은 확충하고 변동성은 완화하는 방향으로



정지원 한국거래소 이사장

코스피·코스닥 통합지수 등 개발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구축할 것

편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그는 “신종 불공정거래에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 기반의 차세대 시장감시시스템을 조기에 가동하고 준법 컨설팅을 강화해 위법행위의 사후적 발이 아닌 사전예방 중심으로 시장감시 패러다임도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또 기업지배구조 공시제도의 단계적인 의무화, 스튜어디십 코드의 확산에 대한 의지도 밝혔다.

정 이사장은 “자본시장의 지속 가능한 성장기반도 구축해나갈 것”이라며 혁신적인 인텍스로 멀티에셋지수를 개발하고 거래정보 저장소(TR)도 차질 없이 설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해 블록체인 등 신기술의 자본시장 적용도 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병래 한국예탁결제원 사장은 “자본시장 혁신과 일자리 창출 선도”라는 경



이병래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혁신적 전자증권제도 구축 총력 빅데이터 등 단계적인 확장 계획

영목표를 제시했다.

이 사장은 “혁신적인 전자증권제도 구축을 위해 전사적인 역량을 결집하겠다”며 “내년 9월 시스템 오픈 전까지 최고 수준의 안정성과 보안성을 갖춘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개념증명에 성공한 전자투표에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예탁결제원 업무 전반에 블록체인, 빅데이터 등 혁신기술 접목 가능성을 적극 검토해 단계적으로 확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지석 코스콤 사장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매출 및 이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업 구조를 혁신하겠다. 중대형 증권사를 위한 새로운 서비스를 발굴하고 고부가가치 사업 추진을 위해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겠다”고 밝



윤용암 삼성증권 사장

“변화를 기회로” 프레임 전환 강조 한계 뛰어넘는 추가적 성장 제공

혔다.

윤용암 삼성증권 사장은 “급격한 금융환경 변화를 기회로 만들 수 있도록 사고의 프레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의 금융환경 변화는 지금까지와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속도로 전개될 것이다. 현재에서 미래로, 국내에서 글로벌로, 내 부문에서 다른 부문으로 기존에 고정돼 있던 프레임에 과감히 전환하고 확장해야만 금융환경 변화를 기회로 만들 포인트를 찾아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 사장은 또 “고객의 요구를 우리가 가진 자원만으로 충족시킬 수 없다면 국내외 다른 금융기업과의 협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이는 기존의 한계를 뛰어넘는 추가적인 성장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김원규 NH투자증권 사장은 “지속적



김원규 NH투자증권 사장

자본시장의 ‘퍼스트 무버’ 제시 고객과의 장기적 파트너십 구축

인 성장을 위해서는 또 한 번의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올해 경영 목표로 최고의 금융 가치(Financial Value)를 창출하는 자본시장의 퍼스트무버’를 제시했다. 고객과 시장의 판세 변화를 가장 먼저 읽고, 모든 사업부문에 업계 1등 경쟁력을 갖춰 고객이 먼저 찾고 가장 신뢰하는 회사로 자리매김하는 의미라는게 그의 설명이다.

이를 위해 ‘고객과의 장기적인 파트너십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사장은 “급속한 고령화와 은퇴 후 늘어난 수명으로 고객과의 관계가 장기화 될 것”이라며 “회사나 직원이 고객의 평생 파트너가 돼야 안정적인 성장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김 사장은 글로벌과 디지털을 활용한 성장동력 확보도 강조했다.

/김문호 기자 kmh@metroseoul.co.kr



2일 여의도에서 김원규 IBK투자증권 대표이사가 신년사를 하고 있다. /IBK투자증권

“초대형 IB 대비, 차별화된 전략 마련해야”

IBK투자증권 김원규 사장 신년사

IBK투자증권 김원규 사장은 2일 신년사를 통해 “초대형 투자은행(IB)의 출범에 대비해 차별화된 성장전략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원규 사장은 이날 신년사에서 “외형 기반 확대와 차별화된 영업전략을 마련해 제2의 도약을 위한 기반을 다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고객관리자산, 유효고객 수와 같은 회사 영업력을 가늠하는 지표를 획기적으로 늘릴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기존의 영업 방식으로는 새로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그는 “사업 부문별로 각종 영업 방식, 고객 관리, 조직 운영 등 모든 업무 프로세스를 재검토할 것”을 요구하며 “새로운 아이디어를 도입해 영업력을 최대로 끌어 올려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또 “중소기업과 함께 성장해나가야 한다”는 원칙을 언급하며 “업계 유일

의 공기업 계열의 증권사로 국가 경제에 이바지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IBK금융은 이미 크라우드펀딩, 코넥스, 프라이머리 CBO 등 중소벤처기업 자금조달 시장에서 선두를 차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사장은 임직원들에게 “금융그룹 네트워크와 시너지를 동원해 대기업과 공공기관, 유관 협회, 지역 우수 중소기업, 지역 특성화 대학을 대상으로 협력 네트워크를 확장하는 데 앞장서 달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 사장은 중소기업인들이 뽑은 올해의 사자성어인 ‘호시우행(虎視牛行)’과 ‘발분망식(發憤忘食)’을 언급했다.

그는 “호시우행(호랑이의 눈빛을 간직한 채 소걸음으로 감), 발분망식(일을 이루려고 끼니조차 잊고 분발, 노력 함)의 정신을 마음에 새겨야 한다”며 이를 통해 회사의 성장을 도모하는 동시에 중소기업의 든든한 지원군이 될 것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김현정 인턴기자 hjk1@

상장사들의 ‘기업 쪼개기’ 여전히 활발

회사 합병·분할 결정 공시 64건

지난해 국내 상장사들의 기업 쪼개기(분할)가 활발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8일까지 회사 합병 또는 분할 결정 등의 공시는 64건으로 전년(66건)보다 2건 줄었다.

회사합병 공시 법인은 38곳으로 13.6% 줄었고 공시 건수는 40건으로 11.1% 감소했다. 이 중 합병 상대방이 관계회사인 경우가 39건(97.5%)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비관계회사끼리의 합병은 에스지중방의 신동 흡수합병(7월 10일)이 유일했다.

합병 상대방인의 자산규모가 가장 큰 상장사는 미래에셋생명으로 합병 상대방인인 피씨에이생명보험주식회사의 자산

총액은 5조3450억원이었다.

SK의 SK마리타임(4조원) 합병이 2위, 대성산업의 대성합동지주(1조1230억원) 흡수합병이 그 뒤를 이었다.

회사분할 공시 법인은 20곳으로 11.1% 증가했지만, 공시 건수는 20건으로 전년과 동일했다.

인적분할이 9건으로 50.0% 늘었고 단순·물적분할은 11건으로 21.4% 감소했다.

인적분할은 분할 전 회사의 주주들이 지분율대로 신설법인의 주식을 받는 방식의 분할로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는 기업에서 많이 활용하는 방식이다. 물적분할은 신설법인의 주식을 기존 회사가 100% 자회사 형태로 보유하는 형식이다.

분할 신설법인의 자산규모가 가장 큰

기업은 현대산업개발로 분할 신설법인인 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주식회사(가칭)의 자산규모는 4조원에 달한다.

롯데지주의 분할 신설법인 롯데제과(가칭·자산 1조7000억원), SK케미칼의 에스케이케미칼주식회사(가칭·1조6000억원), BGF의 비지오프리테일(1조1000억원)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지난해 회사분할합병 공시 법인은 4곳 있었는데 건수도 4건으로 전년보다 3건 씩 증가했다.

분할합병 공시는 롯데그룹의 지주회사 출범에 따른 것으로, 롯데지주는 롯데제과, 롯데쇼핑, 롯데칠성음료, 롯데푸드 등 4개사를 투자부문과 사업부문으로 인적분할한 뒤 롯데제과의 투자부문이 나머지 3개사의 투자부문을 흡수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김문호 기자

신한금융투자 “우리 ISA가 달라졌어요” 이벤트

신한금융투자는 새해부터 변경되는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제도의 혜택을 알리고, 고객 자산 증대를 위해 ‘우리 ISA가 달라졌어요’ 이벤트를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ISA 가입자들은 1월 1일부터 납입원금 내 자유로운 중도 인출이 가능해지고, 서민형·농어민 ISA 가입자들의 비교سه한도도 250만원에서 400만원까지 확대된

다. 이러한 변경 사항은 기존 가입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번 이벤트는 크게 세가지로 구성됐다. ISA 가입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퀴즈이벤트로 신한금융투자 홈페이지에서 퀴즈를 풀고, 응모한 고객 중 5명을 추첨해 AIS피커를 제공한다. ISA 신규 가입한 고객 선착순 300명에게 스타벅스 기프트콘을, 타사에서ISA 계좌를 이전해온 선착



순 100명에게 이마트 모바일 상품권을 제공한다. ISA계좌에 100만원 이상 납입한 고객 전원에게 마이신한포인트 1만점을 지급한다. ‘우리 ISA가 달라졌어요’ 이벤트는 3월 31일까지 진행된다. /김문호 기자

“새해에도 율로”... 유통가 소비 키워드 ‘자기만족’

〈현재 자신의 행복을 가장 중시하고 소비하는 태도〉

가격 상관없이 지갑 여는 소비 늘어
개인 욕구·당장의 만족도 중요해져
지금 즐기는 삶의 태도 자리 잡아

올해 유통업계에서는 자기 만족을 위해 가격에 상관없이 과감히 지갑을 여는 소비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2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G마켓과 옥션을 운영하는 이베이코리아, 소셜커머스 티몬 등이 온라인 쇼핑 트렌드를 이끄는 키워드로 ‘자기만족’을 선정했다.

이베이코리아는 올해 키워드로 ‘나심비’를 꼽았다. 나심비는 나의 만족을 위해서는 가격에 상관없이 과감히 지갑을 여는 소비심리를 반영한 키워드다. 이에 따라 개인의 욕구가 크게 반영된 소비, 당장의 만족도가 뚜렷하게 느껴지는 상품들이 주목 받을 것으로 예측된다.

우선 이베이코리아는 일상생활의 자동화를 통해 시간을 효율적으로 아낄 수 있는 가전제품에 주목했다. ‘식기세척기’, ‘로봇청소기’가 대표적이다.

실제로 지난해 이베이코리아에서 판매된 식기세척기와 로봇청소기는 전년(2016년) 대비 각각 31%와 101% 증가했



이베이코리아가 올해 쇼핑 키워드로 '나심비'를 꼽았다.

/이베이코리아

다. 최근 대기업을 비롯해 중소기업에서도 가성비가 뛰어난 관련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고가의 취미용품 또한 수요 전망이 밝다. 100만원을 호가하는 고가의 '드론'을 비롯해 이미지보다 영상물을 선호하는 소셜네트워크(SNS)세대를 기반으로 한 전문가 사양의 '액션캠' 수요가 크게 늘

것으로 이베이측은 보고있다. 최근 3년 내 드론과 액션캠의 객단가는 연평균 15%씩 증가하고, 판매량 역시 연평균 50% 이상 꾸준히 성장하는 추세다.

먹거리에서는 맛보다 개인의 건강과 편의를 강조한 식품이 뜰 것으로 전망된다. 친환경 원재료를 활용한 '웰빙 간편식'이나 개인의 기호에 맞춘 '콩고기 제

품', 고급레스토랑의 맛을 재현한 '프리미엄 간편가정식' 등이 대표적이다.

패션 분야에서는 '놈코어 룩(Norm core look)'이 대중적인 스타일로 다시 자리 잡을 것으로 보인다. 놈코어 룩은 화려함보다 평범한 디자인을 우선으로 착용 시 느끼는 편안함에 주목하는 트렌드를 의미한다. 보여주기 식의 디자인보다는 개인의 편의와 실속에 더 치중하는 것이다.

전항일 이베이코리아 영업본부 부사장은 "올해도 여전히 불황과 고물가로 소비 심리는 위축되었지만 '율로', '나심비', '워라벨' 등 지극히 '개인의 만족'을 강조하는 사회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새로운 양상의 소비 패턴이 자리잡게 됐다"며 "가치소비를 추구하는 소비 트렌드가 더욱 확고해지면서 철저히 개인의 수요에 맞춘 제품들의 인기가 두드러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소셜커머스 티몬도 자기만족을 위한 아이템에 주목했다.

실제로 티몬이 2030세대 고객의 최근 2개월 매출을 분석한 결과 게임과 아이돌굿즈, 여행 등 자기만족 상품군의 매출이 증가했다. 대표적으로 보드게임 및 RC카 20대 매출은 342%, 30대는 233%

상승했다.

아이돌굿즈 또한 자기만족 아이템으로 꼽힌다. 생활 필수품은 아니지만 소통과 공감, 유대감을 느낄 수 있는 '감정 필수품'에 가까이 지갑을 여는 2030대가 많아진 것이다. 20대 아이돌굿즈 매출은 965%, 30대 매출은 442% 상승했다. 12월에 판매한 워너원 교통카드 역시 2주만에 4억원 넘게 판매됐다.

여행 인기도 지속되고 있다. 해외 자유 여행을 위해 구입하는 해외 현지 입장권, 데이투어 매출 역시 20대에서 209%, 30대에서 217% 상승했다.

미래를 준비하기 보단 현재를 즐기는 데 중점을 둔 젊은층의 삶의 태도가 생활 속 깊게 자리 잡으면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즐거운 경험이 가치를 두는 소비 패턴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재영 티몬 최고전략책임자(CSO)는 "2030대를 중심으로 '열심히' 보단 '즐거움' 삶을 추구하는 경향이 늘고 있다"며 "게임과 여행은 물론 자신과 감정적인 교감을 불러일으키는 아이돌굿즈까지 올해도 자신의 만족감을 중시하는 삶의 태도가 소비 패턴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유진 기자 ujin6326@metroseoul.co.kr

대형유통업체 '구두 발주' 甲질, 과징금 낸다

공정위,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개정안
계약서 기재사항에 '수량' 항목 추가



공정거래위원회

납품업체에게 미리 준비시키는 경우 그 수량을 적은 계약서나 발주서를 납품업체에게 쥐어 한다.

이를 위반하면 관련된 납품 대금 산정이 가능한 경우 그 납품 대금의 100%까지, 위반 행위와 관련된 납품대금 산정이 어려운 경우 최대 5억원까지 과징금이 부과된다.

공정위 측은 시행령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대형유통업체의 구두발주 행위가 줄어들고 납품업체와의 서면 계약 문화가 점차 자리잡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발주 시점부터 수량을 명확히 적게 되면 대형유통업체가 구두발주 후 상

품 수령을 거부하거나 부당하게 반품하는 행위도 예방할 수 있어 납품업체의 애로가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액 산정 기준, 과징금 중·감경 요건 등이 시행령에 직접 규정됨에 따라 과징금 부과 행정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며, 과징금 상한액 결정에 필요한 '관련 납품 대금' 산정 방식도 개선되어 과징금 산정의 합리성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개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 등의 절차를 거쳐 조만간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된 날부터 즉시 시행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새로운 제도가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대형유통업체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라며 "지난해 발표된 '유통분야 불공정 거래 근절 대책'의 실천 과제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인용 기자 parkiu7854@

나뽀루팜, 아이스크림 풍두·라떼 3종 출시

나뽀루팜이 신년을 맞아 아이스크림 풍두와 프리미엄 아이스크림 라떼 3종을 출시한다고 2일 밝혔다.

신제품 '아이스크림 풍두'는 미니 아이스크림 5가지 맛(그린티클레식·정열의홀라망고·클래식밀크·민트레오파드·코코스트로베리)과 브라우니, 치즈케이크, 계절과일 2종을 초콜릿 소스에 찍어 먹는 재미를 더한 제품이다.

프리미엄 아이스크림 라떼 3종은 스트로베리, 민트초코, 바닐라카라멜 3종 제품으로, 각각 코코스트로베리, 민트레오파드, 바닐라라떼 아이스크림 플레이어를 우유와 함께 스티밍해 부드러움을 느낄 수 있다.

아이스크림 풍두는 직영점 매장에서 1만2000원에 판매하며, 프리미엄 아이스크림 라떼 3종은 특수 매장을 제외한 나뽀루팜 전 매장에서 5200원에 판매한다. 나뽀루팜은 신제품 출시를 기념해 신



나뽀루팜이 아이스크림 풍두 디저트와 프리미엄 아이스크림 라떼 3종을 출시한다. /나뽀루팜

제품 아이스크림 라떼와 풍두 매뉴 구매 고객에게는 담요와 쿠션, 방한토시 3가지 기능이 가능한 말랑토끼 무릎담요&쿠션을 9900원에 판매한다.

또한 신년을 맞아 오는 15일까지 5가지 맛을 선택할 수 있는 파티컵을 약 30% 할인한 1만2000원에 판매하는 할인 이벤트도 운영한다. /박인용 기자

이마트 '진귀한 수산물 모음전'

이마트는 새해를 맞아 국내 어장에서 잡아올린 진귀한 수산물을 한 데 모은 '새해 진귀한 수산물 모음전'을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평소 마트에서 쉽게 접할 수 없었던 흑산도 참홍어를 비롯해 동해안 활해삼, 왕피조개 등 프리미엄 수산물을 사전기획을 통해 가격을 대폭 낮추어 판매하는 것이 특징이다.

흑산도 참홍어는 흑산도 수협으로부터 원산지 증명코드를 부여받은 '정품' 흑산도 홍어다. 평소 마트에서는 아르헨티나산 등 수입 홍어를 판매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에는 새해를 맞아 이례적으로 '홍어 원조'인 흑산도 홍어를 들여와 판매한다.

삭하지 않은 생홍어로 삭하지 않고 탕 요리 등을 하거나 기호에 따라 집안 배란다 등에서 원하는 만큼 삭혀 먹을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김유진 기자



"무술년 설 선물은 신세계 상품권으로"

2일 오전 서울 용산구 이마트 용산점에서 모델들이 무술년 설을 앞두고 신세계 상품권을 선보이고 있다. 이마트는 전국 이마트 점포에서 신세계 상품권을 판매하여, 1000만원 이상 구매고객에게는 금액대별로 0.5~2.5%에 해당하는 상품권을 추가로 증정한다. /연철뉴스

11번가, 마트 카테고리 강화... '메가 딜' 운영

11번가가 새해 마트 카테고리 상품을 강화해 고객들이 번거롭게 가격비교 할 필요 없는 '편한 장보기'를 선보인다.

SK플래닛 11번가는 국내 최저가 수준의 인기 상품을 집중적으로 판매하는 '메가 딜'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첫 행사로 1월 한 달간 매일 식품, 생활용품, 유아용품 등 마트 상품 중 하나를 저렴하게 판매하는 '원 데이 원 딜(1Day 1Deal)' 프로모션을 실시한다.

평소보다 저렴하게 내놓은 기획상품이

지만 물량을 충분히 확보해 많은 고객들이 구매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11번가는 올해 마트 상품의 경쟁력을 더욱 키워 나갈 계획이다. 일상생활에서 매일 사용하는 마트 상품의 경우 자주 구매해야 하지만 여러 온라인몰에서 판매하는 수많은 상품들과 일일이 가격을 비교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11번가는 이 같은 수고를 없애 고객들이 믿고 반복 구매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김유진 기자

아리따움, 로열티 프로그램 '스마트클럽' 선포

아모레퍼시픽은 자사 편집샵 아리따움이 새로운 고객 로열티 프로그램 '스마트클럽'을 선포한다고 2일 밝혔다. 스마트클럽은 다양한 뷰티 아이템을 쇼핑할 수 있도록 혜택과 서비스를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우선 소비자의 니즈에 따라 혜택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가입 방식을 두 가지로 마련했다.

가입비 1만 5000원을 내면 원하는 상품으로 교환이 가능한 2만원 상당의 기프트카드를 받을 수 있다. 또 가입이 3만원을 내면 아리따움에서 엄선한 최대 4만5000

원 상당의 베스트 아이템 키트를 제공한다. 스마트클럽에 가입한 고객은 10%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생일 쿠폰 지급, 연 1회 무료 피부 검진 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또 상반기 20만원 이상 구매 고객은 '프라이빗 클럽'으로 선정해 스마트클럽 혜택의 두 배인 상시 20% 할인과 수퍼쿠폰 2매를 지급한다.

스마트클럽은 아리따움 매장과 아리따움닷컴, 아리따움 APP을 통해 가입 가능하다. /김유진 기자

‘예비창업자 주목!’ 2018 창업 트렌드는?

여성·어린이·솔로 공략...가성비 넘어 ‘가심비’

여성·어린이·솔로이코노믹 공략
행복·가치기반의 건강·환경·여행
VR 등 4차혁명 관련 아이템 눈길



/픽사베이

지난 2017년은 지속된 경기 불황과 먹거리 파동, 프랜차이즈 갑질 논란, 소비침체 등으로 힘든 한 해였다. 이러한 여러 가지 이슈들을 뒤로 하고 2018년 가장 영향력을 미칠 창업 트렌드는 윌로라이프의 확산과 가성비(가심비), VR의 발전과 활용, 합리적가격, 여성과 어린이, 솔로이코노믹 그리고 서비스테크놀로지의 보편화라고 할 수 있다.

2일 한국소상공인컨설팅협회가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프랜차이즈컨설팅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2018년 가장 영향력을 미칠 창업 트렌드는 윌로라이프의 의미와 같이 자신의 소비 초점을 행복과 가치기반에 두면서 건강, 환경, 품위, 만족을 위한 소비충족의 트렌드가 확산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 가성비(가심비)의 만족도를 넘어 소비에 따른 심적 만족감, 즉 가심비의 상승을 중요시 하는 소비 형태 변화가 예상된다.

첨단기술의 발달로 가상현실 시장의 확대에 따라 VR(가상현실) 아이템의 성

장도 한편으로 기대된다. 최근 게임과 학습, 체험을 가상현실에 활용한 아이템들이 성장하고 있고 컴퓨터와 증강시물레이션의 성장과 함께 관련 산업의 성장도 예상된다. 하지만 창업 아이템으로의 투자는 면밀한 점검이 필요하다. 특히 관련 아이템의 발전속도와 소비자의 지속소비가 다양하게 나타남에 있어 지속적 소비를 통한 수익성 여부와 관련 프로그램의 사행성, 폭력성 등이 우려로 대두되는 현실을 인식하고 관련장비의 사후관리까지 세심히 고려한 후 창업아이템으로의 선정이 필요하다.

소비자 만족도의 극대화를 위한 가성비(가심비)는 소비자의 마음적 만족을 위한 서비스의 발달과 품질의 향상을 요약한 가심

비의 성장에 주목할 수 있다. 불황에도 꾸준한 소비력의 주체는 여성과 어린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여성들과 어린이들은 적극적인 소비의 대상이자 주체로 등장함에 따라 브랜드 중심형 소비의 지속과 함께 합리적 가격을 위한 경제적 소비의 주체가 될 것으로 판단한다.

올해 최저시급의 사상최대폭 상승으로 인건비에 부담이 창업과 노동계에서 큰 이슈다. 그러한 환경을 극복하기 위한 방향의 일환으로 몇 년 전부터 증가하기 시작한 키오스크를 활용한 인건비 절감 운영형태가 증가하고 있다.

일본은 패스트푸드업종과 라면 규동 등 소위 말하는 소자본 창업아이템 업종에서의 키오스크 운영은 대중화 보편화가 현실이다. 이는 인건비의 상승과 경성비중 관련 부분의 확대에 따른 경영악화를 막기 위한 방향이기도 하다. 따라서 국내에서도 관련사항을 도입하는 브랜드들이 증가하면서 소비자들의 서비스에 대한 기본 개념의 변화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와 비교해 올해 창업관련 키워드는 많은 부분에서 일치한다. 합리적 가격, 솔로이코노믹, 서비스테크놀로지, 가성비 등 경기상황과 같은 맥락에 의한 소비 트렌드를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소자

본과 일인운영 아이템으로 실생활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의 긍정적 소비가 향상 될 것이다.

솔로이코노믹의 주체 청·장년층을 대상으로 대부분의 소비형태가 나타나며 그들을 목표로 한 창업 아이템들의 선전을 기대할 수 있다. 배달앱이나, 대행앱 등을 통해 서비스 산업이나 아이템들이 급격한 성장을 하고 있다. 이는 구매의 패턴과 형태가 스마트폰을 활용한 기술력 기반형 구매의 성장에 기인한다. 이러한 트렌드와 관련해 합리적 가격 지향의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환경개선업, 세탁편의점, HMR아이템, 복합형태의 테이크아웃 치킨아이템, 여행업, 샌드위치음료전문점, 건강관련헬스클럽, 구매대행소핑몰 등이 우수한 아이템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전반적인 올해 창업시장은 참 힘든 시간이 될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인건비의 상승, 경기하락의 심화, 정치적 격랑에 따른 불안정, 복핵으로 인한 사회적 불안감 증폭 등 많은 부분에서의 심리적 불안감 지속이 예상되는 환경이다. 따라서 창업시장의 둔화가 예상되며 창업보다 수성을 위한 창업전략이 필요하다. 한 마디로 ‘리스크 관리형 창업’이 필요한 시기다.

/박인용 기자 parkiu7854@metroseoul.co.kr

창업단신

▲배스킨라빈스, 1월 이달의 맛 ‘더블 바닐라 초콜릿’

배스킨라빈스가 2018년 첫 번째 이달의 맛으로 ‘더블 바닐라 초콜릿’을 출시했다. 고 밝혔다. 달의 케이크 ‘롱이어밤의 해피 하우스’, 음료 ‘더블 바닐라 초콜릿 와썹류 셰이크’, 디저트 ‘달리셔스 콘테이너 쿠키 앤 크림’과 ‘달리셔스 콘테이너 고구마와 밤’도 새로 선보였다.



▲피자알블로, 생활밀착형 지원으로 가맹점주·직원 만족도 ↑

피자알블로가 핫팩 나눔, 간편 청소 지원, 겨울용 점퍼 지원 등 매장 운영 및 업무에 꼭 필요한 생활밀착형 지원을 통해 가맹점주와 상생을 이어가고 있다. 피자알블로는 이번 겨울 힘들게 일하는 배달 직원들을 위해 조금이나마 따뜻하게 배달을 다닐 수 있도록 전국 280개 매장에 핫팩 및 2018년 다이어리 등을 지원했다.



▲뚜레쥬르, 새해 맞이 제품

뚜레쥬르가 ‘황금 개피의 해’ 무술년(戊戌年)을 맞아 올 한해 행운과 복을 기원하는 신년 제품을 출시한다. 이번엔 선보이는 제품은 황금개피의 활기찬 기운을 담은 이색적인 모양이 특징이다. ‘희망 담은 고구마크림 브레드’는 강아지 모양으로 만든 빵으로 고구마 크림을 넣었다.

▲BBQ, 새해 첫 출근길 격려 캠페인

BBQ가 2일 서울 여의도에서 오전 6시부터 8시까지 새해 첫 출근길에 나선 직장인들 1500여명에게 따뜻한 닭곰탕을 나눠 주는 캠페인을 실시했다. /박인용 기자



시무식 신년사하는 박원순 서울시장

박원순 서울시장의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2018 서울시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하고 있다. /손진영기자 son@

‘최저임금 인상’ 부담 커진 소상공인 지원

서울시 ‘일자리 안정 자금’ 접수
노동자 1인당 월 13만원 지급

서울시가 2일부터 서울전역 426개 동 주민센터에서 ‘일자리 안정 자금’ 접수를 시작한다.

일자리 안정 자금은 올해부터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전년 대비 16.4% 인상돼 임금 부담이 커진 소상공인과 영세기업 사업주를 지원하는 정부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30인 미만 고용사업주다.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 노동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해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된다. 정규직과 계약직, 일용직, 단시간 노동자 누구나 지원 받을 수 있다. 일용노동자는 월 실근무일수가 15일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은 상용·일용과 고용보험 적용 제외자를 포함해 30인 이상인 사업주도 지원받을 수 있다.

반면 과세소득 5억원을 초과하는 고소득 사업주와 임금체불 명단 공개사업주, 국가 등 공공부문,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이범중 기자 joker@

지원금액은 노동자 1인당 월 13만원이다. 주 40시간 미만 노동자는 노동시간에 비례해 지급한다. 아울러 지급방식은 연중 1회만 신청하면 매월 자동 지급된다. 현금 지급과 사회보험료 대납 중 사업주가 직접 선택할 수 있다. 또한 신청 이전 월에도 지원요건을 충족했다면 소급해 일괄로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시간에 쫓기는 소상공인·영세기업 사업주를 위해 동 주민센터 내 전담창구를 마련하고 담당 인력을 배치해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을 안내한다.

시는 이를 위해 지난달 20일 안정자금 업무 담당자에게 실무 교육을 실시했다. 효율적인 안정자금 신청을 위해 근로복지공단 등과 핫라인도 구축했다.

아울러 지원대상 사업주가 몰라서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치구·유관단체와 협력해 홍보물을 제작·배포하고, 소식지에 게재하고 있다.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은 가까운 동 주민센터와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등 4대 사회보험공단 지사와 고용노동부 고용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우편·팩스로도 신청할 수 있다. /이범중 기자 joker@

제천화재에도 정신 못차린 서울 목욕탕

3곳 중 1곳 불나도 대피 못해

불시 점검서 120개소 위법 적발
비상구 막히고 소화전 앞 창고로

충북 제천 화재 사고 이후에도 서울시내 목욕탕 상당수가 안전 관리에 소홀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지난해 12월 22일~28일 서울시내 찜질방과 목욕탕 319개소를 소방특별조사(불시 점검)한 결과 120개소에서 소방 법규 위반 사항 330건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달 발생한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와 같은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 진행됐다.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제천 화재 사고의 경우 20명이 사망한 2층 여성사우나는, 피난통로에 목욕물품 선반을 설치, 피난통로를 막아놓아 탈출구를 찾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질식사 했다”며 “유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했다”고 말했다.

특별조사반은 ▲비상경보설비와 방송설비 등 화재경보설비 정상상태 유지관리 여부확인 ▲피난통로 상(복도중점) 장애물 설치 여부 ▲목욕용품 선반 등의 피난로 상 적치로 인한 긴급피난 장애 여부 등을 살펴봤다.

조사반 단속결과 319개소 중 120개소에서 위법사항 330건이 적발됐다. 소방재난본부는 46개 대상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74개 대상에 시설물 원상복구 조치명령과 기관통보조치를 했다.

주요 위반사항은 ▲목욕장이나 찜질방내에서 비상구로 나가는 피난통로상에 장애물을 설치하거나, 합판을 설치해 화재시에 대피가 불가능한 상태로 적발된 곳이 38건 ▲방화문에 이중닫문(유리문)을 설치해 방화문을 열고 나갈 수 없게 한 곳이 7건 ▲한중



(위쪽부터)목내 소화전 앞이 창고로 사용되는 모습. 피난 통로를 막고 있는 모습. /서울시

막이나 탈의실에 피난구 유도등을 미설치하거나 철거한 상태로 적발된 곳이 8건 등 269건이다.

소방재난본부 특별조사반 관계자는 “방화문에 유리문을 이중으로 설치해 놓은 사례가 다수 적발 됐다”며 “비상구 문은 피난 방향으로 밀어 열수 있어야 하는데, 덧문은 당겨서 열 수 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화재 시 다수가 일시적으로 몰리면 문을 당겨 열지 못해 대피하지 못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서울 소방재난본부는 제천 스포츠센터에서 나타난 소방안전에 대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필로티형 주차장에 스프링클러 헤드를 설치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용접 작업 시에는 불티 비산 방지망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지도하며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고 소방차 통행로면 표시 ▲소방통로확보와 현직적응 훈련 등을 강화 해나갈 방침이다 /이범중 기자

시몬스 침대
현대백 압구정점
팝업스토어 오픈

시몬스 침대가 스페셜 팝업스토어로 고객과 만난다. 시몬스는 현대백화점 압구정점에서 팝업스토어를 선보인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대표 매트리스 컬렉션 ‘뷰티레스트’와 가구 및 생활 가구 컬렉션 ‘케노샤’로 구성된다. 리뉴얼 매트리스 4종과 케노샤의 가구를 한자리에서 볼 수 있다. 방문 고객에 한해 상품별로 가격 할인 혜택도 제공한다. 또 시몬스 전문 슬립마스터의 일대일 수면 큐레이팅과 더불어 제품 체험 기회도 가능하다.

뷰티레스트는 시몬스의 대표 매트리스 컬렉션이다. 다양한 수면 습관에 맞춘 매트리스 설계와 디자인으로 소비자의 주목을 받아왔다. 케노샤는 소파, 테이블, 침대 커버 등 생활 가구 및 욕실 용품을 판매한다. 소파의 경우 고품질에 착한 가격을 갖췄다는 평가다.

한편 이번 특별 팝업스토어는 이달 14일까지 운영된다. /임현체 기자 ih@



/시몬스



확.실.한

정년 보장을 원하는가?



캐치 기업정보 -
catch.co.kr

기업분석	추천기업	기업비교	테마기업
<p>#재무평가 #재직자평판</p> <p>5만 3천개 기업별 정량, 정성정보</p>	<p>#재무우수기업 #평판좋은기업</p> <p>캐치가 추천하는 숨어있는 알짜기업</p>	<p>#기업VS기업 #기업규모VS직원복지</p> <p>궁금한 기업을 한 눈에 비교분석</p>	<p>#자율출퇴근실행기업 #연봉인상을높은기업</p> <p>다양한 테마별 기업을 모아서 소개</p>
진단	캐치뉴스	캐치캐스트	채용정보
<p>#직무적성 #조직적합도</p> <p>6개의 진단을 통해 찾는 평생직장</p>	<p>#이슈캐치 #기업속사정</p> <p>취업정보를 원하는 구직자를 위한 다양한 뉴스</p>	<p>#취업학개론 #재직자인터뷰</p> <p>취업뉴스를 재미있고 솔직하게 보여주는 영상</p>	<p>#채용공고 #기업인재상</p> <p>인턴, 신입, 경력 등 구직자를 위한 최신 정보</p>

김지완 “전 계열사 뭉쳐 그룹 경쟁력 높이자”

(BNK금융그룹 회장)

BNK금융그룹, 2018 그룹 시무식

김지완 BNK금융지주 회장이 2018년 전략 과제인 ‘수익성·건전성 중심의 내실경영’ 등을 제시했다.

BNK금융그룹은 2일 김지완 회장이 부산 은행 본점에서 ‘2018년 그룹 시무식’을 열고 올해 경영방침을 ‘그레이트 하모니(Great Harmony) 2018, BNK 신(新) 경영플랫폼 구축’으로 선포했다고 밝혔다.

BNK금융은 정도경영, 윤리경영을 바탕으로 지주사를 중심으로 전 계열사가 ‘원 컴패니(One Company)’ 이상의 대화합을 통해 강력한 시너지를 창출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그룹 경영화두는 모든 임직원이 한 마음으로 경영 목표를 달성하고 지역기업과 고락을 같이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더욱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담아 ‘단료투전’으로 정했다.

올해 6대 전략과제로는 ▲CIB(기업투자금



BNK금융그룹은 부산은행 본점에서 ‘2018년 그룹 시무식’ 개최했다.

/BNK금융그룹

용), WM(자산관리), 디지털, 글로벌 등 핵심 사업 그룹 시너지 극대화 ▲그룹 디지털 역량 강화 ▲수익성, 건전성 중심의 내실경영 ▲그룹 경영 효율성 극대화 ▲글로벌 인재 양성과 기업문화 재정립 ▲사회적 책임경영 적극 실천’으로 정했다.

김지완 회장은 이날 신년사에서 “올해 무술년은 BNK금융그룹의 새로운 반세기가 시작

되는 해로 전 계열사가 하나로 뭉쳐 그룹의 경쟁력을 더욱 높여 나가자”고 말했다.

이어 그는 “기업가치 10억 달러 이상의 유니콘(Unicorn) 스타트업이 지역에서도 탄생할 수 있도록 창업 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하고 서민 금융 강화와 생산적 금융, 포용적 금융 실천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채신화 기자 csh9101@metroseoul.co.kr

현대백화점그룹, 연탄 나눔 시무식

현대백화점그룹이 2018년 새해 첫 업무를 나눔 봉사활동으로 시작했다. 현대백화점그룹은 서울시 노원구 중계본동 백사마을을 찾아 ‘연탄 나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연탄 나눔 봉사 시무식에는 지난해 입사한 신입사원을 비롯해 각 계열사 임직원과 고객 봉사단 등 200여 명이 참여했으며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연탄 4500장을 직접 전달했다. 사진은 2일 서울 노원구 중계동 백사마을에서 현대백화점그룹 임직원과 고객 봉사단이 저소득층 가구에 연탄을 직접 나르고 있다.



/현대백화점그룹

공정위, 2017 올해의 공정인 배현정·박정현 사무관 선정

공정거래위원회는 2017년 ‘올해의 공정인’으로 배현정 사무관(소비자거래심판담당관실·사진 왼쪽)과 박정현 사무관(지식산업감시과·사진 오른쪽)을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배현정 사무관과 박정현 사무관은 이동통신 표준필수특허 라이선스 시장과 모뎀 칩셋 시장에서 시장지배력 지위를 남용한 쉐도우를 공정위가 적발·제재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이들의 노력에 힘입어 공정위는 쉐도우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역대 최대 규모인 총 1조30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무엇보다 이 조치는 유럽, 미국, 대만 등 주요 경쟁국들이 조사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공정위가 최초로 쉐도우의 부당한 비즈니스 모델을 근본적으로 시정했다는 점에서 더 큰 의의가 있다.

배현정 사무관과 박정현 사무관은 “우리 경제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정보 통신 기술(ICT) 산업에서 독과점 폐해를 시정했다는 데 보람을 느낀다. 앞으로도 지식 산업 분야의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박인용 기자

유한양행 2018 시무식... “말은 바 소임에 최선을”



유한양행이 2일 시무식을 진행했다.

/유한양행

유한양행은 2일 본사 임직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 시무식을 갖고 무술년 새해 새로운 각오를 다졌다.

유한양행은 올해의 경영슬로건을 ‘새로운 도전, 새 가치 창조’로 정해 미래에 도전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자 하는 의지를 밝혔다.

이를 위해 교육(教育), 사유(思惟), 실행(實行)을 실천 지표로 삼아 인재 양성, 창의적 사고, 즉시 행동하는 기업문화를 지속적으로 구축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정희 사장은 신년사를 통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자기개발’, ‘창의’ 그리고 ‘행동’이며, 우리 회사가 변화와 혁신을 통해 미래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가기 위해 우리 모두가 자기개발을 게을리 하지 않고, 남다른 창의력과 앞선 행동으로 말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시무식 이후 임직원들은 새해 인사를 나누며, 무술년의 첫 날을 힘차게 출발했다.

/박인용 기자 parkiu7854@

신점[神占] 운세 1월 3일 (음 11월 17일)

힐링운세 (www.healingunse.com) 060-800-8877



48년생 계획한 일이 있으면 과감히 밀고 나가세요. 60년생 차량사고를 조심하세요. 72년생 부정한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84년생 많은 사람이 귀하를 돕습니다.



49년생 고생 끝에 낙이 옵니다. 61년생 지나친 욕심은 화를 부르는 법입니다. 73년생 되어도 늦게 이루어지니 더 노력하세요. 85년생 포상이나 승진수 있겠습니다.



50년생 오늘 하루 자중하세요. 62년생 쓸데 없는 곳에 마음 태우지 마세요. 74년생 공허로운 재물을 탐하지 마세요. 86년생 작은 것이 쌓여 큰 것을 이루니 차근차근 성취하세요.



51년생 술집에 가까이 가지 마세요. 63년생 주변에 휩사이지 마세요. 75년생 유혹의 유혹을 이겨내도록 하세요. 87년생 내일은 변할 것입니다.



52년생 정성을 다해 기도하면 길합니다. 64년생 과음은 절대 피하세요. 76년생 시비에 가담치 마세요. 88년생 금전거래를 하면 불리합니다.



53년생 가벼운 약속은 나중으로 연기하세요. 65년생 노력에 공전하고 손실이 있겠습니다. 77년생 말을 조심해 구설을 차단하세요. 89년생 소망이 너무 큰 것이 탈입니다.



54년생 여행은 나중으로 연기함이 좋겠습니다. 66년생 오래 전 약속한 것을 지키도록 노력하세요. 78년생 작은 것에 신중하세요. 90년생 당신의 능력을 심분 발휘할 기회가 오고 있습니다.



55년생 작은 소망은 이루어집니다. 67년생 성에 차지 않더라도 당분간 만족하고 자중하세요. 79년생 백년해로할 배필을 만납니다. 91년생 가만 있으면 중간이라도 갑니다.



56년생 중요한 업무는 두번 세번 확인하세요. 68년생 부정한 방법은 마음에 담아 두지 마세요. 80년생 매사에 조심하세요. 92년생 떠난 연인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57년생 둘다리도 두리려야 합니다. 69년생 몸을 항상 따뜻하게 하세요. 81년생 내 것인줄 알았는데 옛 주인이 따로 있습니다. 93년생 급하게 앞서가지 마세요.



58년생 지출이 늘겠습니다. 70년생 어려운 일이 잘 풀리니 바쁠 것도 없습니다. 82년생 급할수록 돌아가면 일이 잘 풀립니다. 94년생 마음을 달래 줄 벗이 찾아옵니다.



59년생 휴식이 꼭 필요한 시기입니다. 71년생 손실만 있고 이득은 없습니다. 83년생 좋은 친구랑 여행을 떠나세요. 95년생 적당한 선에서 만족하세요.

SUDOKU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 듬뿍! 아이큐 쑥쑥!

1.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2.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3. 가로·세로3×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전화운세상담 홍카페 10분 무료상담 이벤트!
홍카페 접속 후 회원가입시
추천인 아이디에 METRO 입력하면 10분 무료상담!!
타로, 연애, 심리 1:1 전화상담 홍카페
(www.hongcafe.com)

		9	7	2	5			
	4		5		8		3	
		5			2			
	8						6	
7	5		6				4	3
	3	2	4		5			
1		6		9				8
	9		1		7		2	

						9		
6			5	3				
		5			2	9		
1			4			5		6
		8	6					9
	5			1	3		7	
8				2		7		
	3		8					
		4			6			5

스도쿠 정답

9	7	5	8	6	2	1	3	4
8	4	3	1	9	7	5	2	6
1	5	6	2	4	8	3	9	7
2	8	1	9	6	2	5	7	3
3	9	1	5	7	4	8	6	2
5	6	2	8	9	1	7	3	4
6	1	2	9	7	5	4	8	3
4	8	9	6	3	1	7	2	5
7	8	5	1	2	6	9	4	3
8	5	9	4	6	7	1	2	3
6	2	9	1	7	8	4	5	3
1	7	4	5	2	6	9	8	3
7	8	6	2	9	5	3	1	4
2	6	1	5	9	8	7	4	3
9	4	8	6	7	2	3	1	5
4	1	6	2	9	1	7	5	8
8	7	3	7	5	1	6	9	2
5	9	7	6	8	1	4	2	3

문제 제공: 보너스

‘김상희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뚝배기



김 주 식
세태 만화경

첫 해가 불쑥 떠올랐다. 나는 새해가 되면 운동회의 달리기를 상상하곤 한다. 하얗게 줄친 출발선에 발을 굳게 내디뎠던 그 맹랑한 모습을. 새로운 시간과 스키는 시간과의 맞바람 속에서 머리카락이 나부꼈다. 험령한 운동화의 끈을 꼭꼭 동여매며 얼마나 두근거렸던가. 눈빛은 또랑또랑 빛났다. 전력 질주할 태세였다. 목표 지점은 가마득했지만, 마음은 벌써 결승 테이프에 달려가 있었다. 심호흡을 했다. 그러다 출발 신호가 메아리치면 찢 먹던 힘을 다해 내달렸다. 그렇게 한해를 달려갈 달력을 바라본다. 365일 코스. 그 출발선 앞에 서면 매년 그랬듯이 설레고 긴장된다. 이제 이 끝이 나서 무덤덤할 만도 하련만 미지의 세계를 탐험하듯 여전히 나를 흔든다. 끊이치는 쉼 두 개의 주일을 거쳐, 스무네 번의 절기 변화와 네 번의 광활한 계절을 지나, 열두 산맥을 넘어야 하는 대장정! 달력 속에 펼쳐진 하루하루의 백넘버들을 어루만져 본다. 묘한 열기가 느껴진다. 박동치지 않는 날짜들이 없다. 살아 숨 쉬는 소중한 날들이다.

새해는 이리 가슴 벅차게 밝아왔다. 새해의 커튼을 여는 초읽기에 들어갔을 때 한 초 한 초가 그렇게 소중한 수가 없었다. 금쪽같은 시간을 실감했다. 삶을 가꾸고 꽃피우게 할 살아 있는 세포들이니 그럴 것이다. 아, 이렇게 눈으로 보고 서야 시간의 귀함을 깨닫게 되는구나. 이런 생각도 스친다. 시간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어지지만 사용하기에 따라선 그 총량의 무게가 다르고, 시간 세포에 온도차가 있을 거라는 것을. 그래서 삶의 질이 달라질 거라는 것을. 동산에 올라 해를 바라보며 두 주먹을 불끈 쥐어본다. 해는 태생적으로 신비하다. 매 순간마다 다른 모습으로 다가온다. 그것은 우리네 마음을 읽고 그대로 비춰주기 때문일 게다. 희망으로 보면 희망으로 응답하는 것이다. 삶이 팍팍할 때 문득 고개를 들어 해를 바라보는 것은 어쩌면 그런 에너지를 얻고자함인지도 모른다. 올해도 전국의 일출 명소마다 수십만 명이 북적거렸더라. 찌든 일상을 불태우고 새 소망을 축원했으니 해에게서 희망을 보았을 게다. 시작이라는 출발에는 종착역이 있다. 사람들은 새 아침에 저마다의 종착역에 간판을 내걸었을 터다. 행복한 삶을 살아갈 가치들이다. 며칠 전 우연히 한 음식점에서 혼밥을 하면서 그 하나를 건졌더라. 음식점은 가게들이 어깨를 맞대

고 이어진 좁은 골목 안쪽에 들어앉아 있었다. 메뉴는 서너 종류가 보였다. 냉큼 부대찌개를 주문했는데, 이 가게 간판 메뉴여서 만은 아니었다. 문을 열고 들어올 때부터 푸푸 끓으며 군침을 돌게 한 그것이 강력 추천하고 있었다. 반찬이 나오기에 부대찌개도 곧 등장하겠거니 생각했다. 가스레인지 위에 냄비째 올라오면 옆 테이블처럼 군침 돌게 끓일 참이었다. 그런데 무슨 영문인지 한참을 기다려도 나오지 않는다. 마음은 일찌감치 찜뚱을 꿰고 있었는데, 웬걸 뚝배기를 내놓는다. 잘못 가져왔나? 싶었는데 주인아저씨가 주문한 부대찌개란다. 주방에서 직접 끓였다는 설명도 곁들였다. 오래 달궈졌는지 뚝배기는 보글보글 맛갈스럽게 끓고 있었다. 순간 잠시 허탈에 빠졌던 미각이 되살아났다. 맛이 기가 막혔다. 뚝배기와 부대찌개. 특정 요리를 이런저런 용기로 끓이려는 법은 없지만 부대찌개 하면 아무래도 무쇠 뚜껑이나 양은 냄비가 떠오른다. 이상식을 갠 뚝배기는 여러 가지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었다. 뚝배기는 어떤 요리든 받아주는 큰 그릇이었다. 그 포용력으로 부대찌개를 웅송깊은 새로운 맛을 창출했던 거다. 마음씨 역시 따뜻하고 포근했다. 마지막 국물 한 숟가락까지 변함없이 온기를 지켜주고 있었다. 새해 내가 뽑은 최고의 그릇이다. /연인인-세태평론가



임영진 신한카드 사장, 임직원 배식 이벤트
임영진 신한카드 사장(오른쪽)은 2일 새해 첫 출근일을 맞아 을지로 본사 25층에 있는 S-라운지에서 임직원들에게 점심 배식을 하는 이벤트를 진행했다고 신한카드가 같은날 밝혔다. /신한카드



SC제일은행, 타임카드 이용 적립금 기부
SC제일은행은 지난달 29일 서울 수유동 소재 한빛맹학교 본관에서 2017년 한 해 동안 모든 타임카드 이용 적립금 1억3565만원을 고객명의로 시각장애인 연주단인 '한빛예술단'에 기부했다고 2일 밝혔다. SC제일은행은 지난 2011년부터 고객의 동의를 받아 카드 이용금액의 0.1%를 기부금으로 적립했다가 매년 연말 사회공익 단체에 기부, 올해까지 7년 동안 약 13억여원을 사회공익을 위해 기부했다. 올해 타임카드 기부 적립금은 1억3565만원으로 총 3만 7000여 명의 고객이 기부에 동참했다. 홍성준 SC제일은행 카드상품팀 이사(오른쪽)와 김양수 사회복지법인 한빛예술단 이사장. /SC제일은행

'워라밸'의 명암



기지 수첩
김 유 진
(유통&라이프부)

유통업계가 파격적인 근무환경 개선을 통해 '저녁이 있는 삶', '가족과 함께 하는 삶'을 표방하며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Work and Life Balance) 열풍에 앞장서고 있다. 신세계그룹은 '임금 하락 없는 근로시간 단축'을 내세웠다. 법정 근로시간인 주 40시간보다 5시간 단축, 주 35시간 근무제로 전환한다. 이마트 영업시간도 기존 자정까지 운영하던 것에서 폐점시간을 밤 11시로 1시간 앞당길 예정이다. 롯데마트도 전팀

자율좌석제 도입, 사무실 강제 소등등으로 워라밸 정착에 속도를 내고 있다. 늦게 출근하고 일찍 퇴근하며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지는 많은 직장인들이 이 향상된 워라밸에 만족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기존에 없던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면서 모두를 만족시키지는 못하는 것도 사실이다. 대표적으로 대형마트에서 일하는 노동계는 워라밸 향상을 위한 해당 제도를 '고용 없는 근로시간 단축'이라며 목소리를 내고 있다. 실제 지난달 마트산업노동조합은 이마트의 주 35시간제 도입에 대해 "인력충원 없는 노동시간 단축, 소득 상승 없는 최저임금 인상"이라고 주장했다. 사실 비정규직, 시간제 노동계의 경우에는 아쉬울 수 있는 부분이다. 올해부터 최저임금이 올라 기존만큼 일을 하면

임금 상승을 기대할 수 있었으나 근로시간이 줄어들어 임금 상승 기대도 접어야 하기 때문이다. 최저임금으로 인한 손해를 줄이기 위해 회사가 좀 손을 부렸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올해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지난해보다 16.4%가 인상된 7530원이다.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회사로서는 인건비가 부담스러운 것도 사실이다. 마트업계 뿐만 아니다. 워라밸 향상을 위해 유연근무제 등을 도입하며 조근·야근 수당을 없애자 오히려 기존 대비 수익이 줄어 해당 제도에 대한 불만이 드러난다. 모든 변화에는 명암이 있기 마련이다. 일자리가 아쉬운 현재로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불만이 터질 수 밖에 없다. 이제 시작된 워라밸 제도가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기업문화로 정착되길 기대해 본다. /ujin6326@metroseoul.co.kr



동아쏘시오그룹, 2018년 시무식 개최
동아쏘시오그룹은 2일 오전 본사 7층 대강당에서 동아쏘시오홀딩스, 동아에스티, 동아제약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도 시무식을 가졌다. 임직원 모두는 시무식 자리를 통해 그 의미를 되새기며 다가올 큰 변화를 슬기롭게 맞이하기 위한 결의를 다졌다. 2일 한중현 동아쏘시오홀딩스 사장이 2018년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낭독하고 있다. /동아쏘시오그룹



보령제약, 100년 기업 도약 다짐 시무식
보령제약그룹은 2일 서울 종로구 원남동 본사에서 중보홀에서 시무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보령제약그룹은 2017년 창업60주년을 맞아, 지난 60년의 도전과 성과를 바탕으로 100년 기업으로 도약해 나아갈 것을 다짐하고, 그 첫해인 2018년을 '100년 기업, 글로벌 기업'으로 가는 원년으로 삼았다. 2일 서울 종로구 본사에서 진행된 2018년 보령제약그룹 시무식에서 보령임지합창단이 신년맞이 작은 음악회를 열고 있다. /보령제약그룹



JW중외제약, 현장서 새해 새출발 다짐
JW중외제약이 현장에서 새해 새출발의 길을 열었다. JW중외제약은 올해 경영방침을 지난해에 이어 '스마트 JW; 지속적 성과'로 확정하고 중점 추진과제로 ▲수평적 소통 ▲일사불란한 실행을 제시했다고 2일 밝혔다. 한성권 JW홀딩스 사장을 비롯한 계열사 대표들과 임직원들이로비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JW중외제약

- 인사**
- ◆서울에너지공사 ◊ 실·차·지사장급 ◊ 감사실장 이순재 ◊ 서부지사장 강 노 ◊ 기술처장 신병국 ◊ 건설처장 강용훈 ◊ 부장급 ◊ 서부지사 배관부장 황순조 ◊ 서부지사 발전운영부장 박용규 ◊ 동부지사 고객지원부장 김용준 ◊ 기술관리부장 한진백 ◊ 환경안전부장 정연태 ◊ 사업개발부장 신홍영 ◊ 건설기획부장 방재복
 - ◆KT금융그룹 (KTB투자증권) ◊ 전무 승진 ◊ 구조화금융센터 이승대 ◊ 상무 승진 ◊ 전산실 김영호 ◊ 상무보 승진 ◊ P팀 인준용 ◊ 채권금융팀 장형수 ◊ 대체투자팀 유병수 ◊ 인사총무팀 광황영 ◊ 감사실 한승환 ◊ 이사대우 승진 ◊

- 영업부 김종덕 ◊ Credit Market팀 이동현 ◊ 법인영업2팀 류종열 ◊ 대체투자팀 정성민 ◊ 재무팀 김덕연 ◊ 기업분석팀 이혜린 ◊ 부장 승진 ◊ 영업부 윤성희 ◊ 자산운용팀 박승환 ◊ IT운영팀 김홍규 ◊ 기업금융2팀 손광수 ◊ SF 사업팀 이주형 ◊ 기획팀 김윤주 ◊ 전무 선임 ◊ 투자금융본부 홍영길 (KTB자산운용) ◊ 상무보 ◊ 임재상 ◊ 권정훈 (KTB네트워크) ◊ 전무 ◊ 정도 ◊ 상무 ◊ 이승호 ◊ 임동현 ◊ 박선배 ◊ 상무보 ◊ 김재한 (KTB PE) ◊ 전무 ◊ 최명록 ◊ 상무 ◊ 이상범 ◊ 신용훈
- ◆보령제약그룹 ◊ 보령제약 ◊ 부사장 이삼수 ◊ 전무 명제혁 ◊ 상무 지왕하 ◊ 박시홍 ◊ 김영석 ◊ 김달현 ◊ 이사 김기덕 ◊ 신상수 ◊ 보령홀딩스 ◊ 이사 이영 ◊ 보령메디앙스 ◊ 대표이사 이훈규 ◊ 보령컨슈머헬스케어 ◊ 대표이사 박인호 ◊ 보령바이오파마 ◊ 상무 이소영
- ◆서울대병원 ◊ 대외협력실장 조영민 ◊ 진료지원실장 한일규
- ◆종근당 ◊ 종근당 ◊ 전무 이윤한 ◊ 상무 강종한 ◊ 이사 이성규 ◊ 문승기 ◊ 구태영 ◊ 유근호 ◊ 백인현 ◊ 경보제약 ◊ 전무 손화주 ◊ 이사 이춘봉 ◊ 종근당 바이오 ◊ 상무 최인석 ◊ 이사 김세진 ◊ 종근당건강 ◊ 사장 김호곤 ◊ 전무 박성선 ◊ 이사 김영우

- ◆경기도 ◊ 안양부시장 이진찬 ◊ 정보화정책관 백성주 ◊ 서울사무소장 최은석
- ◆전북도 ◊ 국장급 ◊ 환경녹지국장 이승복 ◊ 경제산업국장 나석훈 ◊ 새만금추진지원단장 임민영 ◊ 공무원교육원장 신동원 ◊ 과장급 ◊ 인권센터장 장경운 ◊ 세계재민리추진단장 박현규 ◊ 안전정책관 이태현 ◊ 회계과장 송현숙 ◊ 농촌협력과장 김성관 ◊ 축산과장 김창열

- 부음**
- ▲김경채씨 별세, 정일우(한국필름모리스 대표이사)·현정씨 모친상, 김홍중 씨 장인상, 이진경씨 시부상 = 1일,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지하 1층 15호실, 발인 3일 오전 9시 ☎ 02-3410-3151
 - ▲이은용씨 별세, 이성결(인천 남동구 도시관리공단)·헤미씨 부친상, 이강혁(비즈트리뷰 부국장) 씨 장인상 = 2일 인천 송림동 청기와장례식장 402호, 발인 4일 오전 8시 20분. ☎ 032-583-4444
 - ▲김영석 씨 별세, 김병구씨 부친상, 김용하(양주소방서 소방교)·동해(문화일보 정치부 기자) 씨 조부상 = 2일 11시, 경북 포항의료원 장례식장, 발인 4일 오전 9시 ☎ 054-245-0444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 021721-9800, FAX: 021730-1551

발행·편집인 이 정 규
편집국장 이 정 규
인쇄인 (주)중앙일보 김교준
광고문의 021721-9851.3
독자센터 021721-9861

2002년 5월 31일 창간/등록번호 서울특별시 가10206

무술년, 맹활약 기대되는 '연기파 스타 3인방'

2018년 무술년 반가운 얼굴들이 새로운 모습으로 대중 앞에 선다. 그들은 바로 대한민국 대표 배우인 이병헌, 류승룡, 황정민이다.

지난해 '마스터' '싱글라이더' '남한산성'에 출연하며 바쁜 일정을 소화한 배우 이병헌은 올해도 다양한 작품으로 관객을 만난다. 먼저 오는 17일 개봉하는 영화 '그것만이 내 세상' (감독 최성현)으로 스크린에 컴백한다. '그것만이 내 세상'은 모든 것이 정반대인 두 형제가 난생처음 만나 펼치는 유쾌한 감동 드라마다. 주먹만 믿고 살아온 전직 복서 '조하'와 엄마만 믿고 살아온 서번트 증후군 동생 '진태'가 영화의 중심에 서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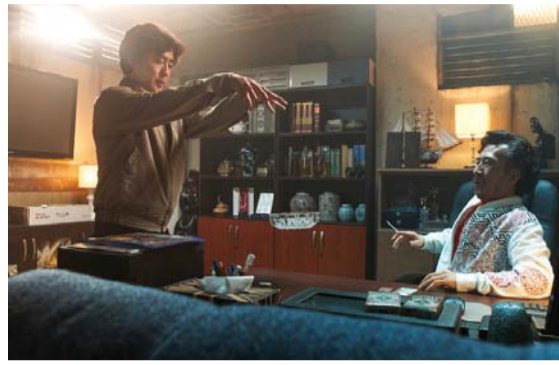
이병헌은 한때 WBC 웰터급 동양 챔피언을 거머쥐었지만 지금은 별 볼일 없고 갈 곳까지 잃은 전직 복서 조하 역을 맡았다. '내부자들'에서 보여준 정치 강패, '마스터' 속 희대의 사기범, '남한산성' 속 이조판서까지 매 작품 장르와 캐릭터를 불문하고 완벽한 연기로 관객을 사로잡은 이병헌은 선 굵고 무게감 있는 캐릭터를 벗고 친근하고 인간미 넘치는 역할을 입었다.

가족도, 돌봐주는 이도 없이 평생을 주먹과 멧집, 자존심으로 살아온 조하는 걸으로는 무뎠고 단단하고 거칠어 보이지만 알고 보면 속성 깊은 인물로 인간적이고 진한 매력을 발산한다. 장애를 갖고 있는 동생 진태가 불편하고 귀찮다고 툴툴대지만, 싫다고 하면서도 챙겨준다. 안 보는 척하면서도 신경 써 준다. 결정적 순간 진태의 편이 되어주는 반전 매력의 조하는 영화의 웃음과



이병헌 '그것만이 내 세상'

별 볼일 없고 갈 곳 잃은 '전직 복서' 역할 맡아 선 굵고 무게감 있는 캐릭터 벗고 인간미 입어



류승룡 '역력'

이미 해외 190여개국 선판매로 화제성 입증 몸무게 12kg 늘리고 와이어 액션까지 최선



황정민 '리처드3세'

'웃음의 대학' 이후 10년만에 연극무대 복귀 굴곡진 인생·사이코틱 인물·극적인 스토리

감동의 중심축이 되어 극을 이끈다.

얇은 구석이 하나도 없는 형제의 좌충우돌 '케미스트리'가 만들어내는 유쾌한 웃음과 재미는 물론, 시간이 흐를수록 마음을 열며 진짜 형제가 되어가는 통해 가족의 의미를 되새기게 하며 감동을 자아낸다.

그리고 tvN '미스터 션샤인'으로 안방극장 시청자를 만난다. 지난해 '태양의 후예' '도깨비' 신드롬을 일으켰던 김은숙 작가가 신작으로 총무로의 신에 김태리와 호흡을 맞춘다. '미스터 션샤인'은 신미양요(1871년) 때 군함에 승선해 미국에 떨어진 한 소년이 미국 군인 신분으로 자신을 버린 조국인 조선으로 돌아와 주둔하며 벌어지는 일을 그린 드라마다.

2015년 영화 '도리화가'와 '손님' 이후 3년만에 스크린 복귀를 앞둔 류승룡은 상호 감독의 신작 '역력'을 통해 조

능력자로 변신한다. 이미 해외 190여개국 선판매로 놀라운 화제성을 입증한 '역력'은 갑자기 초능력이 생긴 아빠 '석현'과 모든 것을 잃을 위기에 빠질 딸 '루미'가 세상에 맞서 상상초월 능력을 발휘하는 이야기를 그린다. 평범했던 한 남자가 특별한 능력이 생긴 뒤 변화하는 일상을 유쾌하게 담아내 기대를 모은다.

'7번방의 선물'에서 6세 지능을 가진 아빠 '명량'의 왜군 장수까지 흡입력 있는 연기로 관객의 눈과 귀를 사로잡았던 류승룡은 갑자기 역력을 갖게 된 남자 신석현으로 분한다.

장난 치기 좋아하고, 적당히 제 잇속도 챙길 줄 아는 평범한 한 남자가 위기에 처한 딸을 위해 역력을 발휘하며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는 모습을 친근하고 능청스러운 연기로 표현했을 뿐만 아니라, 몸무게를 12kg 늘리는 외모 변신부

터 와이어 액션까지 캐릭터 그 자체가 되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는 후문이다. 참신한 소재와 배우의 노력이 버무려진 '역력'은 1월말 개봉한다.

끝으로 영화 '베테랑'과 '국제시장'으로 쌓인 배우라는 수식어를 달고 다니는 국민 배우 황정민은 10년만에 연극무대 복귀 소식을 전해 공연팬들을 설레게 했다.

황정민은 2월 예술의전당 CJ토월극장에서 개막하는 셰익스피어 원작의 연극 '리처드3세'에 출연한다.

2008년 '웃음의 대학' 이후 10년 만에 연극무대에 복귀하는 황정민은 이번 작품에서 볼품없이 못생긴 얼굴과 움츠러든 왼팔, 곰사 등을 가진 신체적 불구자이지만 이 모든 콤플렉스를 뛰어넘는 뛰어난 언변과 권모술수, 유머감각, 탁월한 리더십으로 경쟁구도의 친족들과 자신들을 모두 숙청하고 권력

의 중심에 서는 희대의 악인 리처드3세로 분한다.

'리처드3세'는 영국 장미전쟁시대의 실존인물을 바탕으로 영국의 대문호 셰익스피어가 쓴 초기 희곡이며 그가 탄생시킨 수많은 캐릭터 중 가장 매력적인 악인으로 평가 받고 있다. 배우라면 누구나 탐낼 만한 굴곡진 인생과 사이코틱한 인물성격, 극적인 스토리를 지닌 캐릭터다.

황정민은 왕권을 얻기 위해 한 인물이 얼마나 사악해지고, 나약해질 수 있는지 폭넓은 감정선을 디테일하게 그려 예정이라고 앞서 열린 제작발표회에서 소감을 전했다. 집요한 인물분석과 집중력을 필요로 하는 작품만큼 웬케스트로 오른다. 정용인, 김여진을 비롯해 김도현, 정은혜, 박지연, 임기홍이 무대에 선다. 2월 6일부터 3월 4일까지 예술의전당 CJ토월극장에서 공연한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메트로신문이 직접 편집한 경제뉴스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메트로신문을 볼 수 있어요!



네이버 뉴스스탠드

IOC “北, 평창올림픽 참가의지 표명 환영”

“대표단 파견에 필요한 조치 할 것”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북한이 2018 평창동계올림픽 및 동계패럴림픽 참가 의지를 표명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마크 애덤스 IOC 대변인은 2일(한국시간) 세계 스포츠 주요 전문매체인 '인사이드더게임스'와 인터뷰에서 "IOC는 평창올림픽 조직위원회, 한국 정부, 북한 국가올림픽위원회(NOC)와 긴밀한 협조를 이어 나갈 것"이라면서 "평창올림픽 참가에 대한 북한 지도부의 발언을 열린 방식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은 지난 1일 신년사를 통해 "평창 동계올림픽에 대표단 파견을 포함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용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1일 오전 중앙위원회 청사에서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의가 있다. 이를 위해 북한 당국이 시급히 만날 수도 있을 것"이라며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동안 북한은 평창올림픽 참가와 관련해 북측부담으로 일관했다. 지난해 9월

독일에서 열린 피겨 네벨호트로피 대회에서 페어스케이팅 종목 올림픽 출전권을 자력으로 획득했으나, 참가 의지를 표명하지 않으면서 평창행을 스스로 포기했다.

그러나 대회 개막을 39일 앞두고 김 위원장이 평창행에 대한 의지를 보이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청와대와 이회법 조직위원장은 즉각 북한의 메시지에 화답하면서 북한의 참가는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IOC는 구체적인 계획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자력으로 출전권 확보가 힘든 북한에 와일드카드를 주는 방안을 고려해 왔다. 이를 위해 각 종목 국제연맹과 본격적인 논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김민서 기자 min0812@

스포츠 한줄 News

- ▲ 프로농구 안양 KGC 인삼공사의 센터 오세근이 2017-18 정관장 프로농구 3라운드 최우수선수(MVP)로 뽑혔다.
- ▲ 한국 테니스의 간판 정현이 남자프로테니스(ATP)투어 브리즈번 인터내셔널 1회전에서 질 윌러(룩셈부르크)를 완파하면서 2018년을 힘차게 시작했다.
- ▲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투어 김해림, 조윤지, 이주미와 자유진 감독이 삼천리 스포츠단에 입단했다.
- ▲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토트넘의 마우리시오 포체티노 감독이 현지 기자회견에서 "손흥민은 우리에게 매우 중

- 요한 선수다. 기록 없는 플레이를 펼치며 많은 골을 넣고 있다"면서 그가 영국 현지에서 주목받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 ▲ 23세 이하(U-23) 축구 대표팀의 주전 공격수 조영욱이 FC서울에서 프로 무대에 데뷔한다. 현재 U-23 대표팀에 소집돼 있는 조영욱은 오는 4일 메디컬 테스트를 받을 예정이다.
- ▲ 권오갑 한국프로축구연맹 총재가 무술년 새해를 맞아 "올해를 K리그의 도약과 발전의 한 해로 만들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 ▲ 프로축구 K리그 클래식 수원FC가 일본 프로축구 J2리그 제프 유나이티드에서 뛰던 수비수 김범용을 영입했다. 또 포항 스틸러스는 프로축구 웰린지 성남FC에서 뛰다가 자유계약선수(FA) 자격을 얻은 수비형 미드필더 이후권을 영입했다.

시대가 요구하는 인재양성 위해... '변화', '혁신', '소통'

총장 신년사로 본 2018 대학가

2018년 대학가 화두는 '변화'와 '혁신', '소통'이다. 총장들은 신년사를 통해 4차 산업혁명 등 새로운 변화의 물결 속에서 이에 걸맞은 인재 양성에 더욱 매진하고, 혁신을 위한 개혁에 구성원들의 동참을 이끌어내는 소통에 귀를 열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성낙인 서울대 총장은 2일 신년사에서 "사회변화와 발전을 이끄는 것이 서울대에 주어진 사명이고, 사회적 책무를 다하는 인재를 육성하겠다"면서 "올해는 선(善)한 인재상 확립의 작은 결실이라도 맺었으면 하는 소망"이라고 말했다.

성 총장은 지난해 위기 상황에서 성숙한 시민들이 새 정부를 탄생시켰다고 언급하면서 "합리와 이성을 존중하는 신념, 사회적 정의와 공동선, 협력과 공생 같은 공적가치를 실현하려는 의식이야말로 성숙한 시민의 덕목이고 대학 교육의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라고 강조했다.

성 총장은 아울러 지난 일기동안 펼쳤던 토론 교육 강화와 지성과 덕성을 갖추도록 하는 교과 외 프로그램 등의 기반을 바탕으로 선한 인재의 궁극적 가치와 사회적 역할에 대한 공감대가 학내에 더욱 확산되길 기대했다.

이밖에 서울대 법인화 7년차를 맞아 관악, 연건, 평창, 수원캠퍼스가 상호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과 자율조정 시스템 개선에 박차를 가하고, 학내 구성원과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유지해 미래 발전방향을 함께 모색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염재호 고려대 총장도 이날 신년사에서 "국내 사립대학을 둘러싼 대내외 여건은 매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며 "대학의 자율성보다는 타율성이, 수월성보다는 보편성이 우리의 노력을 더욱 힘들게 할지도 모른다"고 우려했다.

염 총장은 기업이나 정부, 사회단체 등의



성낙인 서울대 총장 | 염재호 고려대 총장 | 김용학 연세대 총장 | 김인철 한국외대 총장 | 김창수 중앙대 총장

성낙인 서울대 총장
"선한 인재상 확립 결실 맺길"

염재호 고려대 총장
"대학, 이익보다 미래 위한 조직"

김용학 연세대 총장
"인재 위해 교실 안팎 허물어야"

김인철 한국외대 총장
"통섭·융합 기반 융복합 강화"

김창수 중앙대 총장
"4차산업 위해 패러다임 바꿔야"

조직이 현재를 위해 산다고 언급한 뒤 "하지만 대학은 미래를 위해 사는 조직"이라며 "20세 전후의 학생들이 이삼십년이 지난 다음 우리 사회와 인류를 이끌어갈 뛰어난 인재가 되도록 교육시키는 터전이 바로 대학"이라며 "우리는 미래를 앞서 보고, 현재 우리를 둘러싼 현실의 이익이나 집단의 이익에 휩쓸리지 말고 미래를 앞서 보고, 앞서 길을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염 총장은 "학문의 독자성은 보존되어야 하는 한편, 학문의 융복합화와 네트워크화도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며 "고려대 발전뿐 아니라 더불어 사는 이사회도 돌아보는 우리 대학이 되어야 한다"고 했다. 학과 개편 등 융복합 추진에 대

한 구성원들의 이해와 협력을 요청한 것으로 풀이된다.

염 총장은 이밖에 SK미래관 완공과 정경대 신관 및 문과대 신관 신축, 수당삼양 패컬티 하우스 준공, 과학도서관 리모델링, 사이언스 파이파크와 자연계 교양관 신축, 메디힐 지구환경관 신축, 최첨단융복합의학센터 건축과 융합연구동 신축 추진 등 하드웨어적인 변화를 예고했고, 교직원 연봉인상과 후생복지 시스템 개발, 학생들을 위한 구내식당 개선과 후생복지 시스템 개선, 프로그램 장학제도 확충, 인재개발 시스템 확충 등 새 정책을 추진해 구성원 자긍심을 높여겠다고 밝혔다.

김용학 연세대 총장은 2일 미래 100년을 이끌어갈 대학으로 탈바꿈하는 것을 숙명으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김 총장은 이날 신년사에서 "2020년까지 달성할 10개 과제인 10 by 20(Ten by Twenty)는 연세대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 것"이라며 "산업사회에서는 똑똑한 인재가 필요했다면 미래사회에서는 좋은 인성을 가진 따뜻한 인재가 요구되고, 이런 인재를 기르기 위해 연세는 교실의 안과 밖을 허물고 이웃의 아픔과 어려움을 이해하는 공감능력을 키워주는 교육을 시작하겠다"고 역설했다.

이어 창의성은 미래사회에 필요한 또다른 자질이라고 언급하면서 "학생들이 마음껏 토론하며 끼를 발휘하는 장을 마련해 주니 놀라운 결과가 나온다. 학생들의 창

의성은 창업의 필수요소"라고 강조했다.

김 총장은 학생들의 창의적인 교육을 위한 교육 개혁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교수 강의 내용을 동영상으로 먼저 본 뒤 교실에서는 토론 위주 학습을 하는 '플립 클래스룸'(Flipped Classroom) 과목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연구에 수반되는 행정 부담을 최소화하는 연구 지원 체계를 만들고 국제공동연구 지원, 단과대학장 특별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학생들이 창의적이고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방식과 함께 대안을 제시하는 지혜도 배우게 될 것"이라며 "냉소적인 지식인을 양성하기보다 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연세인을 키워내겠다"고 강조했다.

김인철 한국외대 총장은 한국외대가 지향해야 할 패러다임으로 통섭과 융합에 기반한 융복합학을 강조했다. 김 총장은 신년사에서 "4차 산업혁명과 한국 대학의 전통적인 강의 방식을 넘어서서 새로운 형태의 수업과 학생지도 패턴을 요구받고 있다"면서 "외대형 특화 교육모형을 개척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외대형 특화 교육모형은 외대가 교수당 학생 비율이 가장 낮으면서도 수업 만족도가 경쟁 대학에 비해 낮은 현실을 반영, 교육과 학생지도의 개혁 모델이다.

김 총장은 "AI(인공지능)시대에 맞춘 플러닝 등 혁신적 수업 방법을 지원하고, 빅데이터 연계, 강의실 첨단화 등을

지원할 플랫폼사업단을 신설할 것"이라며 "외대형 플브라이트 장학제도인 IDS(International Diplomatic Scholarship), 전략지역 전문가 아너스 프로그램, 코어사업, 특수외국어교육 진흥법 프로그램 등을 연결지어 품격있는 국제 인재양성사업으로 육성시키겠다"고 강조했다.

학문적 시장수요에 대응한 학제개편과 융복합학 신성 등도 예고했다. 김 총장은 "교수가 강의와 학생지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해 교육의 질적 만족도가 제고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창수 중앙대 총장은 올해 신년사를 통해 "대학의 수많은 성과와 별개로 대학을 둘러싼 환경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모든 것이 변하고, 불확실하며, 복잡하고, 모호해지는 세상"이라며 "2018년 개교 100주년을 세계로 도약하는 축제와 혁신의 해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4차산업혁명으로 대변되는 깊고, 넓고, 급한 변화를 주도하려면 우리 대학의 교육과 연구, 대학경영의 패러다임부터 바꾸어야 한다"며 "대학 본연의 기능인 교육, 연구, 봉사에 충실함으로써 구성원의 에너지를 모으고 발산시키는 비전 경영 중심으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학과간 벽을 허무는 융합교육도 강조했다. 김 총장은 "대학교육의 본령은 인문학적 소양에 기초한 전문인 양성"이면서도 "여기에 더해 시대의 흐름은 학문과 기술의 경계를 넘나드는 다중 잠재력을 가진 창의적 인재를 요구하고, 여기에 부응해 '강의지원 공유시스템'을 구축해 학생들에게 다양한 강의를 수강할 수 있는 기회의 유연성을 높여가겠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이를 통해 융합전공, 복수전공 등 다전공의 편의성과 수월성을 제공하는 모델을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올해부터 시행할 전공개방 모집제도 정착을 통해 교육경쟁력과 공유대학의 씨앗을 키워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신입 희망연봉 2876만원, 눈높이 낮췄다

중소기업 목표 구직자 증가세 기업별 희망 연봉 수준 차이나

올해 신입 구직자의 희망연봉은 평균 2876만원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을 목표로 한 구직자가 늘어나 눈높이를 낮춘 취업활동자가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취업포털 잡코리아(대표 윤병준)와 알바몬은 2018년 신입직 취업 준비자 145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일 밝혔다.

최종학력별 희망 연봉은 대학원졸이 평균 3273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4년대졸 2950만원, 2.3년대졸 2747만원, 고졸 2.635만원 수준이었다.

기업별 희망 연봉도 수준 차이가 있었다. 대기업을 목표로 한 취업 준비생은 평균 3105만원을, 중소기업의 경우



평균 2646만원을 희망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취업 목표 기업 1위는 '중소기업'이 42.8%로 가장 높았다. 대기업은 28.2%, 공기업 18.6%, 외국계기업 10.4%이었다.

취업 목표 기업은 최종학력별로 다소 차이를 보였다. 고졸 및 2.3년 대졸 구직자 중에는 '중소기업' 취업준비

를 하는 신입 구직자가 가장 많았다. 특히 고졸 구직자 중에는 과반수 이상인 60.0%가 '중소기업' 취업이 목표라고 답했다. 2.3년대졸 구직자 중에서도 절반이 넘는 55.6%가 '중소기업'을 취업목표로 하고 있다고 답했으며, 대기업(20.3%), 공기업(14.9%) 등의 순으로 취업하고 싶다는 구직자가 많았다.

반면 대학원졸 구직자 중에서는 '대기업'을 목표로 준비한다'는 응답이 43.3%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중소기업(25.0%), 공기업(18.3%), 외국계기업(13.3%) 순이었다.

구직자들 목표 기업을 정하는 기준으로는 기업의 복지제도와 전공과의 일치도가 많아, 최근 일과 삶의 균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워라벨 세대'와 '직무중심 채용 트렌드'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한용수 기자

올해 1학기 학자금 대출금리 0.05% 인하

생활비대출 한도 150만원으로 증액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018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금리를 지난 학기의 2.25%에서 2.20%로 0.05%포인트 인하한다고 2일 밝혔다.

대출금리 인하는 최근 미국 기준금리 인상과 시중은행 평균 대출금리 인상 등 대내외적 금융시장의 불안정 상황에도 불구하고, 대학생들의 이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기존 대출자를 포함해 약 131만 명의 학생들에게 연간 총 40억 원의 이자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일반 상환 학자금 생활비 대출은 작년 2학기까지 매 학기 100만원이 최대 한도였지만, 올해 1학기부터는 최대 150만원

으로 확대된다.

취업 후 일정 규모 이상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원리금을 상환하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상환기준소득은 작년 1856만원에서 8.5%(157만원) 오른 2013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소득이 기준보다 낮으면 원리금 상환을 유예받을 수 있다.

대출 신청은 3일부터 본인의 공인인증서를 사용해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가능하다. 등록금은 4월 25일까지, 생활비 대출은 5월 4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신청자는 소득분위 산정에 약 1개월이 소요되는 걸 감안해 대학의 등록 마감일로부터 1개월 전에 대출을 신청하는게 좋다.

재학생의 경우 직전학기 최저 이수학점 또는 12학점 이상, C학점 이상이어야 하고 신입생은 제한이 없다. /한용수 기자

과천과학관, 60세↑ '청춘과학대학' 수강 모집

2월 23일까지 수강신청 접수

국립과천과학관은 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생활 속 과학지식을 알려주는 '제5기 청춘과학대학' 수강생 80명을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강의는 과천과학관 강의실에서 진행되는 전문가 특강, 전시물 체험·해설과, 현장탐방 등으로 오는 3월 6일부터 6월 26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후 16주 과정으로 진행된다.

강의 주제는 '아름다운 노년의 삶'(문덕남 웃음치료사), '잃어버린 미각을 찾아서'(이은화 다이어리달대표), '전문학: 밤하늘의 문화'(황호성 고등과학원 물리학부 연구교수), '청춘과학사대 시니어 CSI'(경철대 정교래 교수), '사람을 살리는 약초이야기'(삼육대 조경남 교수) 등이다.

수강신청 접수는 오는 2월 23일까지로 전화나 방문, 이메일, 팩스로 가능하다. 문의: 02-3677-1524 /한용수 기자

알바생 72%, 최저임금 인상에 '구직난' 우려

2018년 최저임금(7530원)이 적용, 시행되는 것에 대해 아르바이트생 10명중 7명(72%)은 아르바이트 구직난 등의 상황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알바천국이 지난해 12월 21일부터 12월 29일까지 1,458명을 대상으로 '최저임

금 인상에 따른 고민'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아르바이트생의 72%가 최저임금 7,530원 적용에 우려되는 상황이 "있다"고 답했다.

가장 우려되는 상황으로는 아르바이트 구직난(33.3%)을 꼽았으며 갑작스런 해

고, 근무시간 단축통보(20.2%), 아르바이트 근무 강도심화(16.9%), 임금비 상승으로 가게 사정 악화(9.9%), 고용주와 알바생 사이의 갈등 심화(8.7%), 임금체불 빈도 증가(7.9%)가 뒤를 이었다.

또한 지난해 2018년 최저임금 인상 발표 후 아르바이트생 4명중 1명(25.9%)은 해고됐거나 근무시간 단축을 통보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용수 기자



[유통] "새해에도 옴로" 유통가 소비 키워드 '자기만족' 13



[엔터테인먼트] 무술년 맹활약 기대되는 '연기파 스타' 3인방 18



외제차 메카 압구정에 고객 마음 울리는 기아의 '비트360'



기아차 비트360 체험관 전경.

/기아자동차



Q 르포 | 기아자동차 브랜드체험관 'BEAT360'을 가다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를 지나다가 보면 빨간색의 역동적인 건물이 눈을 사로잡는다.

개장 후 4개월 만에 누적 방문객 4만명을 돌파하며 도심 속 문화공간으로 자리잡은 기아자동차의 첫 브랜드 체험공간인 'BEAT360(비트360)'이다.

기아차는 비트360에 신선한 영감과 감동적인 울림으로 고객의 삶을 다채롭게 만들겠다는 철학을 담았다. 눈에 띄는 건물의 외관은 차체를 타고 흐르는 역동적인 공기의 움직임을 형상화했다. 보는 각도와 시간대에 따라 다양한 분위기를 선사해 눈길을 끈다.

이에 지난달 26일 기아차의 브랜드 문화 공간인 비트360을 찾았다.

강렬한 외관에서부터 기아차의 울림이 느껴지는 듯했다. 비트360이라는 명칭에는 여러 의미가 담겨 있다. 'BEAT'는 사람 마음에 울림을 준다는 뜻이다. '360'이라는 숫자도 각각 의미하는 바가 다르다. '3'은 비트360의 카페, 가든, 살롱의 세 공간을 가리킨다. '6'은 사람의 오감 외에 비트 360에 오면 새로운 감각 하나를 더 얻어간다는 뜻이고 '0'은 세 공간에 경계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도슨트(전시물 안내자)의 안내로 가장 먼저 카페 공간을 살펴봤다. 카페 공간은 커뮤니티 라운지, 스미스 티 카페, 아틀리에로 이뤄져 있다.

커뮤니티라운지에서는 음악콘서트와 북콘서트 등 다양한 이벤트가 열린다. 카페 한편에는 신진 작가를 소개하고 그들의 예술활동을 지원하는 공간인 아틀리에도 마련돼 있다. 한국에 하나밖에 없다는 스미스 티 카페에서는 다양한 차를 즐길 수 있다. 이 외에도 카페존에는 모닝, 스토닉 등 기아자동차의 소형차가 전시돼 있다. 방문객은 누구나 차에 탑승해서 차량을 살펴볼 수 있다.

카페 옆쪽에는 기아차와 관련된 물건을 구매할 수 있는 작은 상점이 자리하고 있다. 도슨트는 "기아차의 시트 제조공정에

기아차 체험관 도심 문화공간으로 4개월간 누적 방문객 4만명 돌파 세계 최초 디지털 도슨트 접목해

공간별 다양한 체험할 수 있는 카페·가든·살롱 등 한자리에

서 발생하는 자투리 가죽을 재활용해 만든 가죽가방이 인기상품"이라고 설명했다.

가든 공간에는 휴식을 즐기며 기아차의 SUV 모델을 감상할 수 있는 테라스 존, 기아자동차의 튜닝 브랜드인 튜온의 자동차 용품들을 만나볼 수 있는 공간인 베이 스캔즈 존, 가죽과 함께 아웃도어 감성을 느낄 수 있는 야외 심터인 힐링존으로 구성돼 있다.

마지막 장소는 살롱이다. 이곳의 서라운드 미디어 존에서는 기아차가 꿈꾸는 미래의 모습을 실제 차량에 탑승한 채 관람할 수 있다. 관람객이 차량에 올라타자 "웬홀에 진입했습니다"는 안내 음성과 함께 우주여행이 시작됐다. 미래의 자동차는 여러 위험요인들을 탑승자에게 설명하며 우주를 달렸다.

살롱에서는 전문 상담원에게 차량 구매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인 카 카운슬링 존도 있다. 옆을 보면 뮤직 라운지가 있다. 이곳은 어두운 채도와 간접적인 조명으로 편안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이곳의 차량 시트를 형상화한 최고급 가죽 소파에 앉아 헤드폰을 통해 추천음악을 들으며 휴식을 취할 수 있다. 소파에 앉아서 헤드폰을 끼고 태블릿PC를 통해 음악을 선택하자 선택한 차종에 어울리는 노래가 흘러나왔다.

뮤직 라운지 앞에는 스티어링 휠이 전시되어 있다. 도슨트는 "보통은 콘셉트 카와 실제 양산되는 차가 많이 다른데 이 조형물은 6년 전 프랑크푸르트에 전시된 차와 실제 양산된 차가 얼마나 비슷한지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슨트의 설명이 끝났다고 생각할 무렵



서울시 강남구에 있는 비트 360 내부.



관람객은 차에 탑승한 채로 기아자동차가 꿈꾸는 미래의 모습을 체험할 수 있다.

최첨단 디지털 기기인 홀로렌즈를 건넜다. 홀로렌즈를 착용하고 자동차의 앞자 눈앞에 디지털 도슨트가 나타났다. 그는 "니와 함께 도심을 누려볼까요"라고 경쾌한 목소리로 자동차의 특징을 설명해줬다. 자동차의 차선이탈방지 모습을 눈앞에서 생생하게 볼 수 있다.

이 외에도 모닝, K7과 같은 전시된 차량 앞에 서면 디지털 도슨트가 등장해 차량의 콘셉트와 기능, 장점 등을 설명한다. 비트 360의 디지털 도슨트는 세계 최초로 매개 현실로 제작된 차량 체험 콘텐츠다.

압구정역 근처에서 근무하는 직장인 김영석(36)씨는 "점심시간에 줄곧 일반카페만 찾다가 이곳에 오니 스티어링도 탑승하고

커피도 마실 수 있어 좋다"고 말했다. 카페에서 아이들과 함께 사진을 찍는 화목한 가족도 눈에 띄었다. 기아차에 대한 외국인들의 관심도 적지 않았다. 벤츠, BMW의 대형 SUV에 비해 가격이 절반이상 저렴한 '쏘렌토'를 살피며 "Great!"을 외쳤다.

한편 기아차의 다양한 자동차를 체험하고 휴식도 즐길 수 있는 비트360은 9시부터 21시까지 운영한다. 매월 셋째 주 월요일은 정기휴관일이다. 기아차의 브랜드와 상품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 도슨트 서비스는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할 수 있으며 5명 이상부터 40명 미만까지 가능하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구서윤·김현정·나유리·유재희·임현재·정연우 인턴기자